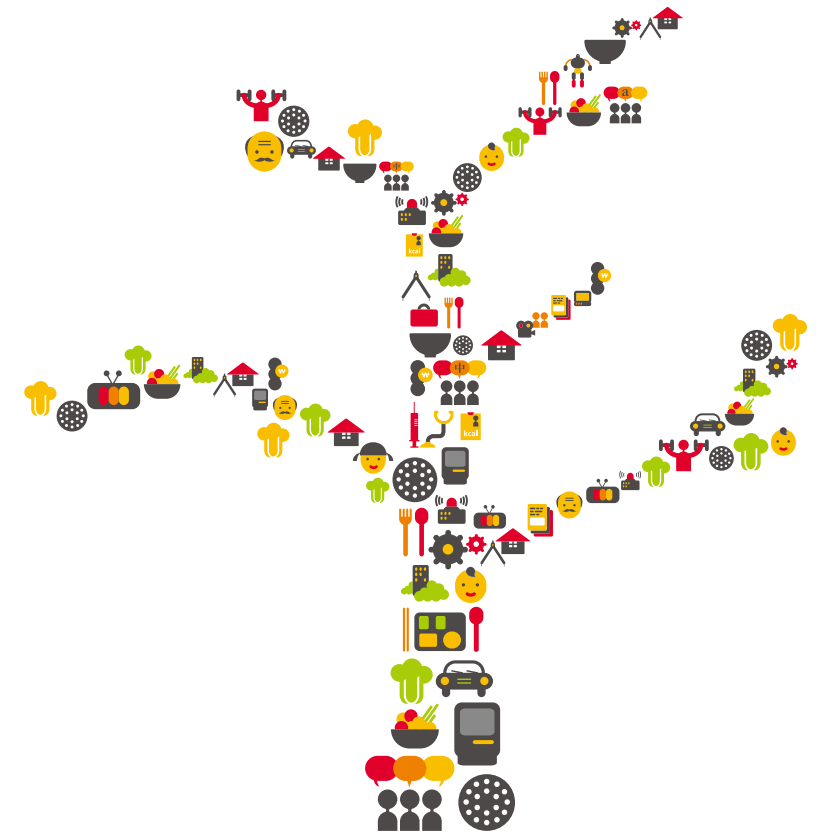


2009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PAPER



SK주식회사 | SK에너지 | SK텔레콤 | SK네트웍스 | SK케미칼 | SKC | SK C&C | SK건설 | SK해운 | SK증권 | 워크힐 | SK E&S | SK가스 | SK브로드밴드



www.sk.co.kr

본 인쇄물은 책임있는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목재로 만든 친환경 종이(FSC 인증)를 사용하여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SK 사회공헌 VI

사랑의 흠씨

온 세상에 퍼져 희망을 알리는 민들레 흩씨처럼,
 '사랑의 흩씨'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담았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SK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2009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SK COMMUNITY INVOLVEMENT WHITE PAPER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 004 회장 인사말
- 006 발간사

008 화보 | 2009 SK 사회공헌활동 10대 뉴스

제1부 SK 사회공헌활동 개관

- 016 사회공헌활동 철학
- 019 사회공헌활동 연혁
- 020 사회공헌활동 원칙과 체계
- 022 공동 프로그램
- 026 1사 1대표 프로그램
- 028 SK재단
 - 한국고등교육재단
 - 행복나눔재단
 - SK미소금융재단

제2부 특집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법, 사회적기업

- 040 통계로 본 SK의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 044 인터뷰 | 사회적기업사업단 단장 신현철 부회장
- 048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기업으로
- 056 SK가 설립·지원한 사회적기업
- 060 사회적기업 talk talk
- 064 전문가 기고 |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 066 전문가 기고 |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

제3부 관계사별 활동

- 070 통계로 본 SK 사회공헌활동
- 072 SK주식회사
- 074 SK에너지
- 082 SK텔레콤
- 094 SK네트웍스
- 100 SK케미칼
- 104 SKC
- 108 SK C&C
- 112 SK건설
- 116 SK해운
- 120 SK증권
- 124 워커힐
- 128 SK E&S
- 132 SK가스
- 136 SK브로드밴드

제4부 부록

- 142 2009 SK 사회공헌활동 대외 수상 현황
- 144 SK 관계사
- 146 SK 사회공헌 관련 웹사이트

SK가 여러분께 드릴 최고의 가치는 ‘행복’입니다

SK가 기업경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SK의 경영 철학이자 기업문화의 근간인 SKMS(SK Management System)에는 SK 기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이라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K가 행복하게 해 드릴 사람들에 SK 안의 구성원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구성원을 둘러싼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SK의 바람 이고 SK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져야 SK도 행복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57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동안 SK는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 내적인 성숙까지를 균형 있게 이루어 가고자 노력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주변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SK로 하여금 지금보다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해서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SK는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을 발표 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닌 경쟁력의 가장 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을 사회공헌 각 분야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실험



입니다. 일시적인 기부로 만족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SK가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SK는 더 크고 과감한 노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사의 성장기반을 새롭게 다져, 한층 커진 행복의 파이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변화의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다 큰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에게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 SK 회장 최태원

행복한 땀방울이 행복한 씨앗이 됩니다

SK는 그동안 행복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는 행복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부형 사회공헌과 참여형 사회공헌을 넘어, 이웃과 공존하는 상생형 사회공헌으로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온 SK의 사회공헌활동은 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은 이제까지 벌여 왔던 사회공헌활동이 결실을 맺은 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해이기도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아가야’, ‘메자닌아이팩’, ‘실버극장’ 등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이로써 SK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중 30곳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SK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일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기금으로 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웹사이트 ‘세상’을 개설하여 사회적기업에 소통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단인 SK프로보노를 발족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SK미소금융재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사회공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질적 비약을 가져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중국 쓰촨성 아이들에게는 SK행복소학교를 지어 꿈과 희망을 선물하였고, 스포츠 분야에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던 핸드볼 선수들을 위해 전용경기장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SK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례문화센터의 기증도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소액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개한 ‘행복저금통’ 캠페인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SK 전 임직원의 땀과 사랑으로 얻은 행복한 결실들을 <2009 SK 사회공헌활동 백서>에 담아냈습니다. SK의 행복나눔 정신은 액자 속에 고정되어 박제화된 철학이 아닌,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철학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SK 전 임직원이 흘리는 땀방울은 행복의 씨앗이 되어 푸른 싹을 틔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 SK자원봉사단 단장 김신배

2009

SK 사회공헌활동



10대 뉴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봉사단을 출범시킨 SK의 2009년은
더 한층 강화된 행복나눔 경영으로 이웃과 사회의 행복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한 해였습니다.
그 2009년의 활동을 되돌아봅니다.

01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 발표

**2011년까지 500억 원 기금 조성,
사회적기업사업단 구성,
혁신적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지원 등
총체적 계획 담아**

SK는 2009년 8월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기업·NGO·정부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펼치는 새로운 개념의 기업을 뜻한다.

SK의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은 향후 2011년까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룹 차원의 사회적기업 육성협의체 창설 및 전문자원봉사단 발족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SK는 이러한 추진 계획에 따라 행복나눔재단 내에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사회적기업사업단을 구성했다. SK의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은 혁신적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SK는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외에 기금 조성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 웹사이트 '세상' 운영 및 사회적기업 관련 세미나와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SK의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은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다른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02

전문자원봉사단 SK프로보노가 간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NGO와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SK는 관계사별로 시범 운영해 오던 전문자원봉사단을 2009년 11월부터 'SK프로보노'로 통합·확대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SK프로보노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단과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단으로, SK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사회 변화를 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SK프로보노 프로그램은 SK 관계사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전문자원봉사와, 경제교육·공학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전문자원봉사로 구성된다.

SK는 더욱 효율적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보노 자원봉사활동의 수요 파악과 매칭·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SESNET)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봉사자와 연계하고 있다. SK프로보노 봉사자는 주말을 이용해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과 기관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Q&A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단체와 봉사자 간에 오고 가는 피드백 자료는 향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SK프로보노는 SK 사회공헌활동의 미션인 '행복을 나누는 기업'에 '공익을 위한(Pro Bono Publico)'이란 뜻의 프로보노 정신을 접목시켜, 전문성·자립·실천의 3대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03

중국 쓰촨성에서 나눔 행복

SK 행복소학교 건립 기증

**대지진 피해지역에 설립된 희망의 상징
내진성·친환경공법 적용, 최첨단 설비
국경을 넘는 따뜻한 지원으로 옹기 부어**

SK는 2008년 5월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 평저우시 통저현에 어린이들을 위한 'SK 행복소학교'를 건립해, 2009년 9월 4일 기증식을 열었다. 3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 SK행복소학교는 SK건설의 시공으로 최고 수준의 내진성과 친환경공법을 적용해 건설됐다. 또한 천문대, 에너지·정보



04

'우생순'의 꿈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



대한핸드볼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은 2009년 8월 24일 김주훈 대한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함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핸드볼경기장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SK는 한국 핸드볼의 20년 숙원인 전용경기장을 2011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다. 핸드볼 전용경기장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펜싱경기장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SK

가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를 맡을 예정이다. SK는 2010년 내 설계를 매듭 짓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사비용은 SK가 전액 부담하되 완공 이후 10년간 경기장에 대한 명칭 사용권을 갖는다. 전용경기장은 핸드볼 경기에 최적화된 규모와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다. 핸드볼 경기 이외에 펜싱·배드민턴·탁구 경기 및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설계된다. 또한 경기장에는 선수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대한핸드볼협회 사무공간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핸드볼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공론화된 핸드볼 전용경기장 건립 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한 채 20년 동안 표류하다가, 이번 SK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양해각서 체결로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05

행복저금통으로 펼친 작은 나눔 큰 행복 소액기부 캠페인 전개



SK는 나눔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9월 22일 서울 SK텔레콤 T타워에서 'SK 행복나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SK 관계사 CEO와 임직원, SK해피스쿨 학생,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1318해피존-청개구리 밴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SK자원봉사단장인 김신배 SK C&C 부회장 등 CEO들은 직접 요리밥·떡볶이·샌드위치 등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대접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와 SK해피뮤직스쿨, SK해피뮤지컬스쿨, 그리고 1318해피존-청개구리 밴드의 신나는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더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액기부가 있다"며 즉석에서 소액기부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SK는 '행복저금

**일상에서 실천하는 행복나눔
임직원들 3개월간 2억여 원 모아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에 사용**

통'을 제작해 관계사 전 임직원에게 나눠 줬으며, 임직원들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동전을 모아 총 2억 1,000만 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모금액은 행복나눔재단에 전액 전달되어 전국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이를 통해 전국 688명의 결식아동이 겨울방학 동안 2만 6,173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SK는 이외에도 소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쉼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일반인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휴대폰 소액기부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쳐 오고 있다.

최태원 회장 UNGC 이사회 참석

CSR 글로벌 리더로 본격적인 행보 시작



깨어 있는 자본주의 위한 기업 역할 제안
상생인턴십 등 SK CSR 활동 소개
UNGC 한·중·일 라운드 테이블도 참여

최태원 회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이사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2009년 7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사회책임경영(CSR)의 글로벌 리더로 국제무대에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국에서는 투자, 일자리 창출, 시장의 신뢰회복 등 기본에 충실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상생인턴십 프로그램 등 SK의 CSR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속가능경영, 환경 및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위기관리, 기업운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깨어 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UNGC는 지난 2000년 7월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과 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발족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다. UNGC 이사회는 세계 5,000여 기업과 단체 가운데 사회적 책임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업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관계자 등 모두 23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5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UNGC 이사에 선임되어 SK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009년 11월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UNGC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재발견해 한·중·일 3개국이 국제적·지역적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행복을 대출하는 기관

SK미소금융재단 출범



취약계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금 대출
SK프로보노 통해 경영컨설팅도 지원

SK는 취약계층이 자립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09년 12월 23일 SK미소금융재단을 출범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영세사업자·저소득층 등에게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활동을 하

고 있다. 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창업지원교육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SK는 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자원봉사단인 SK프로보노를 통해 각종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500~5,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4.5% 이하로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크게 낮다. 대출 원리금은 6개월~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최태원 회장은 SK미소금융재단 출범식 축사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행복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SK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좀 더 많은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행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미소금융재단은 SK 관계사가 연 200억 원씩 향후 10년간 출연한 2,00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SK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SK 행복나눔계절



SK는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SK 행복나눔계절’로 선포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K행복나눔계절은 2005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SK는 매년 11월과 12월을 SK행복나눔계절로 선포한 후 연탄배달, 김치담그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다채로운 자원

봉사활동을 벌여 왔다. 2009년에는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예년보다 SK행복나눔계절 시기를 한 달 앞당겨 진행했다.

2009년 SK행복나눔계절은 ‘작은 나눔 큰 행복’을 주제로 소액기부 캠페인, 행복나눔 자원봉사, 사회적기업 지원, 따로 또 같이 행복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복나눔 자원봉사는 SK 주요 관계사 봉사팀에 소속된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1만 2,000여 명이 저소득층 매통 지원, 노숙자 무료급식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SK는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을 위해 23만 포기의 김장을 담그고, 96만 5,000장 분량의 연탄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김장담그기는 SK행복나눔계절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행사로 2009년으로 15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사람 냄새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온 SK는 소액기부 캠페인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어느 해보다 풍성한 SK행복나눔계절을 만들고 나누었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전문 포털

웹사이트 ‘세상’ 개설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효용성 확산
공공참여 방식으로 아이디어 발굴
전문 역량 결집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SK의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알리고 육성하기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 ‘세상(世想 www.se-sang.com)’ 선포식 및 협약식이 2009년 11월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에서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구가 될 ‘세상’의 역할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효용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인다. 두 번째 공공참여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SK는 제안

된 아이템 중 우수 아이템을 선정해 1년에 4번 시상할 계획이며 사업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정부·NGO·기업·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한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상’과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학술연구자료와 선진사례 등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쇼핑몰 ‘이로운 물’은 ‘세상’의 사회적기업 제품 쇼핑몰을 위탁 운영한다.

앞으로 웹사이트 ‘세상’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저소득청소년 자립 모델

SK해피카스쿨 오픈



SK는 2009년 10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 SK해피카스쿨 1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SK해피카스쿨은 자동차 정비에 관심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 기회를 갖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앞선해 주는 자립 지원 사업이다.

1기 신입생 35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이 중에는 장래 희망이 자동차 엔지니어인 새터민 학생과 여고생도 1명씩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10년 9월까지 총 12개월간 주 5회, 방과 후 4시간씩 행복나눔재단,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캠퍼스, 자동차정비소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외에 인문·경제·IT 교육 등 기초소양교육을 받으며, SK스피드메이트 및 자동차 1, 2급 정비소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SK해피카스쿨의 운영을 맡은 행복나눔재단은 SK해피카스쿨 1기생들에게 교육비용은 물론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검정수수료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료 시 취업을 연계하고, 관련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한다. SK해피카스쿨을 비롯한 SK해피스쿨(SK해피뮤직스쿨·SK해피뮤지컬스쿨·SK해피쿠킹스쿨)은 SK가 1970년대부터 시행해 온 교육·장학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자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1부

SK 사회공헌활동 개관



행복온도가 쑥쑥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노 저어 가는 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젓는 배가 더 빠릅니다.
여럿의 지혜와 능력을 모으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SK의 사회공헌활동에는 '따로 또 같이'라는
SK만의 독특한 경영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따로'가 더해져야 하고
'따로' 잘하기 위해서는 '같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SK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4개 주요 관계사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그램과
각사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관계사 중점사업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뜨거워지고 더할수록 커집니다.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내는 시너지 효과로
지금 SK의 행복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철학

기업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창출

SK는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하면서 반세기 동안 사회공헌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인간중심 주의를 '행복경영'이라는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발전했다. SK의 사회공헌활동은 행복경영에 뿌리를 둔 채 기업이 속한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고(故) 최종현 회장은 "나는 업무의 80% 이상을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기업을 만드는 초석이라 생각했으며, '사람이 곧 기업(人乃社)'이라는 인재경영론은 이후 SK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이처럼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최종현 회장의 인재경영론에서 출발했다. 최종현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에 불과하던 시절 사재를 털어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으며, 그 이전 해인 1973년부터는 MBC <장학퀴즈>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지원을 통해 해외 유수의 명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500여 명의 인재들은 현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학퀴즈>는 중국으로 확산되어 <SK장원방>이라는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

인재경영에 뿌리를 둔 SK의 사회공헌활동은 달라지는 시대상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을 통한 자립·자활의 형태로 변모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1318해피존', 그리고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전문교육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SK해피스쿨'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SK의 경영철학 SKMS에 명문화된 '행복경영'

SK는 1975년부터 기존 사업구조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경영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최종현 회장은 이 경영시스템을 통해 SK가 21세기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랐다. SK는 이후 4년여의 노력 끝에 SKMS(SK Management System)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SKMS는 화석화된 경영이념이 아닌,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되어 활용되는 살아 있는 경영시스템이다. 실제로 SKMS는 1979년 정립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SK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총 12차례 개정되어 왔다.

SKMS에는 '행복경영'이라는 SK만의 독특한 경영철학과 이념이 담겨 있다. SKMS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는 행복경영이라는 개념은 사회공헌활동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SK의 경영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경영철학이다.

지속가능한 행복창출로 행복 극대화 추구

SKMS에서 말하는 SK의 기업관은 궁극적으로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고객과 구성원, 주주, 그리고 사회를 위한 가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SKMS에 따라 SK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행복 극대화를 추구한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규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그동안 얼마만큼의 행복을 만들어 냈고, 그 행복을 어떻게 나눴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지속적인 행복을 꾸려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의 목적이 행복가치 창출에 있다는 SK의 행복경영을 강조한 것이다. 행복경영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창출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SK의 사회공헌활동은, 결국 행복경영이라는 토대 위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연혁

1973 MBC <장학퀴즈> 후원 시작
충주 인등산에 '인재의 숲' 조림 시작

1974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1984 워커힐 미술관 개관

1990 서울대 SK경영관 건립 기증

1991 SK대입학력경시대회 시작

1994 SK환경사랑 어린이 글모음 잔치 시작

1995 SK수원도서관 기증

1996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 시작

1997 울산대공원 조성 사업 시작

1998 이화여대 SK텔레콤관 준공 기증
KAIST SUPLEX경영관 준공 기증

1999 장애인청소년 정보검색대회 시작

2000 중국 <SK장웨이팡> 방영 시작
아트센터 나비(Art Center nabi) 설립
중앙아시아 국가에 의류 기부 시작
한국고등교육재단 국제학술교류 사업 시작

2003 SK행복나눔바자회 시작
엔크린 소년소녀가장돕기 시작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발족

2004 SK자원봉사단 출범
모바일 미아찾기 서비스 시작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운영
한국고등교육재단 베이징포럼 지원 시작

200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 발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시작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시작
SK행복나눔계절 시작

2006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센터 사업 시작
울산대공원 준공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1318해피존 설립 및 운영
행복나눔재단 출범

2007 SK해피뮤직스쿨·SK해피뮤지컬스쿨 오픈
중국 SK우호림 조성
베트남 IT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장례문화센터 착공
페루 사회공헌활동 시작

2008 태안 살리기 자원봉사·태안 경제 지원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지원
SK재활관 준공
SK해피퀵스쿨 오픈
중국 SK창신교실 건립
메자닌아이팩·메자닌에코원 설립 지원

2009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 발표
핸드볼경기장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중국 쓰촨성에 SK행복소학교 건립 기증
SK프로보노 출범
사회적기업 지원 웹사이트 '세상' 오픈
SK해피카스쿨 오픈
고마운순·Seoul Resource 센터 설립 지원
SK미소금융재단 출범



사회공헌활동 원칙과 체계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인간중심주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SK는 기업경영의 궁극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의 행복 극대화에 두고 있다. 이러한 행복경영 원칙은 사회 공헌활동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SK는 자선적·시혜적 차원의 일방적인 사회공헌이 아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사회공헌을 지향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사회공헌 활동의 준거로 삼고 있으며, Main Theme으로 'Sharing Knowledge를 통한 Empowerment'를 설정하고 있다.

행복한 참여 ● PARTICIPATION

SK는 CEO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한다.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참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진정성이 부족하다면 행복한 상생도, 행복한 변화도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SK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취약계층과 소통하며 사람 냄새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믿음이 SK의 기업문화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상생 ● TOGETHER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독자적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사회·NGO·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인 행복한 상생은 서로의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복한 변화 ● CHANGE

과거의 기업들은 단순한 기부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자선적 차원의 도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업도 한 발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SK는 장애인·여성가장·소년소녀가장·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SK 사회공헌활동의 세 번째 원칙인 행복한 변화는 본질적인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Mission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3대 원칙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

Main Theme

Sharing Knowledge를 통한 Empowerment

SK는 'Sharing Knowledge를 통한 Empowerment'를 사회공헌활동의 Main Theme으로 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축적한 유·무형의 성과를 활용해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 자선이 아니라 SK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려 하며, SK의 역량을 사회와 나눔으로써 사회와 함께 발전하려 하며, 이를 통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와 같이 문제해결 관점에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SK가 사회와 나누려는 자산에는 SK가 보유하고 있는 인재육성 철학에서부터 에너지 및 IT 관련 전문성, 인프라, 그리고 구성원의 전문지식 및 행복나눔

에 대한 열정까지 포괄적이다. SK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공헌 대상은 물론 우리 사회, 나아가 SK 자신의 Empowerment(대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 주는 여러 방법)를 추구하고 있다.

SK가 추구하는 'Sharing Knowledge를 통한 Empowerment'에는 여러 정신이 깃들여 있다.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SKMS가 성선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정신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내적 동기화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대상의 자립·자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와 SK의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공동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 만드는 우리 사회의 행복가치

SK의 '따로 또 같이' 문화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잘 드러난다. SK의 14개 주요 관계사는 '따로' 움직여 고유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또 같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SK만의 문화를 진화시켜 가고 있다. SK 공동 프로그램 역시 '따로 또 같이' 문화에 의거하여 시너지를 내면서 사회의 행복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SK 공동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SK재단인 한국고등교육재단·행복나눔재단·SK미소금융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1318해피존 ● 1318해피존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K가 총 106억 원을 투입한 1318해피존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설립됐으며 2009년 말 현재 총 34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SK해피스쿨 ● SK해피스쿨은 재능과 꿈을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해피뮤직스쿨, SK해피뮤지컬스쿨, SK해피쿠잉스쿨, SK해피카스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장학·학술사업 ● SK는 1974년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세계 수준의 학자로 키워 내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해외유학장학사업을 시작으로, 대학특별장학사업·한학연수장학사업·대학원장학사업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 말까지 총 501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여 국내 학문 수준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취약계층 자립·자활

사회적기업 지원 ● SK는 일회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SK는 이를 위해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행복나눔재단 내에 사회적기업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 발굴과 소통의 장으로 웹사이트 ‘세상’을 개설했으며, 전문자원봉사자인 SK프로보노를 발족하여 SK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SK에서 설립·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총 52곳이며, 이를 통해 77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 ●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SK는 장애인 IT교육원,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1318해피존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SK는 5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4,83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 ●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은 SK의 발원지인 수원지역의 무주택자를 위해 4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SK는 2006년 3개 동 18세대를 건립한 데 이어, 총 8개 동 48세대의 수원 해비타트-SK행복마을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SK가 부지 매입에서부터 시공·자원봉사까지 도맡아, 새로운 개념의 해비타트 운동 모델을 제시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 SK는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 연초 2개월간 벌이는 집중모금 캠페인에 그룹 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SK는 2001년 30억 원을 처음 기부한 이래 지금까지 총 7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3위의 그룹 규모에 걸맞은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해 왔다. 2009년에도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여 성금 100억 원을 전달하는 한편, 희망메시지 작성·행복온도담 올리기 등에 참여했다.

서민 소액대출사업 ● SK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SK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곤란한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한편 여타의 지원 활동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K는 SK미소금융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9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원씩 총 2,00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SK 구성원의 자원봉사

SK자원봉사단 ● 2004년 창립 51주년을 맞아 ‘New SK’를 선언하고 재도약을 천명한 SK는 그동안 관계사별로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K자원봉사단을 결성했다. SK자원봉사단은 김장담그기, 연탄배달, 주택개량, 긴급구호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2만 6,017명의 봉사단원이 396개 봉사팀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SK프로보노 ● SK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기 위해 SK프로보노를 운영하고 있다. SK 전체 관계사 임직원 중 각 업무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SK프로보노는 컨설팅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NGO를 방문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또한 SK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자립에 필요한 경영컨설팅도 맡고 있다. SK프로보노는 2009년 말 현재 약 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SK행복나눔계절 ● SK는 매년 11~12월을 SK행복나눔계절로 선포하고, 2005년부터 연탄배달, 김치담그기, 결식이웃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실직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예년보다 SK행복나눔계절을 한 달 앞당겨 진행했다. 2009년 SK행복나눔계절은 소액기부 캠페인, 행복나눔 자원봉사, 사회적기업 지원, 따로 또 같이 행복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소액기부 캠페인은 최태원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09년 새롭게 시작했다.

긴급구호활동 ●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웃들을 앞장서 보살펴 온 SK는 2009년 6월 ‘SK긴급구호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긴급구호 자원봉사단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꾸려졌다. 300여 명의 SK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는 향후 재난발생 시 피해 이웃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티셔츠, 세탁용품, 비옷, 수건 등 19개의 생필품으로 구성돼 있는 긴급구호키트 2,000세트가 현장에서 제작됐다. SK긴급구호 자원봉사단은 2009년 7월 폭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에 긴급구호키트를 전달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글로벌 행복나눔

중국 사회공헌 ● SK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업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행복나눔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07년 중국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했다. 중국사회공헌위원회는 중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오고 있다. SK는 〈SK장웨이팡〉방영, SK창신교실 건립 등 중국 내 교육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SK우호림 조성 등 환경보호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아 2008년 중국 국무원 부빈기금회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지진피해가 심했던 쓰촨성 지역에 SK행복소학교를 건립해 기증했다.

국제학술 지원 ● SK는 인재양성에 대한 오랜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2000년도부터 국제학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아시아 학문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시아 각국 학자들을 한국으로 초청, 국내 학자와 협력연구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각국에 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학자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세계 수준의 국제학술포럼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1사 1대표 프로그램

SK 14개 주요 관계사의 역량을 결합한 행복 네트워크

SK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주요 관계사별로 각 사의 특성과 노하우가 반영된 1사 1대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의 역량과 성과를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SK는 더 큰 행복을 빚고 더 큰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

SK주식회사 ● 자원봉사문화 확산, 사랑의 빵나눔 봉사

SK주식회사는 2008년 자원봉사단을 창단한 후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룹 사회공헌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또한 인턴사원들과도 행복나눔을 공유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시행했다. 한편 SK주식회사는 대한적십자사 종로봉사관을 정기적으로 찾아 제빵작업을 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빵을 지역 결식아동, 노인, 방과 후학교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SK에너지 ● 사랑의 연탄나눔, 고마운손 설립 지원

SK에너지는 에너지 회사라는 특성에 걸맞게,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연탄나눔은 약 100만 장의 연탄을 4,000여 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으로, 2009년에도 3,135가구에 약 93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한편 SK에너지는 핸드백류 제조회사인 사회공헌기업 '고마운손' 설립을 지원했다. SK에너지·보건복지가족부·열매나눔재단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고마운손은 새터민 등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SK텔레콤 ● 모바일 공익사업

SK텔레콤은 사업 특성을 살려 모바일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공익사업'은 SK텔레콤이 보유한 기술 인프라를 사회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SK텔레콤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2,400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모바일 미아찾기, 모바일 헌혈, 긴급재난문자정보서비스, 119 긴급구조서비스, 청소년 모바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유무선 사회공헌 포털 'T-together(※ 1320+NATE 또는 ttogether.tworld.co.kr)'를 론칭했다.

SK네트웍스 ● 1사 1촌 봉사활동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온 SK네트웍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를 위해 2009년에는 농번기 제조작업, 마을 환경미화, 농산물 수확활동 지원, 벼짚뭉치 등 일손돕기를 비롯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SK케미칼 ● 실버극장, 하천살리기

SK케미칼은 2009년 극장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노인전용극장 '실버극장'을 후원하고 있다. 서울시·서울시의회·하리우드극장과 협력하여 실버극장 후원활동을 통해 국내 노년층의 여가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SK케미칼은 서울시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한편 SK케미칼은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인 '하천살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SKC ● 매칭펀드 조성을 통한 청소년 교육비 후원

SKC는 2007년부터 직원들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매칭펀드를 매월 조성하여 어려운 여건의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사원 1가구 자매결연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주로 교육비에 쓰인다. 2009년 SKC 본사는 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한 서울 영등포지역의 빈곤아동 47명을 후원했으며, 울산과 수원 사업장에서도 지역 내 아동을 돌보고 있다.

SK C&C ●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 C&C는 IT전문기업이라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IT 지원 사업을 일 자리 창출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은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후원을 넘어,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성남)과 2005년(일산) 교육원을 개원한 이후 2009년 말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33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총 186명이 취업했다.



SK건설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SK건설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2006년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중부·영남 등에 위치한 4개 지역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월 저소득층 세대를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 바닥재 재시공, 지붕 보수, 싱크대 교체, 도장 공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SK해운 ● 수상구조대, 해양레저활동 지원

SK해운은 해운회사의 강점을 살려 '수상구조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상구조대는 긴급재난구조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하천의 환경지킴이 역할을 겸하고 있다. 또한 SK해운은 2004년부터 한국해양소년단과 함께 어린이와 장애인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SK증권 ● 청소년 경제교실

SK증권은 금융회사라는 특성을 살려 '청소년 경제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50여 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정규학교를 대상으로 전국에 정예화된 강사진을 제공하는 증권사는 SK증권이 처음이다.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연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증권은 향후에는 참가대상 모집 및 일정 수립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경제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커힐 ●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 민속공연

위커힐은 2002년 '아차산을 사랑하는 모임'을 창단한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기념식수 및 아차산 자연보호활동을 펼치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위커힐은 또 민속공연단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도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구리한강유채꽃축제, 아차산고구려축제 등에서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SK E&S ● 우리자녀지킴이 캠페인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SK E&S는 2008년부터 '우리자녀지킴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SK E&S의 자회사인 8개 도시가스사는 매주 또는 격주 1회씩 초등학교 주변을 패트롤카로 순찰하거나 하굣길에 동행함으로써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SK가스 ●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 정기 후원

SK가스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SK가스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일정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희망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 희망기부금에 회사 기금을 보태 조성한 성금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과 평택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 해피인터넷 캠페인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피인터넷 멘토링 등 다양한 '해피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4월 36명의 임직원들을 '해피인터넷 멘토'로 선정하여 전국 10개 중학교에서 2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고객에게 인터넷중독 무료상담을 안내하는 한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06수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SK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양성의 요람

한국고등교육재단은 1974년 고(故) 최중현 회장이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세계 수준의 학자로 키워 내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총 2,798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501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여 한국의 학문 수준 향상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아시아 학문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학술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장학사업



해외유학장학제도

1974년에 시작된 재단의 주 장학제도이다. 해외 유학생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분야는 사회과학·순수과학·정보통신분야이다. 현재 180여 명의 해외 유학생이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 해외유학장학생 분야별 현황 | (2009년 말 현재)

전공분야	경제학	경영학	정외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신방학	철학	합
숫자(명)	20	7	14	6	6	4	5	4	5	184명
전공분야	사학	국문학	중문학	물리학	수학	화학	생명과학	전기공학	전산학	
숫자(명)	3	1	1	12	4	10	8	49	25	

대학원장학제도

동양학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학제도이다. 동양학 분야는 우리의 전통 학문을 계승 발전시킬 우수한 학자 양성을 위하여 한학연수장학제도 과정을 마친 수료자(또는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학문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대학원장학생 분야별 현황 | (2009년 말 현재)

전공분야	행정학	철학	사학	국문학	중문학	한문학	전기공학	전산학	합
숫자(명)	3	4	4	5	2	2	16	20	56명

대학특별장학제도

우수한 대학생을 조기에 선발해, 향후 세계적 수준의 학자로 키워 내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1978년부터 시작됐으며, 대학 졸업 후 해외유학장학제도를 통해 우수한 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매년 사회과학·순수과학·정보통신 분야에서 약 4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대학특별장학생 분야별 현황 | (2009년 말 현재)

전공분야	경제학	경영학	정외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합
숫자(명)	21	17	10	2	16	2	1	3	1	134명
전공분야	신방학	통계학	철학	물리학	수학	화학	생명과학	전기공학	전산학	
숫자(명)	1	1	1	7	9	5	8	24	5	

한학연수장학제도

197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학연수장학제도는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 중 동양학과 관련된 연구를 원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은 3년 동안 한학의 기본 경전과 주요 경전 학습을 통해 한학 연구능력을 키우게 된다. 매년 인문과학·사회과학 분야에서 약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 한학연수장학생 분야별 현황 | (2009년 말 현재)

전공분야	경제학	경영학	정외학	사회학	철학	사학	국문학	중문학	한문학	한의학	합
숫자(명)	1	1	4	2	6	14	3	3	4	1	39명

국제학술사업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

아시아의 학문 발전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아시아 각국의 우수학자들을 50여 명씩 한국으로 초청해, 1년간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협력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재단에서는 초청학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연구비, 입국 정착비, 왕복항공료, 논문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 제공, 도서관자료 지원, 학술좌담회 개최 지원, 한국어강좌 운영, 한국문화 여행, 산업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연구뿐 아니라 한국사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국제학술교류지원사업 현황 | (2009년 말 누적)

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기타	합
숫자(명)	375	28	38	11	23	16	20	5	5	521명

아시아연구센터지원사업

아시아연구센터지원사업은 유기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문 발전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시작됐다. 아시아 각국의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된 아시아연구센터는 현지 학자들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군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7개국 16개 기관에 아시아연구센터가 설립됐다.

국제학술회의지원사업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와 세계 지식인들 간의 활발한 학술적 소통을 유도하는 국제학술회의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류가 안고 있는 제 문제를 토론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제학술포럼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포럼과 상하이포럼이다.

베이징포럼은 문명 및 문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며, 재단과 중국 베이징대학 및 베이징시가 2004년부터 공동 주관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문명의 조화와 공동번영-위기, 도전, 반성 그리고 화해 발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으며, 세계 42개국 319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경제전문포럼인 상하이포럼은 중국 푸단대학과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2009년 5월에는 최근 글로벌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글로벌화와 아시아의 선택-위기, 협력, 발전'을 주제로 선택했다. 이 포럼은 세계 26개국의 학자·기업가·정책가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SK재단 행복나눔재단

취약계층 자립·자활 모델 일구는 행복 메신저

행복나눔재단은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06년 6월 설립됐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으로 희망찬 첫걸음을 시작한 행복나눔재단은 SK해피스쿨,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스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나눔재단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하 행복도시락), SK해피스쿨,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등이 있다.

먼저 행복도시락은 SK가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행복나눔재단의 설립과 SK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행복도시락은 사업추진 협력모델, 사업성과 및 효과, 사업의 확산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통합성을 가지는 사회공헌 모델이다. SK해피스쿨은 각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기 힘든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이다.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과 전문가가 참여해 체계적인 전문교육은 물론 인성·경제·IT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한 대학문화 확산을 목표로 2003년 시작된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 각 분야에서 발휘하며 열린 마음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행복나눔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을 시혜적이고 일방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양방향적인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지원 사업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2009년 11월 웹사이트 '세상(www.se-sang.com)'의 선포식 및 협약식은 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며,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사업단 조직을 구성하고 SK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하 행복도시락)은 SK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발표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SK는 행복도시락 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행복나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행복도시락 사업은 결식이웃에게 무료로 급식을 전달하는 한편 사회 취약 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기준을 적용한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영양가 높은 도시락을 결식아동 및 노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 중에서 조리사·조리원을 선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복도시락은 결식이웃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SK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SK가 사업비 지원을, NGO가 운영 지도 및 감독을, 정부가 수혜자 선정 및 인건비 지원을, 그리고 지역사회단체가 자원봉사를 맡아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의 전 과정에 기업과 정부, NGO가 파트너십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모델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2006년 2월 제1호점인 서울 중구점에서 출발하여 2009년 말 현재 모두 29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29개의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하루 평균 1만 3,500식의 도시락을 결식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0월 충북 청주에 설치된 29호점은 최경주재단(이사장 최경주)에서 1억 원을 쾌척하여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행복나눔재단은 2008년 겨울부터 경기침체와 방학 중 급식전달체계 공백으로 급증한 결식아동을 위해 '사각지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방학 중 급식 미지원 아동·청소년을 파악하여 2008년 겨울방학부터 2009년 여름방학·겨울방학까지 세 차례의 방학기간 동안 2,793명에게 9만 1,000식을 제공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 SK 임직원들이 '행복저금통'을 통해 모은 소액기부금으로 후원금을 조성하여 더욱 뜻 깊은 급식지원이 이루어졌다.

| 행복도시락 운영 현황 | (2009년 말 현재)

급식센터 개수	일평균 급식 수	인력
29개	1만 3,500식	502명
센터당 일평균 급식수 466식		





SK해피스쿨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한 기부 중심으로 흘러 왔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개성과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 이들 청소년들이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도입한 것이 바로 SK해피스쿨이다. 행복나눔재단에서는 SK해피스쿨을 통해,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SK해피뮤직스쿨

SK해피뮤직스쿨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큰 예술교육 분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음악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2월 본격화됐다. 피아노·바이올린·첼로 등 3개 분야에서 매년 40~60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1대1 개인교습, 마스터클래스, 향상음악회 등을 통해 체계적인 클래식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클래식음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음악교육 외에도 청소년들의 인생과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고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07년 40명, 2008년 56명, 2009년 34명을 선발하여 전문강사개인레슨, 그룹레슨, 앙상블레슨, 시창청음 및 음악이론 등 음악종합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등 국내 우수 음대 및 서울예고 등에 진학하는 성과를 낳았다.

SK해피뮤지컬스쿨

행복나눔재단은 미래의 뮤지컬 주역을 꿈꾸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2007년 10월부터 SK해피뮤지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춤, 노래, 연기 등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기, 무용,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SK해피뮤지컬스쿨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뮤지컬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디션을 거쳐 입학한 학생들은 매주 5회씩 강도 높은 연습을 하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SK해피뮤지컬스쿨 1기 졸업생 16명은 2008년 12월 〈남경주의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연에 초청받아 무대에 서는 기쁨을 누렸다. 2기 졸업생들도 2009년 2월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CTS아트홀에서 후원자들과 취약계층을 초청해 졸업작품 발표회를 가졌으며, 2009년 8월 강남구 수서·노원구 임대아파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년센스〉 공연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SK해피쿠킹스쿨

SK해피쿠킹스쿨은 요리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7~23세의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IT·경제·인문교육 등의 기초소양교육, 조리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전문교육, 각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습·인턴십 등의 자립소양교육, 청소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자립지원 등 4단계의 통합적 교육을 제공한다.

| SK해피쿠킹스쿨 현황 | (2009년 말 현재)

	1기	2기	3기
교육기간	2008년 5월~12월	2009년 1월~8월	2009년 7월~2010년 2월
졸업생 수	19명	24명	30명
자격증 취득	13명	13명	15명
관련 대학 진학	9명	3명	7명
취업	2명	1명	1명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과정을 마친 청소년에게 자립연계를 위한 자립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도 연계한다. 또한 조리와 관련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SK해피쿠킹스쿨은 다른 기업의 여타 사회공헌활동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한편 행복나눔재단은 SK해피쿠킹스쿨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졸업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레스토랑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SK해피카스쿨

행복나눔재단은 SK해피뮤직스쿨, SK해피뮤지컬스쿨, SK해피쿠킹스쿨에 이어 2009년에 SK해피카스쿨을 새로 운영하고 있다. SK해피카스쿨은 자동차정비에 관심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초소양교육, 체계적인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자립소양교육, 자립지원의 4단계 통합적 교육을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2009년 10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입학식을 시작으로 SK해피카스쿨 1기생들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SK해피카스쿨 1기생들은 2010년 9월까지 12개월간 주 5회, 방과 후 4시간씩 행복나눔재단, 한국폴리텍 I 대학 서울 정수캠퍼스, 자동차정비소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들은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외에 인문·경제교육·IT 교육 등 기초소양교육을 받으며, SK스피드메이트 및 자동차 1, 2급 정비소에서 현장실습을 할 계획이다. 행복나눔재단은 SK해피카스쿨 1기생들에게 교육비용은 물론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검정수수료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료 시 취업을 연계하고, 관련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SK텔레콤은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진정한 리더가 Sunny를 통해 양성되고 있다.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성장한 Sunny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한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자아를 찾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Sunny는 쉽고 즐겁게 자원봉사를 하며 자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I Scream', '해피바이러스' 등을 통해서서는 재능나눔을, '하이터치', '행복한 모바일 세상', '주니어 프로보노' 등을 통해서서는 지식나눔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역자원봉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NGO 등과 연계된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일조해 왔다. 2003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8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Sunny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5년부터는 베트남·중국·몽골 등 해외에서도 'Global Sunny'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현지 대학생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SK텔레콤이 운영해 온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2007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Sunny 내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즐겁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Sunny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남을 돌볼 줄도 아는 사람, 남을 돕는 가운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미래의 리더를 지향한다. Sunny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리더를 양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행복나눔재단은 Sunny의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리더십 교육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희성 교수

SK해피뮤직스쿨, 이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되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재단 '엘 시스템아'나 미국 줄리아드 음대의 클래식음악교육 프로그램 'MAP(Music Advancement Program)'을 떠올릴 때마다 늘 아쉬웠던 주희성 교수. 그의 오랜 바람이 부른 필연이었을까. 2007년의 어느 날, 주희성 교수는 SK해피뮤직스쿨과 만났다.

“백주영 교수님이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첼리스트 송영훈 씨를 비롯한 몇몇 분들과 SK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음악수업을 할 생각인데 동참하겠느냐고. 두말 않고 하겠다고 대답했죠. 이전부터 꿈꾸던 일이었으니까요.”

절박함으로 음악을 부여잡은 아이들이 준 감동

그렇게 시작된 SK해피뮤직스쿨과의 인연이 벌써 3년이 흘렀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음악을 포기하려던 아이들과의 소중한 만남.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일찌감치 만나서 나누고 싶었으나 통로가 없어 해매던 시절의 보상처럼 느껴졌으므로. 주희성 교수에게 SK해피뮤직스쿨은 이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वाद 같았다.

첫 만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아이들의 오디션 장에서였다. 주희성 교수는 아직도 그날의 설렘을 기억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저마다의 절박함으로 음악을 부여잡은 아이들의 진지함에 감동했다. 음악을 전공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의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예뻐다.

“실력 있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외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을 다리 삼아 사랑을 나누는 거죠. SK해피뮤직스쿨 첫 오디션에서 수준이 천차만별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기쁘고 설렌 건 그 때문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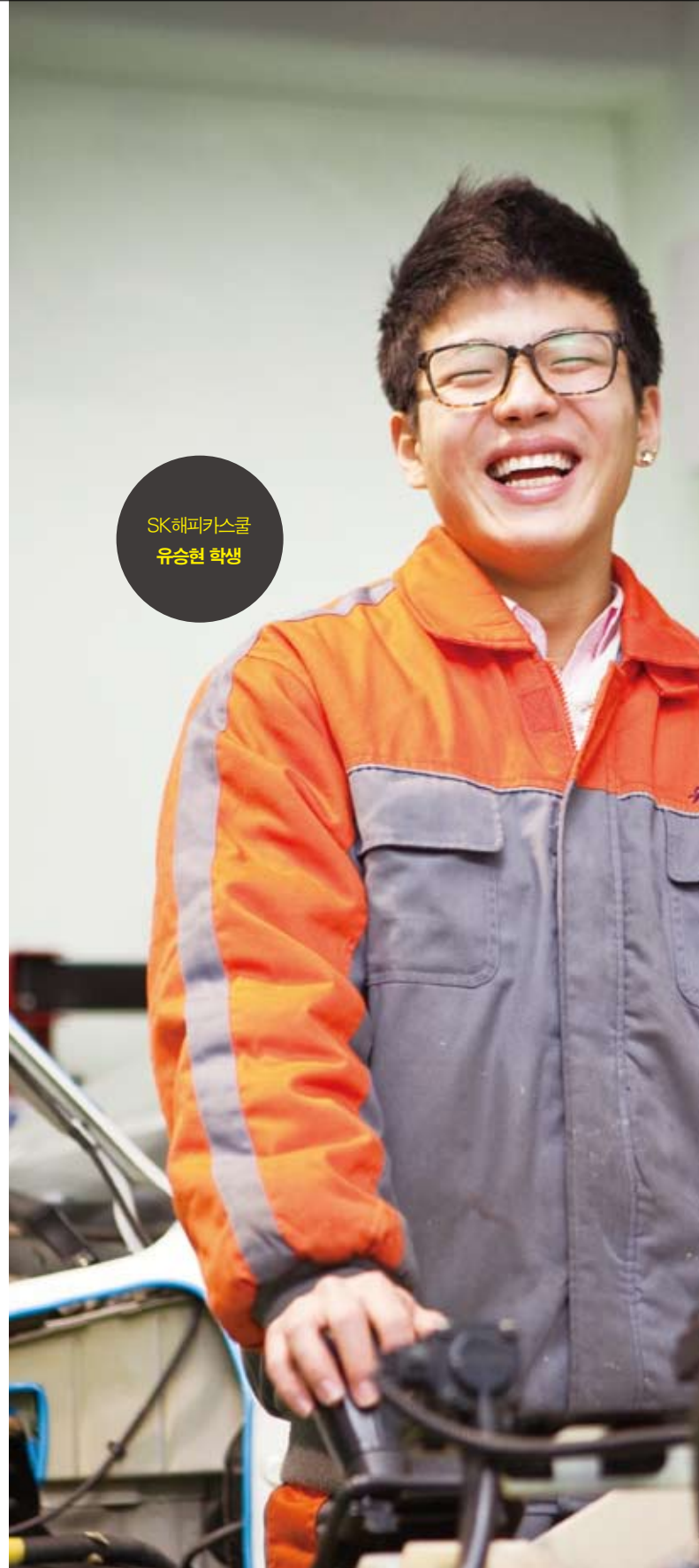
실력 향상을 위한 꼼꼼한 학사플랜은 물론이요, 멘토링을 통한 인성적 자양분까지 전수하겠다는 굳건한 SK해피뮤직스쿨의 교육 철학. 그 토대 위에서 서류심사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첫째 수강생은 40명이었다. 그들은 전문강사로부터 개인레슨과 앙상블, 그룹레슨뿐 아니라 방학기간에는 국내외 유명 음악가로부터 1대1 맞춤형 강의까지 받았다. 그로서도 최선이였다. 하지만 주희성 교수는 늘 조금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고심했다. 최선을 넘어 최선을 바라는 까닭이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꼭 맞는 옷을 입히고 싶은 바람에서였다. 그래서 2년 만기로 시작했던 단기 프로그램이 영재 지속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했을 때 다른 누구보다도 반가워했다.

SK해피뮤직스쿨이라는 안전지대, 그리고 따뜻한 멘토

“SK해피뮤직스쿨에서 공부한 오수민(가명)이라는 학생이 이번에 서울예고에 합격했어요.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들도 입학하기 어려운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수민이를 보며 SK에서 굉장히 큰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것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주희성 교수가 바라보는 아이들의 변화는 실력뿐만이 아니었다. 주눅 들었던 표정은 자신감으로 채색되었고, 사회성이 부족해 부자연스러웠던 행동은 안정을 찾았다. 어디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두렵기만 한 세상으로 걸어나왔다. SK해피뮤직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변화였고, 주희성 교수라는 따뜻한 멘토가 길을 지켰기에 꿈꿀 수 있는 성장이었다.

SK해피카스쿨
유승현 학생



SK해피카스쿨은 제 꿈의 동반자예요

유승현 군은 책상 앞에 앉아 막연히 꿈을 그리는 대신, SK해피카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를 좋아했던 그의 꿈은 '인정받는' 자동차 정비사.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유승현 군은 어린 시절부터 꿈이 많았다. 파일럿, 카메라 감독, 사이클 선수... 그 많던 꿈들이 이제 자동차 정비사 하나로 수렴돼, 웅골지게 여물어 가는 중이다.

“제 이름 석 자를 대면 자동차 업계에서 다들 꼬빠를 꼬덕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동차 정비사가 되고픈 SK해피카스쿨 1기생

유승현 군은 SK해피카스쿨 1기생이다. 학교 담임선생님의 귀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만 해도 기회가 찾아올지 의문이었다. 경쟁률이 다소 치열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열망이 컸던 덕분인지, 2009년 10월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35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 자동차를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다들 열성이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어 좋아요. 무엇보다 이론을 배운 뒤 곧바로 실습에 들어가니까 배운 것을 금세 익힐 수 있어요.”

유승현 군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SK해피카스쿨에서는 기관, 전기, 실시, 도장 4개 과목을 배운다. 그중 승현 군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과목은 자동차 도장이다. 차량을 도색했을 때 자신이 될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좋단다.

승현 군은 뭔가 고장 난 걸 보면 고쳐 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그래서 부품을 분해해 조립하고 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고. 영어 단어로 된 자동차 부품 이름이나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게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이론이 부실하면 응용력이 부족해요. 실습 시간에 배운 것만 할 줄 알게 되죠.”

“손에 잔뜩 묻은 기름을 보면 뿌듯해요”

오후 5시 하교, 이태원으로 이동, 한국폴리텍I 대학에서 10시까지 해피카스쿨 수업, 집으로 귀가. 승현 군의 하루 일과는 뻑뻑하다.

“공부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다만 5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그게 좀 아쉬워요.”

유승현 군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실습시간에 손에 장갑을 끼지 않는다.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으로 느끼는 감각이 다르고, 일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또 손에 잔뜩 묻은 기름을 보면 노력의 흔적인 것 같아 뿌듯해진다.

“기름 묻은 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무척 대견해하세요.”

SK해피카스쿨이 없었더라면 조금 더디 갔을지도 모르는 그의 꿈이 저만큼 앞으로 내달리고 있다.

SK재단

SK미소금융재단

저소득층·저신용층을 위한
행복대출기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SK는 SK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란 뜻을 담고 있는 '미소(美少)금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한편 여타의 지원활동을 통해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K가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SK는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핵심사업인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3일 미소금융사업 공동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의 재원은 총 2조 원 이상으로, SK는 MOU 체결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미소금융중앙재단에 2,0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주식회사, SK에너지,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가스 등 5개 관계사가 재원을 분담하여 12월 8일 2009년도분 200억 원을 출연했다.

한편 SK는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을 SK미소금융재단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SK텔레콤 남영찬 부문장과 SK주식회사 한정규 CR실장, SK에너지 강선희 윤리경영본부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교수 등을 이사로 선임했다. 감사는 삼일회계법인 서동규 전무가 맡았다. 그리고 12월 23일, SK미소금융재단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극동빌딩 SK미소금융재단 본점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SK미소금융재단은 기획총괄팀·심사평가팀·영업점 3개 부서를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SK의 에너지화학·정보통신사업 등 기업 활동과 제주유나이티드FC 프로축구단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주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서귀포지점 개설을 비롯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울산 등에 3개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1차 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창업·운영자금 등 대출

2009년 12월 24일 업무 개시 후 영업일 12일 동안 SK미소금융재단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방문 403건, 전화상담 1,255건으로, 이는 SK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대출심사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1차 심사를 거친 후 다시 전문위원을 통해 세부적으로 평가받는 본심사 단계를 거친다. 본심사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 가능성과 대출자의 사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전문위원에 의해 승인된 대출건은 사무국 심사 및 융자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 비로소 대출이 가능하다. SK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 종류로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자금 보증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등이 있다.



| 대출 종류 |

구분	내용	최대한도	상환방법	컨설팅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희망자와 프랜차이즈 업체 연계·지원	5,000만 원 (단, 자기자본 100% 이내)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소상공인 진흥원
창업자금 보증금	본인 아이템 창업희망자 / 기존사업장 임차보증금 증액 지원			
운영자금	2년 이상 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1,000만 원	6개월 거치 5년 분할 상환	소상공인 진흥원
시설개선자금	2년 이상 영업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무등록사업자의 생계형 차량 구입 및 물품 등의 구입자금	500만 원	6개월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자금은 물론 재능까지 지원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SK미소금융재단은 특히 자금뿐 아니라 경영컨설팅까지 지원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자립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은 변호사·회계사 등 SK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문자원봉사단 'SK프로보노'가 지원할 예정이다.

SK미소금융재단의 신현철 이사장은 "SK미소금융재단의 지원금이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행복의 씨앗이 되어 더 큰 나무로 자랐으면 좋겠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미소금융재단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소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SK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K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www.skmiso.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미소금융이란?

미소금융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친서민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Micro Credit) 사업이다. 2009년 9월 17일 열린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됐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곤란한 금융취약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자활 지원 사업의 일종인 미소금융은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일차적 목적으로 삼는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영세사업자·저소득층 등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거나 기존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500~5,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4.5% 이하로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출원리금은 6개월~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는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창

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8년 4월 재단 설립 등기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미소금융 지역법인 제1호점(경기도 수원)이 문을 열었으며, 2010년까지 지역별 재단과 지점을 통해 시군 단위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SK를 비롯해 여러 기업과 금융권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후원하고 있다.

제2부 특집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다는 일, SK가 시작합니다

양상한 가지를 잘라 내고 시든 잎을 떼어 낸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가지는 웃자라고 잎은 누렇게 변하겠지요.

금전적 지원이나 물자 지원 같은 단순한 지원보다는
스스로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SK는 지금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견실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좋은 뜻과 참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K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 역량과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통계로 본 SK의 일자리 창출·사회적기업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609개의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SK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2005년 5월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설계하고, '장애인 무료 IT교육',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1318해피존' 등 5개 사업을 전개했다. SK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축적된 경험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아가야',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에코원', '고마운손', '카페티모르', '실버극장', 'Seoul Resource 센터' 등 8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SK의 일자리 창출

SK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5,60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SK의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대기업이 나아가야 할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통한
총 일자리 창출 수

(실고용인 기준 2009년 말 누적)

5,609^명

일자리 창출 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수

SK는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1318해피존' 등 5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4,83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9년 말 현재 / 단위: 명)

장애인무료 IT교육원	186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2,731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81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1,680
1318해피존	156

총 4,834^명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수

SK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아가야',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에코원', '고마운손', '카페티모르', '실버극장', 'Seoul Resource센터' 등 8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77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9년 말 현재 / 단위: 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502
아가야	131
메자니아이팩	40
메자니에코원	17
고마운손	54
카페티모르	7
실버극장	4
Seoul Resource센터	20

총 775^명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수

SK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창출한 775명의 일자리 중 취약계층은 총 629명(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421명, 아가야 131명, 메자니아이팩 27명, 메자니에코원 14명, 고마운손 33명, 카페티모르 3명)으로, 이는 81.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09년 말 현재 / 단위: 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421
아가야	131
메자니아이팩	27
메자니에코원	14
고마운손	33
카페티모르	3

총 629^명

사회적기업으로 창출한 일자리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



직무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수

SK는 2009년까지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장애통합교육보조원 파견 사업',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등 3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1,70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SK가 펼친 이러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은 고용 효과 및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성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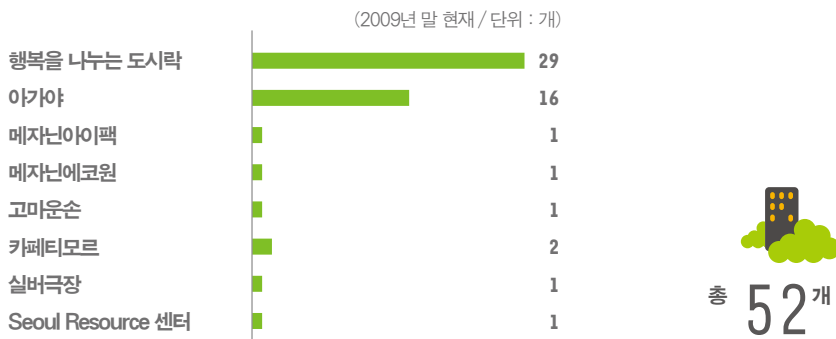


총 1,704명

SK의 사회적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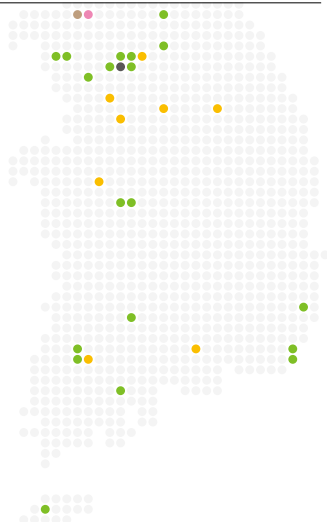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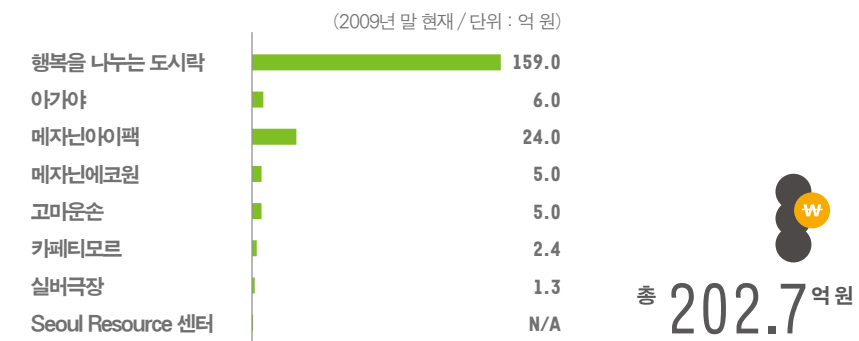
설립·지원한 사회적기업 수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해 온 SK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아가야', '메자니아이팩', '실버극장', '메자니아코원' 등 **SK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한 사회적기업은 모두 52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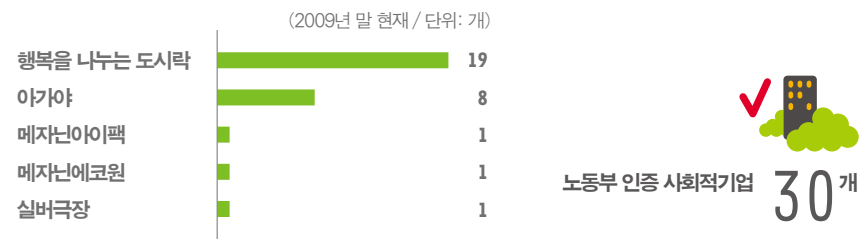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2009년 매출액

SK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SK의 역량과 연계한 경영컨설팅 및 경영교육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따라 SK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이 확대되어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으며 **2009년 Seoul Resource 센터를 제외한 7개 사회적기업에서 총 202.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수

SK가 지원하고 있는 **52개 사회적기업 중 30개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2007년 7월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인건비를 비롯해 다양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분포도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SK의 사회적기업은 **서울권 6곳, 인천·경기권 10곳, 경상권 4곳, 충청권 3곳, 전라권 5곳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 단위: 개)

- **행복을나누는도시락 19**
서울 중구점, 인천 남구점, 경기 포천점, 전남 순천점, 경기 부천점, 서울 노원점, 부산 해운대점, 경기 남양주점, 대전 동구점, 광주 북구점, 대전 대덕점, 서울 관악점, 광주 서구점, 울산 동구점, 인천 동구점, 제주점, 부산 서구점, 전북 진안점, 서울 송파점
- **아가야 8**
YMCA서울아가야, 군포YMCA아가야, 이천YMCA아가야, 수원YMCA아가야, 원주YMCA아가야, 아산YMCA아가야, 광주YMCA아가야, 진주YMCA아가야
- **메자니아이팩 1** 경기도 파주
- **메자니아코원 1** 경기도 파주
- **실버극장 1** 서울 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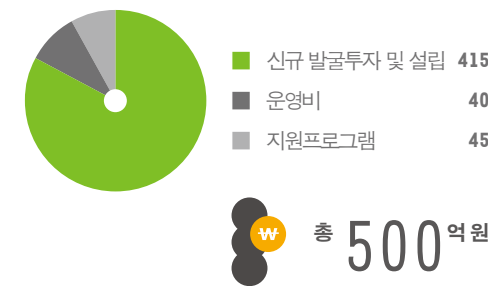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SK는 **2011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이 금액은 SK의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및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사업단 운영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조성 (단위 : 억 원)



● 사회적기업 기금 사용 계획 (단위 : 억 원)





| 인터뷰 |

사회적기업사업단 단장 신현철 부회장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하여...

근래 들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에 존재 목적이 있는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사회적 가치 생산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조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사회적기업사업단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을 만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다.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대안,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30여 년 전부터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계화시켰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경기침체 여파로 복지 축소 정책을 단행하면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졌다. 유럽 국가들도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겹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서구 사회에 비한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연설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언급할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뜨겁기만 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신현철 부회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막연한 개념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그 정의와 체계가 비로소 정리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정의돼 있다. 또한 전체 일자리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사회적기업의 의미는 몇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현재 취업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청년이나 일반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하물며 사회 취약계층은 어떻겠습니까? 취업에 성공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절대 빈곤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직장이나 조직에 적응하게 하려면 사회안전망 차원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간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다루지 못했던 분야를 찾아 제3섹터로서 새로운 방법과 가치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 부회장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자신이 가진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소중한 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회색지대(Grey Area)에 속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심층적으로 도울 수 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양립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만 한다면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모델

그런데 신현철 부회장은 ‘지속가능성’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영업이익도 내면서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양수점장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기업이 자체 생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빵을 사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빵을 만들게 하고, 또 그 빵을 내다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업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세우는 사람은 대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세운 무하마드 유누스도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유누스 교수도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경험과 지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사회적 강자가 분담하거나 대신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SK에서도 전문자원봉사단인 SK프로보노가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듯이 누군가 나서서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은 일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칠 뿐 지속가능한 토대를 갖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현철 부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든 사회적기업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창출하게 된다면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것이니 말이다.

SK 사회공헌활동의 전통과 맥을 이어

SK는 200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일찌감치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09년 8월에는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들에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웹사이트 ‘세상’을 론칭하고, 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전담조직인 사회적기업사업단을 꾸렸다. 사회적기업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신현철 부회장은 SK의 참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기업문화는 ‘선유적(先有的)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아시다시피 SK의 사회공헌활동은 최종현 선대 회장님께서 ‘나무가 잘 자라 숲을 이루게 되듯 인재를 훌륭하게 키워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벌이던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장학퀴즈지요. 최태원 회장님도 SK의 사명을 이익 극대화가 아닌 행복 극대화에 두고 계십니다. 사회적기업은 SK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덤벼든 사업이 아닙니다. SK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은 그간 저희가 벌여 온 사회공헌활동의 전통과 맥을 이어 나가는 일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SK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노하우 및 스킬을 전수하여 사회적기업이 차별화된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SK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뿐 아니라,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SK가 특별히 집중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의 분야나 업종은 무엇일까.

“사회적기업사업단의 첫 사업으로 방과후학교인 ‘행복한학교’를 2010년 1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 여성단체와 함께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요. 저는 행복한 학교가 향후 SK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교육·장학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또한 사회적기업 포털사이트인 ‘세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요즘 신현철 부회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늘 심중(心中)에 품고 다녔다 해서 유명한 서산대사의 한시 ‘야설(夜雪)’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의 새 길을 내고 있는 사회적기업사업단 단장으로서 지금 내딛는 한 발 한 발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회적기업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시를 인용한 것도 그런 연유이다.

踏雪夜中去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不須胡亂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라
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遂作後人程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대기업 최초로 SK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기업사업단 단장 신현철 부회장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기업으로

단순 지원이 아닌 사회문제의 근원적 해결

SK는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2005년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2009년 대기업 최초로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SK, 그 뒷받침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와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SK의 여정을 들여다본다.

사회적기업 지원의 토대, 일자리 창출 사업

SK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1318해피존 등 일자리 창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총 4,83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SK 일자리 창출 사업 | (2009년 말 현재)

프로그램	주관사	시행연도	일자리 창출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 C&C	2004	186 ¹⁾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SK텔레콤	2005	2,731 ²⁾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SK네트웍스 · SK에너지	2005	81 ¹⁾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SK에너지	2005	1,680 ²⁾
1318해피존	SK텔레콤	2006	156 ³⁾
합			4,834

1) 교육생 중 2008년 말 누적 취업자 수 2) 2008년 말 지원 종료 3) 2009년 말 현재 고용인 수

*주)일자리 창출 수치는 실고용인 기준의 누적 수치임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SK가 벌여 온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시발점은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이다. 2004년 6월 성남시 장애인정보화협회 내 1차 교육원을 개소했던 SK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따라 2005년 6월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내 2차 교육원을 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기반을 갖추 수 있었다.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 간 교류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으며, SK는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을 통해 2009년 말까지 총 1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현황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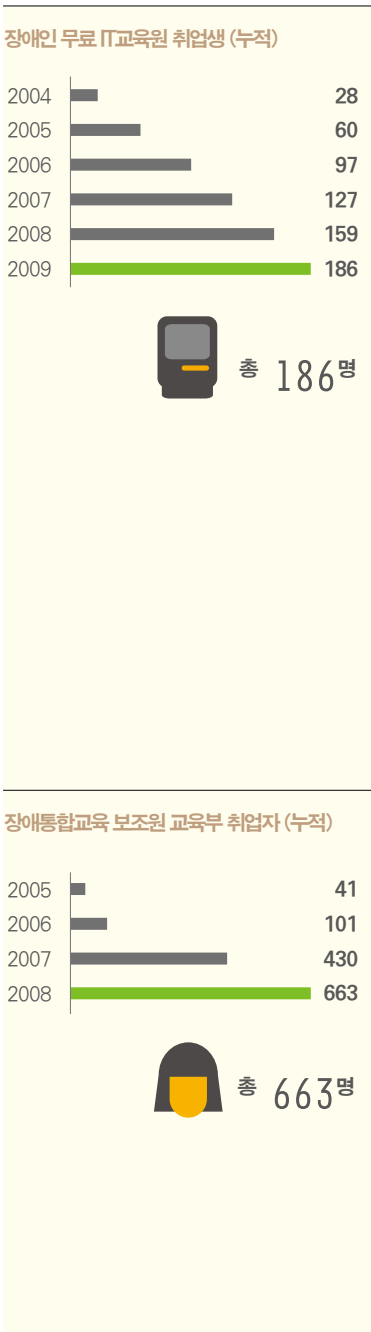
기간	교육원	교육생	취업생	취업(누적)
2004	성남	48	28	28
2005	성남	44	10	60
	일산	30	22	
2006	성남	39	3	97
	일산	53	34	
2007	성남	20	2	127
	일산	32	28	
2008	일산	36	32	159
2009	일산	33	27	186
합		335	186	186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SK는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의 뒤를 이어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을 실시했다.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보조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 진행과 함께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총 2,731명의 보조원을 파견했으며, 이 중 663명이 교육부에 취업해 일자리를 얻었다.

| 장애통합교육 보조원 파견 사업 현황 | (단위 : 명)

연도	파견 보조원	교육부 취업(누적)	보조원 교육
2005	437	41	-
2006	1,064	101	-
2007	1,230	430	269
2008	-	663	328
2009	-	-	414
합	2,731	663	1,011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18~25세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진행한 사업이다. 스피드메이트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자동차 정비 및 검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과 함께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으로, 2009년 7기 수료생을 끝으로 총 358명을 전문기술 인으로 양성하였으며 이 중 8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교육생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은 2009년 10월부터 행복나눔재단의 SK해피카스쿨 사업으로 연계되어 운영 중이다.

|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현황 | (단위 : 명)

기간	구분	입학	수료	스피드메이트 취업
2005	1기	34	26	11
	2기	58	49	12
2006~2007	3기	67	50	17
	4기	60	51	12
2008~2009	5기	100	86	12
	6기	90	71	16
	7기	64	40	1
합		473	358	81

저소득층 보육시설 지원 사업

SK는 (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행복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교사·체육교사·보건위생교사·아간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등 저소득 여성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시킨 후 파견했다. 2009년 말까지 전국 1,180개소에 모두 1,479명의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여성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 요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복한 일자리 사업’은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교사’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SK는 YMCA와 함께 2005년부터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기반을 확보하는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도 펼쳤다. 저소득가정의 영유아 24시간 보육사업인 ‘마음과 아이들’과 국내 최초의 시간제 보육사업 ‘아가야’로 나뉘는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말까지 20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아가야’ 전국 16개소 중 8개 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 행복한 일자리 및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현황 | (단위 : 명)

프로그램		협력기관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행복한 일자리		(사)부스르기 사랑나눔회	12	162	1,305	지원 종료		1,479 ¹⁾
영유아 보육	마음과 아이들	YMCA	5	70	70	지원 종료		70 ²⁾
	아가야	YMCA	-	160	131	131	지원 종료	131 ¹⁾

1)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의 누적 수치임
2) 2009년 말 현재 고용인 수

1318해피존

SK가 (사)부스르기사랑나눔회·보건복지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진행한 1318해피존 사업은 교육·문화·복지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20~50대의 복지전문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6년 서울 서대문 1호점을 오픈하며 시작한 1318해피존 사업은 2009년 말 현재 전국 34개 지역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2007년 이전에 구축된 27개 센터가 자립한 상태이다. 각 센터에는 최소 3명의 상근 인력과 전문영역별 강사를 두어 원활한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15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 및 전략

SK는 2009년 8월 사회적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가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데는 사회문제가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종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SK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사회적기업을 주목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자신감, 그리고 우리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철학 역시 SK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내 재투자가 가능한 기업을 가리킨다.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충족시키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기존의 자활 근로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SK가 제시한 사회적기업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민간기업 수준의 경영역량과 대중적 참여 기반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SK는 ‘작고 아름다운 기업’ 대신 ‘혁신적인 사회변화 지향 기업’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규모가 영세하다는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

SK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새로운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이 높은, 차별화된 혁신적 사회적기업이야말로 SK가 우리 사회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다.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역량 제고와 대중의 폭 넓은 참여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SK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먼저 마련했다. SK는 행복나눔재단 내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사업단을 구성했으며, 2011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1월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 웹사이트 ‘세상(www.se-sang.com)’을 오픈했다. 세상은 정부·연구기관·기업·NGO 등 다양한 민관기관들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 네트워크이다.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생각’, ‘Social Economy+Thinking (世想)’, ‘Social Enterprise & Social Entrepreneur’ 등의 뜻을 담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는 생각’과 ‘세상인(IN)’, 그리고 ‘세상 이야기’ 등 3가지 메뉴로 구성돼 있다.

개방과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세상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세상은 참여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아이টে를 제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안된 사회적기업 지원 아이টে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해당 전문가의 최종 심사를 거쳐 3개월마다 ‘챔피언 아이টে’가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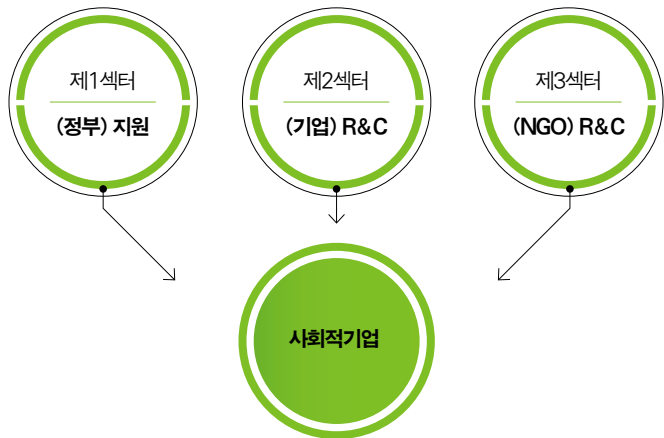


1년에 4회 선정되는 챔피언 아이템은 아이템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관련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창업자금 대출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도 함께 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웹사이트 세상은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소통의 장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아이템이 인큐베이팅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SK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업

운영비 지원 등의 단순한 투자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이유로 SK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R&C(Resource & Capability)를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K의 R&C에는 경영 노하우는 물론 마케팅·재무·회계 등 특화영역과 전문 자원봉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 SK R&C 결합 |



SK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국내 최초로 열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간 동안 1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2008년에는 외식 부문의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별도로 신설, 현재 행복나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25명, 2009년 25명 등 2009년 말까지 총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한 SK는 2009년 10월에서 11월까지 한 달 동안 청년실업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SK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 진행된 이 아카데미에는 147명이 참여해 SK로부터 경영수업을 받았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외에 SK는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심도 깊은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열린포럼’과 해외의 사회적기업을 탐

방하는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기업 열린포럼은 매해 참석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되며, 현재까지 총 12차례 개최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단기연수, 장기연수, 기획연수 등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9년 5월에 오픈한 온라인강좌는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등 총 55개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52개의 사회적기업에 제공돼 2009년 말까지 762명이 수강했다. 온라인강좌와 연계된 오프라인강좌는 경영분석 등 모두 5개의 강좌가 진행 중이며 2009년에 77명이 수강했다.

| SK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사업 현황 |

구분	프로그램	시작연도	내용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2006	• 국내 최초 전문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설립 지원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2007	•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 사회적기업 열린포럼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2009	• 청년실업자, 퇴직자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프로보노 자원봉사	2008	• 국내 기업 최초 발족 - 13개 관계사 700명 참여 • 경영일반, 개인전문영역 등
	온·오프라인 교육제공	2009	• 온라인교육 55개 과정(762명) • 오프라인 5개 과정(77명)

인터뷰 ● SK프로보노

전문자원봉사로 일상의 영역이 확대됐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요즘 김선 매니저가 자주 되뇌는 옛 선현의 말이다. SK 프로보노로 활동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감탄사이기도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오르그닷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전 그제 6하 원칙에 따른 정의쯤이었어요. 이제와 돌아보면 그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더불어 기부와 봉사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어요.”

2009년 여름, 물질적 기부나 물리적 봉사가 아닌 새로운 방법의 나눔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는 이름조차 생소한 프로보노를 만났다. 재능과 경험을 기부한다는 말에 ‘바로 이거야’ 무릎을 쳤다. 자신이 가진 노하우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던 차였다.

“이전에 참여했던 저소득층 아이들의 진로를 상담하는 것도 의미 있었어요. 다만 내 경력과 취향이 상대방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인생 선배로서밖에 조언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한다니까 솔깃했어요.”

첫 만남 전까지는 ‘회계나 재무 담당이 아닌데, IT 전공인 내가 오르그닷이랑 맞을까’ 의구심도 들었다.

그러나 막상 오르그닷을 만났을 때 그런 괜한 기우였다는 걸 알았다. 오르그닷 역시 경영이 필요한 기업체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판매 회사였다. 유통과 이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소수점에 부대이기에 더욱 체계화된 경영 노하우와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절실했다.

“오르그닷의 열정을 효율적으로 파악 내려면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사업구조, 재무현황, 마케팅 인프라 등의 재정비가 SK프로보노팀의 과제였죠. 진단을 마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함께 발로 뛰자’였죠. 내가 뭘 만큼 오르그닷에게 더 적합한 매뉴얼이 탄생되겠더라고요.”

이제 막 태동하는 기업이기에 문서만 던져 줄 수 없었다. 자원도 인력도 자금도 부족했기에 보고서 10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발로 뛰어 줄 누군가’였다. 그 누군가의 주인공이 바로 김선 매니저. 사업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영업력 강화, 효과적인 판매 자료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났다.

김선 매니저는 오르그닷의 일원으로 부산 해운대 판촉행사에도 참석했다. 낮에는 SK텔레콤, 밤에는 오르그닷에 다니는 기분으로 보낸 한 시절이었다.

지금 그는 오르그닷의 성장을 보며 전문자원봉사가 가진 가능성을 뿌듯하게 절감하고 있다.

SK텔레콤
김선 매니저

전문자원봉사단 SK프로보노

SK는 이렇게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보노 자원봉사자와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1월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원봉사를 사범적으로 운영해 온 SK는 기존 ‘사회적기업 컨설팅 봉사단’을 더욱 발전시켜 2009년 9월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SK프로보노 자원봉사단을 발족했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문구의 약어이다.

‘SK프로보노’란 일반적인 자원봉사단과 달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 SK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단체를 지원하는 전문봉사단이다. SK 14개 주요 관계사 임직원 중 각 업무영역 별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MBA 출신과 전문 분야 경력자 등

| SK프로보노 참여 현황 |

구분	내용	참여인원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전문자원봉사	• 14개 주요 관계사, 17개 분야 • 44개 사회적기업 참여 • 컨설팅, 교육 및 상담의 날 등 운영	232명
교육전문자원봉사	• 임원 비전 특강 • JA 경제교실, 에너지교실 • 영어교육 등	475명

인터뷰 ● SK프로보노

마음만 있으면 ‘고마운 손’이 될 수 있다

IT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충현 사원에게 ‘수작업’이라는 단어는 낯설고 멀었다. 사람보다는 기계·전자에 익숙하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익숙한 그였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고마운손’과 인연을 맺은 후 일상이 바뀌었다.

“기부를 염두에 두었으나 맘뿐이었죠. 봉사라는 단어 역시 입에서만 맴돌았고요. 한데 그룹 차원에서 지식봉사를 한다기에 단번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행동할 수 있을 듯했어요.”

그의 전문 분야는 IT, 그중에서도 웹 개발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였을까. 처음 고마운손을 소개받았을 때는 조금 의아스러웠다. 수작업으로 패션잡화를 만드는 기업이라는데 자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 까닭이었다.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부천에 있는 고마운손을 찾았습니다. 그곳 이사님께서 사회적기업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희망을 담은 핸드백을 만들 십삼이니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탈주빈·장애인·고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고마운손은 이충현 사원이 이제껏 경험한 기업과는 달랐다. 그에게 익숙한 기업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소한의 고용을 선택하는 이윤 추구 집단이었다. 그런데 고마운손은 고용의 극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익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의 의지는 신선했고 또 따뜻했다.

이충현 사원은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솟았다. 진심으로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싶었다. 소핑몰을 겸한다고 하니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해야지 결심했다. 그래서 회사 업무에 쫓기면서도 틈틈이 홈페이지 제작 진행에 힘썼다. 잠을 줄이고 지인과의 약속도 뒤로 미뤘다. 외국으로 출장을 가셔도 새벽에는 홈페이지 관련 서류를 작성했으며, 휴가도 반납하고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미팅을 가졌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단가였다. 유수의 기업과는 달리 자금이 풍족하지 않은 사회적기업이기에 가격 대비 최상의 홈페이지를 뽑아 내는 게 중요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연결하는 것까지가 제 몫이었습니다.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얼마 전에 고마운손 이사님이 전화하셔서 소핑몰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더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생애 첫 기부요 봉사였던 SK프로보노 활동으로 그는 한동안 잊고 살던 아날로그적 행복을 되찾았다. 특별히 잘 나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한 게 지식봉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충현 사원. 그는 자신의 손이 타인을 향한 ‘고마운 손’이 되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고맙다.

SK건설
이충현 사원



인터뷰 ● SK프로보노

나눔 레시피로 완성된 행복, 맛보시겠어요?

2009년 9월 SK프로보노가 발족된 이후였다. 이종필 조리장을 비롯한 12명의 워커힐 조리장들은 경기도 여주 신흥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단의 밑반찬 서비스를 돕기 시작한 것은, 아직은 서툰 예비 사회적기업이지만,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든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생활지원단의 의지는 대단했다.

“50~60대 아주머니 열두 분으로 구성된 밑반찬 서비스 팀에게 요리는 비상구처럼 느껴졌어요. 삶을 재건하는 수단인 동시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또는 맞벌이가정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니까요. 요리를 출구 삼아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분들이니만큼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시피를 나누는 일은 차후의 문제였다. 그보다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이 급선무. 그는 신흥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조리시설부터 꼼꼼히 체크했다. 불과 기름과 물이 공중하고 칼 등의 위험한 도구로 가득 찬 곳이 조리장이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생관계가 상극으로 전락하고 만다. 때문에 동선을 고려한 재배치는 물론이요, 낙후한 기구 교환과 꼭 필요한 시설 설비가 시급했다.

“가스레인지 밑에 달려 있는 수도꼭지며 팬 없는 오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계자에게 염포를 놓았죠. 이런 사태라면 무엇도 도와줄 수 없다고. 시설이 완비되니까 사

707명의 SK프로보노가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세무상담, 판매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관련 이외에도 요리, 소믈리에, 사진촬영 등 특화된 전문 분야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전문 분야를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 교육전문자원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진화, 사회적기업

SK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을 2009년 말 현재 29개 급식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중 19개 급식센터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자립에 성공한 상태다. 역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였던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 ‘아기야’ 역시 전체 16개 센터 중 8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외에도 SK는 박스생산업체 ‘메자닌아이팩’, 친환경 블라인드 생산업체 ‘메자닌에코원’, 잡화류 생산업체 ‘고마운손’, 공정무역 커피전문점 ‘카페티모르’를 비롯하여 노인전용극장인 ‘실버극장’과 폐기전 자원순환센터 ‘Seoul Resource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했다. 이 중 메자닌아이팩·메자닌에코원·실버극장이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고마운손·카페티모르·Seoul Resource 센터는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SK는 이들 52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2009년 말까지 총 7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투자 개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온 SK는 그간 축적된 역량을 십분 활용해, 2010년부터는 ‘행복한학교’ 등 사회적기업의 직접적인 설립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업장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더군요.”

다음으로 신경 쓴 부분은 구성원들과의 신뢰 쌓기였다. 워커힐의 조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보여 주기 위해 그는 생활지원단을 워커힐로 초대했다. 그와 동시에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시행했다. 15년여를 요리와 함께한 워커힐 조리장들의 레시피 전수는 생활지원단들을 고무시켰다. 전업주부로서 30년 넘게 음식을 만든 아주머니들에게 조리장들의 퓨전 소스와 식재료 운영 노하우는 마법에 가까웠다. 그렇게 가정식 요리의 재료와 호텔식 레시피를 엮으니,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했다.

“6개월 동안 12명의 조리장들이 4가지 요리를 가르쳐드릴 거예요. 전 세계의 갖가지 음식 50여 가지 레시피를 습득하는 셈이지요. 특강과 시연,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열정이 깃든 음식으로 그들의 자립 토대를 마련하는 게 제1의 목표입니다.”

간간이 들려 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육 이후 생활지원단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단다. 달린 서비스에 레시피가 공급하다는 문의도 많다고. 이종필 조리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프로보노로서 이종필 조리장이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거기서 빚어지는 행복과 기쁨이었던 것이다.

워커힐 포시즌
이종필 조리장



SK가 설립·지원한 사회적기업

작고 아름다운 기업에서 혁신적 사회변화 기업으로

SK는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명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SK는 사회적기업의 직접 설립을 비롯하여 자금 조성,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확산시킴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SK가 설립·지원한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 되어 줄 것이다.

SK는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통해 2009년 말까지 52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77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SK는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영세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경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영 노하우 등 전문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SK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이 제고되어 52개 사회적기업 중 30곳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현재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19곳, 아가야 8곳을 비롯하여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에코원, 실버극장 등이 있다. 또한 고마운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공모에서 선정된 사회공헌기업이며, 카페티모르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Seoul Resource 센터는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하 행복도시락)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실업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중에서 조리원과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다. 행복도시락 사업은 노동부로부터 대표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2007 하버드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사회서비스 창출 성과보고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등 국내외에서 크게 인정받았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2006년 2월 서울 중구에 1호점을 개소한 이래 2009년 말까지 29개 지점이 문을 열었다. 현재 행복도시락 사업은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병원 등에서 유료급식 서비스를 위탁받고 있다. 또한 시장조사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선정하는 등 유료 수익사업 개발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익구조를 안정화시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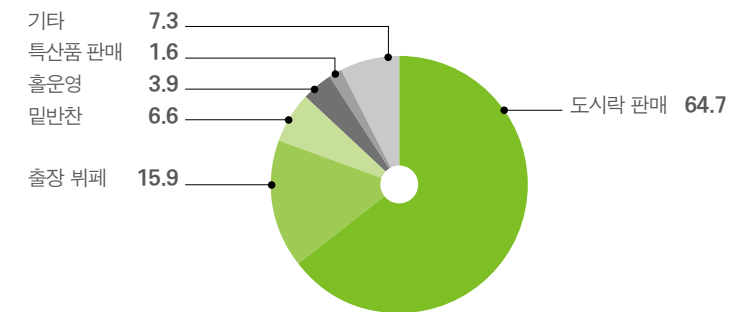
29개의 급식센터는 하루 평균 1만 3,500여 명의 결식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총 502명이 근무하고 있다. 29개 급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분포는 취약계층이 84%, 여성이 73%이다. 한편 29개 급식센터 중 19곳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재단은 행복도시락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의 사회적기업 자립화에 두고, 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직관리, 경영역량 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09년에 신규로 설립한 강원도 원주점과 충북 청주점은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센터로 특화하고 있다.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일자리 창출 현황 |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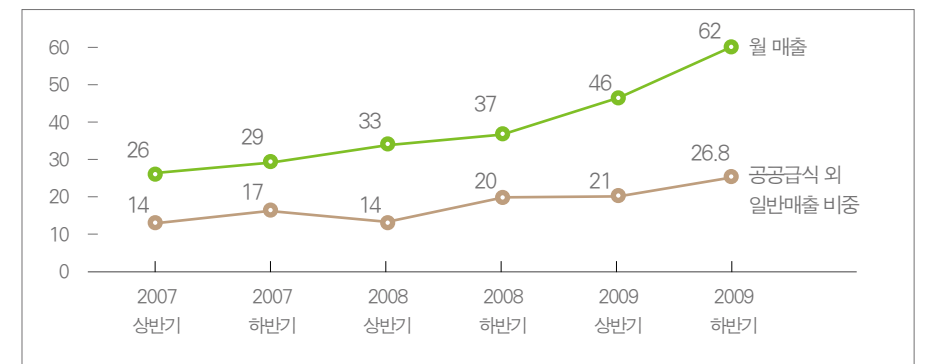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410	487	500	502(421)*

* 괄호 안은 취약계층 고용인 수

|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유료 수익사업 비중 | (단위 : %)



| 매출 추이 | (단위 : 백만 원, %)



아가야

SK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 기반을 확보하는 '아가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가야는 기업·NGO·정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존 시장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SK가 YMCA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가야는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2006년 4월 노동부의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아가야는 2007년 6월 전국 7개 지역에서 광역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아산아가야가 노동부로부터 최초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2009년 서울아가야를 비롯해 모두 8개 센터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아가야는 2008년 5억 원, 2009년 6억 원의 총 수익을 올렸으며, 13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가야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6억 원	131(131)*
* 괄호 안은 취약계층 고용인 수	

메자니아이팩

메자니아이팩은 SK에너지가 통일부·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2008년 5월 새터민과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됐으며, 박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메자니아'이란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이탈리아어이다.

2008년 11월 주식회사로 전환한 메자니아이팩은 2009년 5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메자니아이팩은 문을 연 지 10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2009년에는 2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메자니아이팩은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설비 구입 및 부지 확보를 위한 2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는 사업 지원을 늘려,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메자니아이팩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24억 원	40(27)*
* 괄호 안은 취약계층 고용인 수	

메자니아코원

SK에너지가 보건복지가족부·사회투자지원재단·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설립한 메자니아코원은 친환경 블라인드를 제작하는 기업이다. '에코원'은 생태란 뜻의 에콜로지(Ecology)와 하나(One)를 합친 말이다. 2008년 8월 사업단을 구성해 그해 12월 설립된 메자니아코원은 저소득층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자활을 돕는 한편 이윤 창출에 힘쓴 결과, 설립 후 3개월 만에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메자니아코원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판매처를 늘리는 한편 이른바 '착한 소비'에 관심이 있는 개인 소비자를 겨냥해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 계획이다. SK는 이를 위해 마케팅과 판로 개척 등 측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메자니아코원은 2009년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메자니아코원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5억 원	17(14)*
* 괄호 안은 취약계층 고용인 수	

고마운손

2009년 6월 SK가 보건복지가족부·열매나눔재단과 함께 설립을 지원한 고마운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공모에서 선정된 사회공헌기업 1호이다. SK는 핸드백과 지갑 등 잡화류를 생산하고 있는 고마운손 설립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열매나눔재단도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초기투자비용으로 출자했다. 또 (주)쌈지



는 기술이전을 지원했다. SK는 설립자금 이외에도 경영 참여 및 자문, 기업의 R&C(Resource&Capability)를 활용한 판매 지원 등을 담당하며 고마운손의 경영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고마운손은 향후 사업영역을 확장해, 제휴업체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 판매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고마운손은 2009년 말 현재 취약계층 33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마운손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5억 원	54(33)*
* 괄호 안은 취약계층 고용인 수	

카페티모르

카페티모르는 2004년 한국을 방문한 동티모르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동티모르 현지 커피생산농가의 공정무역 커피를 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꾀하는 사업이다. SK는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티모르의 3개 사업장 중 서울 남대문점과 이화여대점 2개 사업장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말 현재 SK가 지원한 2개 사업장에 취약계층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SK는 바리스타 교육 및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카페티모르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2억 4,000만 원	7(3)*
* 괄호 안은 취약계층 고용인 수	

실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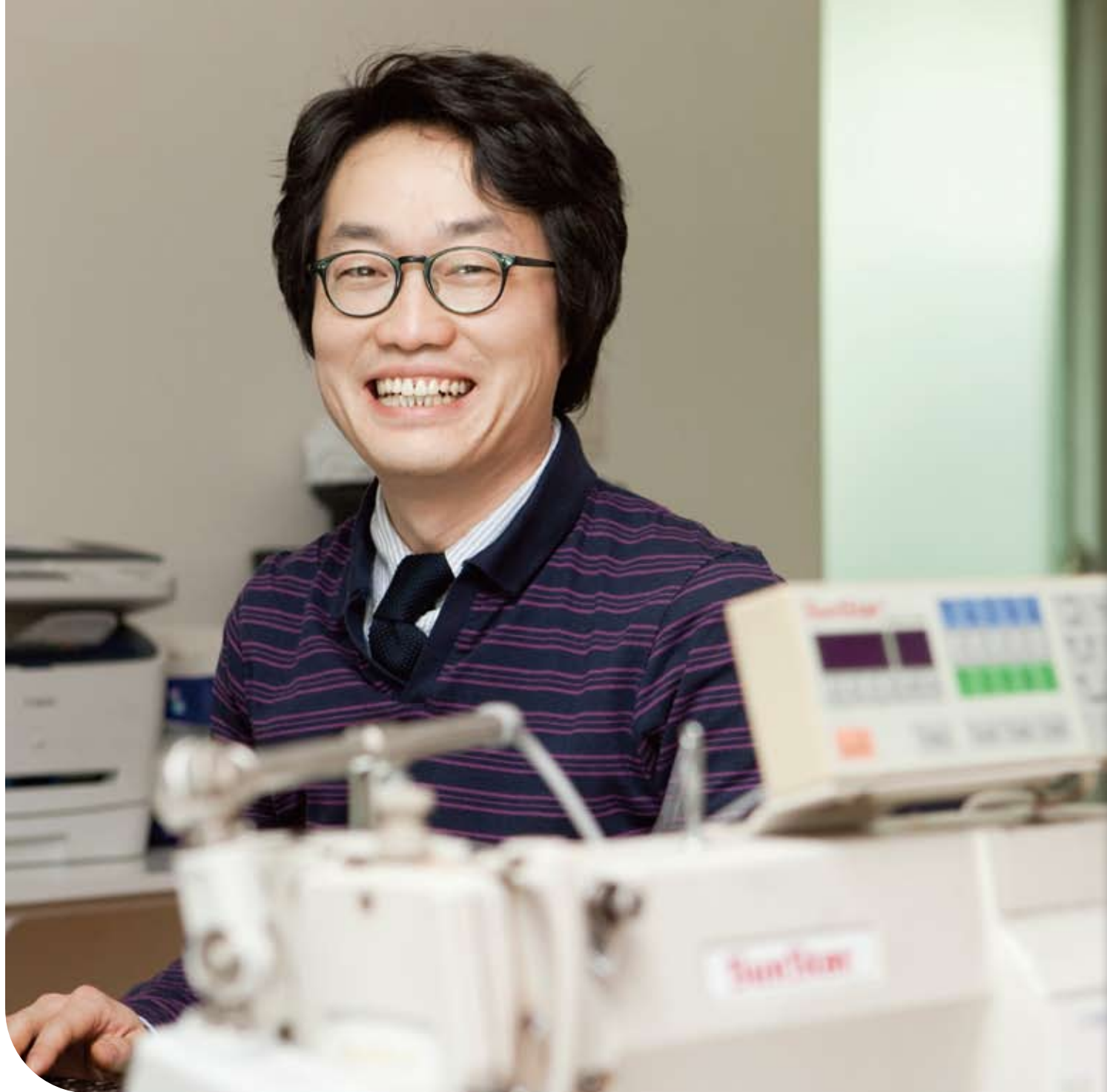
실버극장은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서울시·서울시의회·낙원상가 허리우드극장과 협력하여 SK케미칼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 허리우드극장 내 1개 상영관을 노인특화극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2009년 말 현재 실버도우미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실버 도우미 10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실버극장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1억 3,000만 원	4

Seoul Resource 센터

SK는 2009년 12월부터 폐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Seoul Resource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용대안기업연합·전자산업환경협회·SK가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에코시티 서울이 운영을 맡고 있는 Seoul Resource 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서울 성동구 성동자동차검사소 내 부지에 마련된 Seoul Resource 센터는 2009년 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40여 명의 인력이 추가로 고용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위해 SK가스는 설비운영비와 영업인력 등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Seoul Resource 센터 매출 및 고용 현황 (2009년 말 현재 / 단위 : 명)	
매출	고용
N/A	20



| 사회적기업 talk talk |

(주)오르그닷 김진화 대표

SK프로보노, 우리에게겐 구원투수였습니다

자연을 덜 훼손시키며 인간을 덜 착취하는 옷. 그것이 오르그닷이 표방하는 윤리적 패션이다. 그 선한 열정의 시발점에서 오르그닷은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돕는 SK프로보노를 만났다. 자칫 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할 뻔한 오르그닷의 열정은, SK프로보노의 컨설팅 덕분에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윤리적 패션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살 때 고려하는 기준은 사이즈, 색상, 가격 등이었다. (주)오르그닷의 김진화 대표는 거기에 윤리를 더했다. 선한 삶을 지향하면서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오르그닷의 지론. 전 세계 산업 중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먹거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의류 제품의 탄생과 유통이 착취에 기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결과였다.

사회적기업의 고민, 윤리와 이윤 사이

“오르그닷의 윤리란,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간과하는 노동과 환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착취한 봉제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충제와 화학물질로 범벅된 의류 원단을 지양하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안’으로 윤리를 거머쥔 오르그닷은 그러나 현실 앞에서 주춤거렸다. 경영이 걸림돌이었다.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반드시 지녀야 할 고객관리와 영업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한 축, 이윤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구원투수인 양 등장한 이들이 바로 SK프로보노였다.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 모두 영리기업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이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혼란스러웠어요. 기존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초기 기업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SK프로보노의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현실에 맞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SK프로보노의 진단은 객관적이고도 냉철했다. SK프로보노가 지적인 오르그닷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윤리적 콘셉트 슈·에코웨딩 등의 방대한 사업영역. 분산되었던 영역을 심플하게 정리한 후 핵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은 정확했다. 그리고 가뭄의 단비처럼 시원했다. 더불어 소비자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었다. SK프로보노의 행보는 진단에 그치지 않았다. 자잘한 영업지침부터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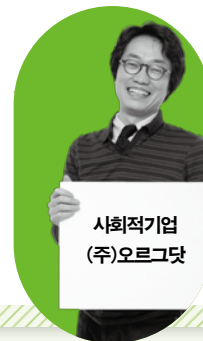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케팅 시스템까지 오르그닷에 맞게 변형시켜, 매뉴얼 북으로 만들어 냈다.

“SK프로보노와 함께 3개월간 회사를 전환시켰습니다. 친환경 의류 중심으로 현실적인 매출 기반을 다지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했죠. 결과요? 지난 10월부터 매출이 매월 100% 성장하고 있습니다.”

SK프로보노의 조언으로 경영 역전

SK프로보노와의 협업은 기대 이상이였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 말과 서류뿐인 날들이었다면 절대 체화할 수 없는 영업 노하우, 소프트 파워였을 것이다. 하지만 SK프로보노와 오르그닷은 달랐다. 열정과 신뢰로 무장한 채 최선을 다해 내달렸다. 위기를 기회로 재구성하겠다는 모두의 적극적인 태도가 일기 낸 쾌거였다. 오르그닷의 김진화 대표는 이 경험을 뒷심 삼아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다.

“일회성을 띤 일방적인 기부가 아니라 순환하고 상생하는 프로보노는 오르그닷에게는 행복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우리의 윤리와 닮아 있다고나 할까요. SK프로보노와 함께 다진 역량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주)오르그닷은 ‘윤리적 패션’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오르그닷은 스스로를 ‘체인지 메이커’라고 부른다. 오르그닷은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을 지향하며, 윤리적인 가치에 아름다움과 효용성을 더하는 디자인을 우선시한다. 2009년 3월에 설립됐으며 ‘친환경 공정무역 콘셉트 슈’을 표방하고 있다.



양용희 교수는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에 커뮤니티 파운데이션(Community Foundation)을 만드는 게 꿈이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은 기업이나 개인이 설립한 재단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만든 재단을 가리킨다. 지역 커뮤니티가 만든 재단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상, 사회적기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 담당해야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을 그가 만들려는 이유는 뭘까.

“큰 규모의 재단과 복지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다 서울에 몰려 있죠? 우리 사회에 지역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사회공헌활동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편차가 심합니다. 커뮤니티 파운데이션이 활성화 되면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죠.”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찌 보면 웹사이트 ‘세상(www.se-sang.com)’에 대한 양용희 교수의 바람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싶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2009년 11월 SK는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 웹사이트인 ‘세상’을 오픈했다. 그는 세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노동부나 NGO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웹사이트가 이미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다른 목적의 사이트를 만들어야겠죠? 대기업이 기존 사이트와 같은 사이트를 돈을 들여 더 잘 만들어 버리면, 기존

사이트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건 볼 보듯 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이 기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각자 제 역할에 충실해야 공존이 가능한 법이죠.”

2009년 말 현재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세상에 가입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1,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템만 해도 352건이나 등록됐다. 양용희 교수는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반긴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더 많은 일을 해내기를 원했다.

“세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와 육성을 넘어, 사회적기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컨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의 비전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일반인들 특히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들에게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해볼 만한 일’이라는 꿈과 포부를 심어 줘야 하는 거죠.”

‘세상’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기를

양용희 교수의 말이 옳았다. 꼭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모범답안은 아니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데서 자신의 미래를 찾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며, 젊은이들이 사회 가치와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이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들이 사회적기업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더라, 거기에 가서 도움을 드리자’ 이런 생각을 이끌어 내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건, 결국 그 누구도 ‘행복한 삶’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 아니던가. 그래서 양용희 교수는 세상이 좀 더 진화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왕이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확장된 시선을 가졌으면 한다.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행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SK는 사회적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1월 사회적기업 지원 전문 웹사이트 ‘세상’을 오픈했다. 사회적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기관·NGO·기업 등 각계의 전문 역량을 한데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다. SK는 참신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대상으로 1년에 4회 ‘챔피언 아이템’을 선정하기로 하고, 아이템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 talk talk |

엔씨스콧 양용희 대표

‘세상’이여, 사회적기업의 날개가 돼라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사회공헌 비영리 컨설팅회사인 엔씨스콧 양용희 대표는 최근 부쩍 비쁜 날날들을 보내고 있다.

기업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사회공헌 전략이 그의 주된 관심사. 영리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웹사이트 ‘세상’도 그래서 그의 축수와 닿아 있다. 양용희 교수가 생각하는 ‘세상’ 이야기를 들어 왔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제

사회적기업이 성공해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한다

글 정선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

사회적기업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경영이 요구되는
엄연한 기업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은 빵을 굽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꾼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적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Double) 또는 트리플 바텀 라인(Tipple Bottom Line)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사회적 책임투자, 사회적기업이 이에 속하는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가치를 추구하는 ‘혼합가치(Blended Value)’ 기업이라고 한다.

이들의 빠른 성장은 산업화를 통해 이룩한 물질적 풍요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소득격차·빈곤·실업 등과 같은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신은 “우리는 빵을 굽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 한 제빵제과 사회적기업 대표의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첩첩의 어려움

사회적기업들에게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재무적 가치)’은 자신의 사회적 목적성을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만약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못한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제약조건이라면, 미션 지향적인 사회적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생존이 제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가에게는 미션과 돈의 균형지점을 찾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사명(Mission)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업으로서 생존하고 성장(Sustainability)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종종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을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자 보잉사의 부품하청사인 파이오니어 인더스트리즈(Pioneer Industries)의 한 관리자는 ‘상업적 수익성’과 ‘사회적 미션 수행’ 사이의 역동적 긴장(Dynamic tens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들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사회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높은 비용·낮은 효율성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취약계층에게도 무료 또는 저렴한 값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그 미션 지향성으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높은 사회적 비용(Social Cost) 때문에 재무적 지속가능성 면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

적으로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들 중에는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열정과 의지는 높지만 경영지식이나 기술·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전문인력을 고용하기에는 자원도 부족하다. 자본 조달에 필요한 은행의 문턱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기만 하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혼자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여정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기업으로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와 좀 더 폭넓게 협력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사회적기업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은 이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견인해 내고 부족한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시장과 고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절감하고 자본에의 접근성도 한층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사회적기업들은 걸음마 단계로서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취약한 상태여서 향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이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가야 할 길

첫째, 사회적기업에 우호적인 국민의 인식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의 부재 또는 오해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인력모집, 판로개척, 재정접근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정부·소비자·전문가·기업·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본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재정적 지원의 형태도 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 방식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많은 부분 인건비 지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민간의 사회적 투자기반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자본조달의 어려움은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을 위축시키고 성장전략을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에 맞는 투자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방식 개발과 함께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 정보와 지원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영지원이다. 시장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경영역량 부족은 경쟁력과 시장 접근 범위를 좁힌다. 사회적기업들이 다양한 경영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경영지원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연계할 수도 있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진 경영전문가들이 자원봉사조직이나 전문가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할 수도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재무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비용의 100%를 사업수익을 통해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보조금과 기부금,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 공공계약, 일반 시장수익 등을 통해 수입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수익 다각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와의 공공계약을 통한 시장 확대와 일반기업과의 공급계약과 같은 사업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책도 매우 필요할 것이다.

해외의 성공한 사회적기업가들은 한결같이 ‘사회적기업은 사회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혁신적 기업이 정신, 전략적 사고, 효율성, 고객지향, 목표성과관리, 효율적 조직관리 등의 경영원리의 적용과 시장이 요구하는 자원이 필요한 엄연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을 사회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으로 바라보고 장기적 투자를 통해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가치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역할

기업의 투자가 자립형 산비둘기를 키운다

글 조영복(사회적기업연구원장,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회적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의 화두다. 노동부가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각 기업들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발전하는 데 대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전 세계로, 전 분야로 확산되는 사회적기업

미국 보잉사가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고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실천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파이오니어 인더스트리즈(Pioneer Industries)는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한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1963년 설립된 이 사회적기업은 지난 45년간의 성공적인 성장으로 오늘날 시설장비, 건축, 제품조립 및 포장, 식품도매, 외식산업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한 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립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빠르게 퍼져 가고 있다.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을 설립한 클라우스 슈바프는 주류사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Summit를 만들었으며, 빈곤 퇴치를 위한 무담보소액대출로 경제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예비양으로 유명한 프랑스 다농과 함께 사회적기업인 ‘그라민 다농’을 설립, 어린이 건강식품을 생산하여 저소득층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인 빌 드레이튼이 설립한 아쇼카재단은 가난과 문맹, 질병과 차별 등 사회문제를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를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 그들의 희망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발전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에게 윤리적 시장을 권장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릇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행위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사회적·윤리적 의식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GNP의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위한 파트너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와 기업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유급 근로자는 이미 1만 명을 넘었으며, 그중 50%가 넘는 근로자들이 취업 취약계층에 속한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70%는 취약계층을 향하고 있으며, 그 매출도 1인

당 16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돈이 되지 않아 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영역과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적 창조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일회성 소비로 끝난 기부중심의 사회공헌과는 달리 질적으로 다른 장기적 투자와 사회적 성과의 산출이라는 선순환의 변화모형을 사회적기업이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공헌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었으며, 전문화되거나 차별적인 목적 없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업의 기부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은 가진자의 관용과 자선이었으며, 종속적인 관계를 전제한 체면치레였다고 해도 지나친 편견은 아닐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 못 먹고 못 살던 시기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기부로도 충분하였다. 배고픈 전쟁고아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했겠는가? 그러나 세상이 바뀐 지금, 무료급식도 맛있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지금, 기업의 사회공헌방식도 지속가능하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자립형’ 산비둘기가 아니라 ‘의존형’ 공원비둘기를 키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회공헌은 사회를 위한 소비가 아니라 사회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공헌은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선이 아닌 사회공헌이 창조하는 효과가 중시되는 투자의 시대를, 그리고 일방적인 종속이 아닌 쌍방향 파트너십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과거의 기업 사회공헌의 관행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이러한 노력은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변화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때 늦은 감이 있기도 하다. 기업 사회공헌으로서의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는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노하우의 전수나 재능 기부를 비롯한 간접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과 손을 잡고 그들의 변화와 자립을 돕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당연하고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부폰 꿈의 청사진으로 출발한 벤처기업의 실패가 그러

하듯 사회적 목적이라는 선한 뜻으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SK를 비롯한 대기업의 동참 고무적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서둘러야 할 일은 민관의 협력이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주류사회의 이해와 동참이 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의 목소리가 그들만의 속삭임이 아니라 넓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하며 주류사회의 메아리로 되돌아와야 한다.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는 구매력이 있는 주류사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소수를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충족되지 아니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채워 주는 그릇이며, 이기적 주장을 위한 ‘색깔’ 있는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나눔’이 있는 ‘인간적 배려’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감싸지 않는 주류들만의 사회는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K는 2006년부터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소셜벤처대회’ 등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지평을 선도적으로 넓혀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안심생활’을 지원해 온 현대자동차, ‘에코하우징’을 지원하는 포스코 등과 함께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사회적기업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으로 창조적 자본주의나 선한소비, 윤리적시장 등의 개념에 부합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류사회의 동참 활동으로 의의와 가치가 있다.

이제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세계 일등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우리의 기업만큼이나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경제와 복지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소리를 그들만의 외침으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기업들의 외침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우렁찬 메아리가 필요하다.

제3부

관계사별 활동



하나보다 모두가 더 행복한 성장을 꿈꿉니다

SK는 지난 2004년 그룹 차원의 SK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전 임직원이 함께 사람 냄새 땀 냄새 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SK프로보노를 통해 지식과 경험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기업문화로 뿌리 내린 자원봉사활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멀리 더 깊이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SK는 기업의 역할이 이익 창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창조하는 일이야말로
기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나눔에 참여할수록 희망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SK 임직원이 행복나눔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통계로 본 SK 사회공헌활동

사회와 나눈 1인당 14.1시간의 행복

SK 주요 관계사들은 그룹 공동 프로그램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1사 1대표 프로그램에는 각 사의 역량을 활용한 '행복나눔'의 정신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2009년은 전문자원봉사단 SK프로보노가 출범하여 재능과 지식을 사회와 나눔으로써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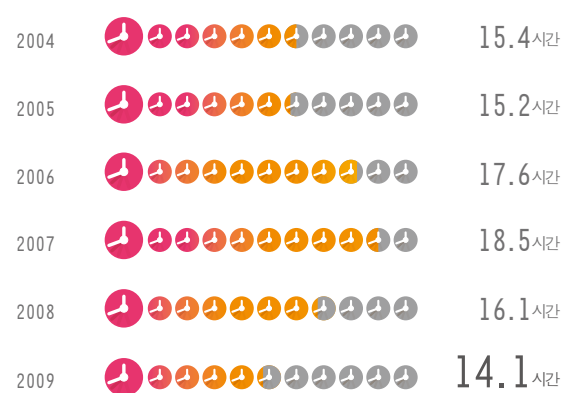
SK 구성원 자원봉사활동

SK는 2004년 자원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우리 사회의 행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SK 14개 주요 관계사 2만 7,370명의 직원들 중 2만 6,017명이 자원봉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가입률 95.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은 396개의 봉사단으로 나누어 사회 곳곳에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평균 14.1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 가입률



1인당 봉사시간



2009년 임원 자원봉사활동

SK 사회공헌활동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임원 자원봉사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각 사 CEO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직원들과 함께 언제나 달려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임원 1인당 봉사시간은 8.8시간이다.

봉사단 가입 임원수



가입률



총 참여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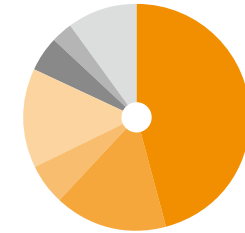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SK프로보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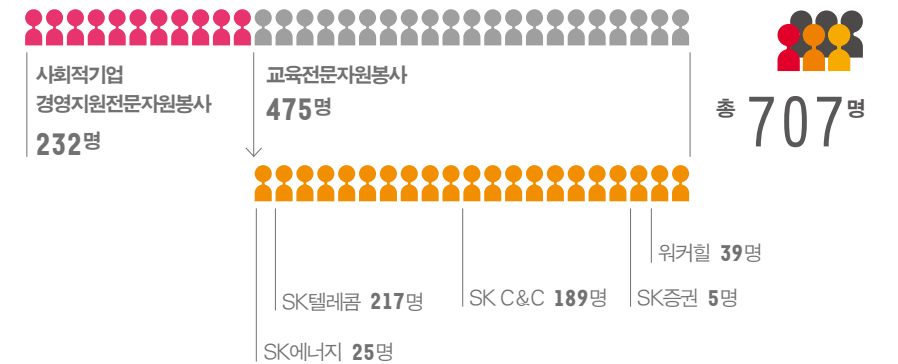
2009년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SK는 사회복지, 교육·장학, 환경보존, 문화·예술·체육, 글로벌, 자원봉사 6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문화를 기꾸며, 글로벌 공헌활동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행복나눔을 실현하고 있다.



2009 활동 인원

SK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단인 SK프로보노를 2009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SK프로보노에는 SK 전체 관계사 임직원 중 각 업무영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한 해 동안 44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09년 말 현재 SK프로보노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은 약 700여 명이며, 이 중 사회적기업 경영지원전문 자원봉사 참가 임직원은 232명이다. SK프로보노는 경영 관련 이외에도 475명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자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교육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SK에너지 프로보노의 에너지교실, SK텔레콤 프로보노의 주니어 공학교실, SK증권의 청소년 경제교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워커힐 프로보노의 영어교육 서비스 등이다.





SK주식회사는 SK의 지주회사로서 술선수범하는 모습으로 SK의 사회공헌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이전에 단일회사로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자원봉사단 창단을 시작으로 구성원의 사회공헌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전 직원 사회공헌 온라인교육 및 해비타트, 사랑의 빵나눔 봉사, 서울숲 가꾸기 등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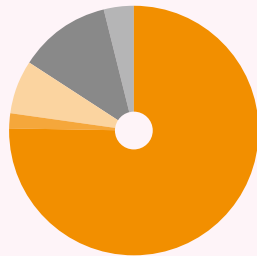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77.79
교육·장학	0.68
문화·예술·체육	7.17
글로벌	12.28
자원봉사	2.08
합	100



(단위 : %)



01



02



03

사랑의 빵나눔 봉사

자원봉사단 사랑의 빵나눔 봉사
(경영관리총괄팀)
봉우리(윤리경영실팀)
봉사횟수 8회

상생인턴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참여인원
260명



지원금액
1,000만 원

● SK 상생인턴십 프로그램

목적 중소협력업체의 구인난과 청년구직자의 구직난 동시 해결
참여회사 SK의 13개 관계사 협력업체
지원내용 10주간 인턴 근무

이웃과 함께 하는 송년회(김장나눔봉사)



참여인원
200명



지원금액
1,000만 원

● 자원봉사 부문

사랑의 빵나눔 봉사 01

SK주식회사 경영관리총괄팀과 윤리경영실팀은 2009년 대한적십자사 종로봉사관을 주기적으로 찾아 '사랑의 빵나눔 봉사' 활동을 벌였다. 사랑의 빵나눔 봉사는 직접 만든 빵을 지역의 결식아동·노인·방과후학교에 전달하는 활동으로, 2009년 총 8차례 전개했다.

해비타트 및 대전지역 복지시설·병원 봉사 02

SK주식회사 Life Science사업 부문은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물품기부에서도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장이 위치한 대전의 해비타트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집짓기 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지역 복지단체와 병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SK에너지 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생인턴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SK 상생인턴십 직원들은 '사랑의 김장나누기' 활동을 통해 SK의 사회공헌문화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나누기에는 총 240명의 인턴사원과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나눔의 뜻을 같이했다. SK 상생인턴십이란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선발한 인턴사원에게 취업 경쟁력 강화 교육을 제공한 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전 직원 대상 사회공헌 온라인교육

SK주식회사는 SK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봉사활동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5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룹사회공헌 온라인교육'을 시행했다. 임직원의 90%에 가까운 290여 명이 수료한 그룹사회공헌 온라인교육은 구성원들에게 봉사활동의 의미와 더 깊이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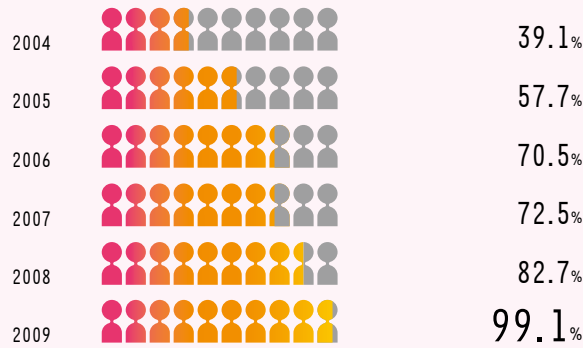
이웃과 함께 하는 송년회 03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박영호 사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랑나눔 송년회가 2009년에도 Corporate Center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임직원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2주일분의 김장을 제공하고 팔죽을 대접하며 송년의 뜻을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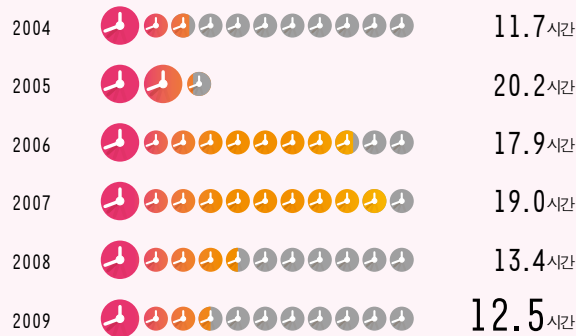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지원,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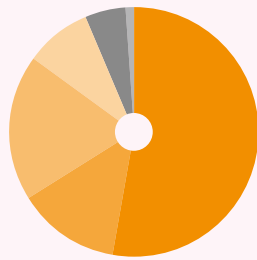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52.77
교육·장학	13.31
환경보존	18.94
문화·예술·체육	8.84
글로벌	5.23
자원봉사	0.91
합	100



(단위 : %)

고마운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64-5
설립연도	2009년 6월
협력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열매나눔재단
기업형태	사회공헌기업 1호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공모 선정)
사업영역	가방·지갑 및 핸드백 생산
고용현황	54명 (2009년 말 현재)

사회복지 부문

친환경 사회공헌기업 '고마운손' 설립 지원 01

SK에너지는 2009년 6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공모에 선정된 사회공헌기업 1호 '고마운손'의 설립·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마운손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핸드백과 지갑 등 잡화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SK에너지는 고마운손의 설립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열매나눔재단도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초기투자 비용으로 출자했다. SK에너지는 설립자금 이외에도 경영 참여 및 자문, 기업의 R&C(Resource&Capability)를 활용한 판매 지원 등을 담당하며 고마운손의 경영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SK에너지는 기존 지원 사업인 메자니아팩·메자니아코원 등과 더불어 고마운손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나눔 초청행사

SK에너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 행복나눔 초청행사'를 워커히에서 개최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 이 행사는 정부기관, 지자체, NGO, SK에너지 봉사단 등의 추천으로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교통사고 유자녀·독거노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장애인 약 2,200명을 워커히로 초청하여 각종 이벤트, 식사, 워커히소 관람,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행복캠프, 행복나들이, 행복나눔미, 뷰티풀콘서트(장애인음악회) 등 초청 대상자의 특성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1박 2일 또는 당일 과정으로 진행해 행복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 행복나눔 초청행사 세부 프로그램 |

행사명	대상자	기간	인원
행복캠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 •저소득층 교통사고 유자녀 •저소득층 소외아동	7월 29일~8월 4일 (1박 2일, 5회)	750명
행복나들이	•서울·경기, 울산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9월 7일~9월 9일 (당일 또는 1박 2일, 3회)	600명
행복나눔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2월 3일~12월 4일(1박 2일, 1회)	250명
뷰티풀콘서트 (장애인음악회)	•장애인 연주자와 가족	12월 13일(당일, 1회)	600명
합	총 2,200명 / 10회 행사		

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 02

SK에너지는 동절기에 추위와 싸워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랑의 김장나눔기, 사랑의 연탄나눔 등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을 6년째 전개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나눔기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SK에너지



02

지는 배추와 무를 조기에 계약하고 재배하여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지원을 돕고 있다. 2009년에도 전국 50개 지역에서 11월 13일부터 약 5주 동안 10만 포기 of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2005년부터 시작한 사랑의 연탄나눔은 매년 약 100만 장의 연탄을 4,000여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으로, 2009년에는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과 함께 3,135가구에 약 93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으며, 임직원 600여 명이 약 8만 4,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일석이조의 **쫄너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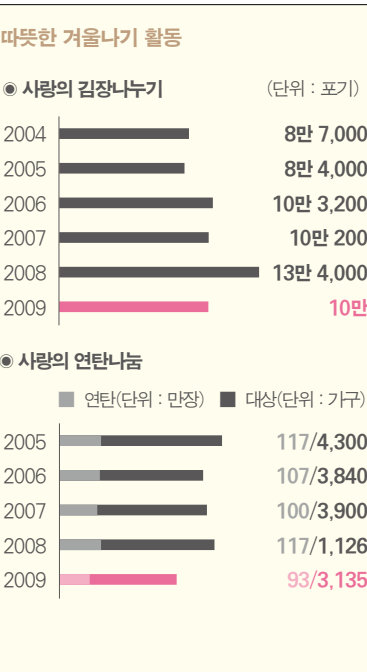
SK에너지는 타 정유사들과 함께 모금한 정유사특별기금 중 151억 원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중 일부는 2009년 6월부터 전국 3만 2,588명이 거주하는 508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보일러 및 바닥배관 교체, 단열창호 및 단열재 시공 등 에너지비용 절감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한 이 활동으로, 그동안 운영비 부족으로 난방시설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복지기관들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 따뜻하고 알뜰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태양광설비를 지원하는 ‘솔라쫄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약 3,300m²의 부지에 건설된 ‘태안 에너지나눔 태양광발전소’는 준공과 동시에 태안군에 기부채납되며, 향후 15년간 운영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2억 원의 수익금 전액도 태안군의 에너지 빈곤층과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연료비·전기요금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마라톤 완주를 통한 **취약계층 돕기**

2004년부터 실시된 마라톤 완주를 통한 성금 모금 활동이 2009년에도 진행됐다. 신현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2008년 경주마라톤과 2009년 도쿄마라톤 완주를 통해 모금한 3,000만 원의 성금과 매칭펀드로 조성한 이와 동일한 금액을 합한 총 6,000만 원의 성금을 취약계층을 돕는 데 활용했다. 또한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씨, 영화 <맨발의 아기>의 실제 주인공 엄기봉 씨에게도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문화선교 레위 마을에서 진행한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콘서트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돕기 자선음악회 등을 후원했다.

02



SK에너지 완주 마라톤과 모금액 (단위 : 원)		
연도	대회명	모금액
2007	동아마라톤	5,025만 2,695
	경주마라톤	3,621만 110
2008	보스톤마라톤	1억 2,449만 8,615
	경주마라톤	5,238만 1,573
2009	도쿄마라톤	3,440만 8,604
합		2억 9,775만 1,597

축구교실 및 축구꿈나무교실		
연도	지원금액(억 원)	대상(명)
2006 축구교실	1.0	120
2007 축구교실	1.0	160
2008 축구교실	1.0	160
2009 축구꿈나무교실	0.7	1,620

행복한청소년공부방	
목적	학습 및 정서 발달 지원
시작연도	2007년
대상	울산지역 청소년
일시	매주 화·목 2시간



03

1인 1**후원계좌** 갖기

SK에너지가 행복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이 2009년에도 지속됐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조성한 1억 1,903만 5,000원으로, 한국컴패션을 통해 저개발국 대학생 5인(Zulma Laura Garca, Crucesa Ruiz, J. Ruben Singh, Jonrie Al Basa, Nirosh Sundaram)을 후원했다. 또한 1년간 후원한 소아암 환자 김령욱 군은 치료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나라 양은 상태가 호전되어 대학 신입생이 되었다. 그 외에 본사 및 지역 봉사단을 통해 소외된 노인·장애인·아동을 지원했다.

● 교육·장학 부문

제주 유니타이트FC와 함께 하는 **축구꿈나무교실** 03

제주유니타이트FC 프로축구단을 운영 중인 SK에너지는 축구단이 2006년 2월 부천에서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함에 따라 축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밀착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운영해 온 축구교실을 발전시켜 2009년에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제주유니타이트FC와 함께 하는 축구꿈나무교실’을 새롭게 시작했다. 축구꿈나무교실은 축구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축구 레크리에이션’, 제주유니타이트FC 코치진이 직접 지도하는 ‘축구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한청소년공부방·**벤엘행복한홈스쿨** 04

SK에너지는 ‘행복한청소년공부방’과 ‘벤엘행복한홈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은 물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한 행복한청소년공부방에서는 매주 화·목 2시간씩 2명의 봉사자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10월에는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울산 서생면 배꽃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20여 명을 초청하여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벤엘행복한홈스쿨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활동으로, 행복지킴이와 연계하여 영어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1대1 맞춤교육을 실시

04





05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딱딱한 교실을 벗어난 야외활동을 매월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초등학생 에너지교실 05

SK에너지 인천CLX는 인천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초등학생 에너지교실'을 열었다. 2008년 4개 초등학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초등학교 에너지교실은, 2009년에는 4개 초등학교 460여 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진행했다.

JA코리아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경제교실 06

SK에너지는 6년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에게 경제개념을 쉽게 가르쳐서 시장경제체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경영과 국제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리더십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경제교육 법인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 코리아와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 경제교실은 기업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경제 관련 이야기를 풀어 갈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20여 명의 임직원 강사가 초등학생 600여 명에게 경제교육을 진행했던 200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9년에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울산의 SK에너지 임직원 29명이 강사로 나서 여천초등학교와 아음초등학교, 강남초등학교 총 31개 학급 1,100명을 대상으로 지역·국가·세계를 주제로 한 경제관념을 일깨워 줌으로써 학생은 물론 교사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환경보존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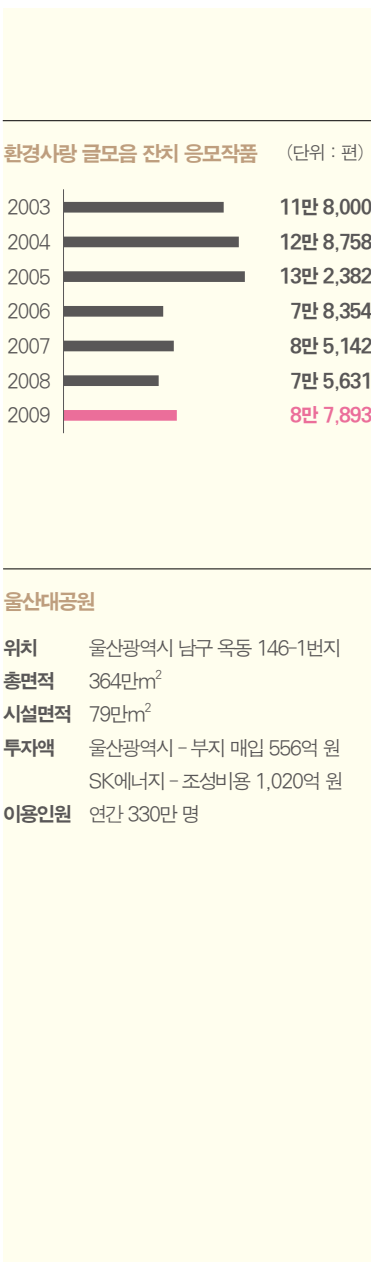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 07

SK에너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일, 서울 서린동 SK본사에서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한중문화청소년협회에 전달했다.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은 한중문화청소년협회와 중국의 공산주의청년단·네이멍구 다리타치 인민정부가 주관하고 SK에너지와 산림청이 공

06



07



08

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황사 발원지인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지역에 14km²의 방사림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SK에너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제17회 SK에너지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 08

40년간 환경산업을 선도해 온 SK에너지는 2009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 17회 'SK에너지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를 개최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환경사랑 이야기 등 환경 관련 주제를 다룬 시·산문·일기·생활문 등을 우편과 온라인으로 접수한 결과 8만 7,893편에 달하는 작품이 응모, 전년 (7만 5,631편) 대비 16%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매년 5~6월 사이 개최되는 환경사랑 글모음 잔치는 첫째 6,700여 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후 꾸준한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국내 최대의 환경 글짓기 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시상식 이후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환경체험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체험여행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8%에 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1위로 SK에너지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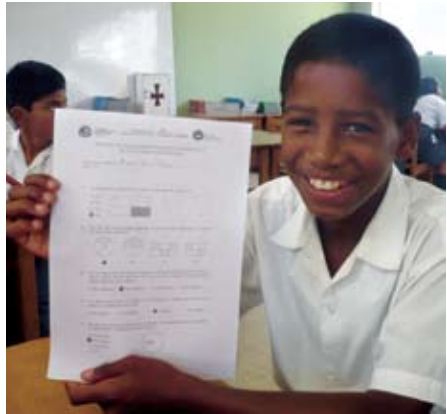
문화·예술·체육 부문

울산대공원 활용한 메세나 활동 09

2006년 울산대공원을 세계 최대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울산시에 무상으로 기증한 SK에너지는 '울산대공원 내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을 기획·운영하는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장미축제·자연과학캠프·청소년 가을소풍 한마당·행복한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공연팀을 공모해 매월 1, 3주 울산대공원 SK광장에서 토요일예술무대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SK에너지는 울산시민 누구나 전시회를 열 수 있는 해피갤러리와 나무 공예 체험프로그램인 숲속공작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울산대공원은 세계적 권위를 가진 세계조경가협회 아태지역총회가 주최하는 2009년 제6회 조경공모전(IFLA APR AWARD)에서 조경계획 분야의 대상인 '프레지던트 어워드(President Award)'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09





10

● 글로벌 부문

페루 재건 지원 ¹⁰

SK에너지는 해외 국가 및 NGO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SK에너지 페루 현지법인인 페루 정부·지역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페루의 교육환경 개선, 의료보건 증진,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학교재건 프로젝트는 SK에너지가 페루 현지에서 펼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SK에너지는 페루 서부 이까 주(州) 싰 클레멘테 시(市)에 '마리아 빠라도 데 베이도'학교를 재건해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말까지 총 48개 학교를 재건하여 지역사회에 기증했다. 또한 예술가·교사·학생들과 함께 학교 인근에 녹지조성사업을 벌인 결과 48개 학교 중 34개 학교에 녹색 쉼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SK에너지는 2009년 가톨릭대학 등과 함께 초등학생 1만 1,500명을 대상으로 독해능력과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SK에너지는 휴에이타라 지역 내 5개 의료시설을 재건하고 의료장비를 제공하였으며, 피스코·휴에이타라 농촌지역 70가구의 영농기술 진흥을 지원했다.

페루 교육환경 개선 주요 사업 개요		(단위 : 달러)	
프로그램	기간	사업성과	지원액
학교재건	2007~2009년	48개교	343만 7,261
녹지조성	2009년	34개교	8만 2,424
교육수준 증진	2008~2009년	795명의 교사와 2만 1,863명의 학생들을 연계하여 교육한 결과, 학생들의 독해능력과 수학능력이 가시적인 향상을 보임	29만 8,122

페루 주요 사업 지원금액		(단위 : 달러)	
프로그램	2007	2008	2009
교육환경 개선	1만 5,560	281만 2,359	99만 5,774
의료보건 증진	2,216	28만 2,714	70만 412
농촌지역 개선	-	-	15만 3,522
합	1만 7,776	309만 5,073	184만 9,708

이라크 어린이 및 일반 환자 초청치료 사업

SK에너지는 2006년 이라크 어린이가 환자 5명을 초청해 치료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해외 지원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에는 7명의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3~14세의 남녀 어린이로, 이라크 종교인평화회의를 통해 각 종파(시아파, 수니파, 쿠르드 등) 종교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으며, 현재 이라크의 의료기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치료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원광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가천의대갈병원 등과 공동으로 이라크 환자가 도착하



이라크 어린이 환자 초청 치료		(단위 : 명)
2006	5	
2007	8	
2008	-	
2009	7	



11



12

는 즉시 정밀검사를 시작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했다. 치료 후 완치된 어린이들을 위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 이라크 의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자원봉사 부문

CEO 1일 제빵 요리사 봉사 ¹¹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6월 16일 사회복지시설 은평의마을을 찾은 구자영 사장이 1일 제빵 요리사로 변신했다. 구자영 사장과 임직원들은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여 구운 빵을 장애인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은평의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컴포넌트와 전자레인지·탈수기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했다.

부회장과 함께 한 신입사원의 무료급식 봉사 ¹²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과 신입사원 107명이 3월 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소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는 신입사원들에게 ‘행복나눔 경영’의 체현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입사원들은 급식소를 방문한 약 2,400명의 노인들을 위해 배식·설거지·청소 등을 했으며, 300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두를 닦아 드리는 활동을 펼쳤다. 급식비를 포함한 1,000여 만 원의 비용은 지난해 마라톤 원주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원했다.

제6회 행복나눔 장애인 등반대회 ¹³

SK에너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와 함께 ‘제6회 행복나눔 장애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4월 9일 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해발 451m의 울산 무룡산에서 열린 이 등반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이날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소속 5개 협회 회원 100여 명과 울산CLX 임직원 80명은 왕복 4km의 산길을 같이 오르내리며 체력을 증진하는 한편, 함께함으로써 커지는 행복나눔의 의미를 마음으로 새겼다. 특히 휠체어장애인 20명의 산행을 서로 도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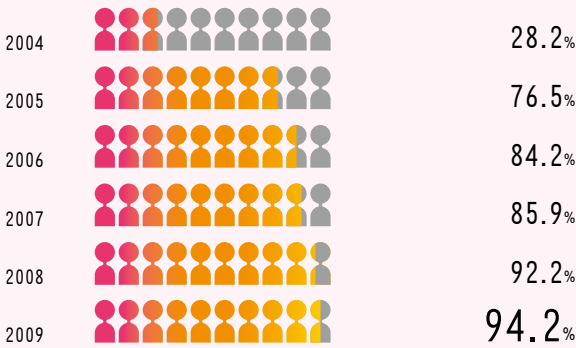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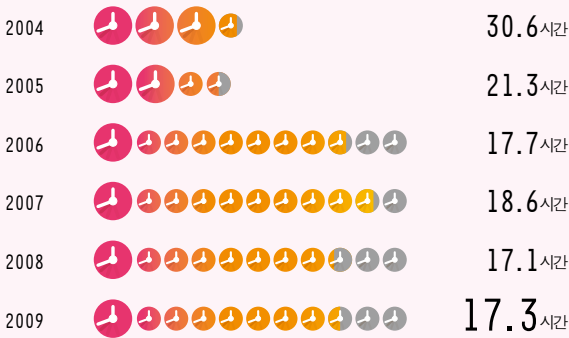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기술 인프라를 사회와 공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차별화된 모바일 공익사업을 펼치는 한편 유·무선 사회공헌 포털 'T-together'를 오픈하여 고객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together는 기부, 헌혈, 자원봉사 등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인프라를 통한 사회책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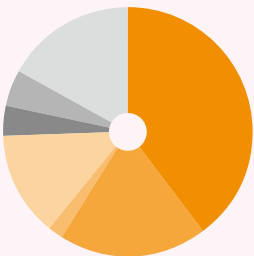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단위 : %)

사회복지	41.04
교육·장학	19.90
환경보존	0.39
문화·예술·체육	13.88
글로벌	3.56
자원봉사	4.08
기타	17.15
합	100



사회복지 부문

HBS 케이스 스터디 01

SK텔레콤의 사회책임경영(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가 한국 기업 최초로 2009년 9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arvard Business School : HBS)의 케이스 스터디로 등재되어, HBS를 비롯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의 교재로 쓰이고 있다. 케이스 스터디 등재는 SK텔레콤 CSR 활동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한국 기업의 기업시민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같은 성과는 SK텔레콤이 사회공헌활동을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다. 이번에 등재된 추진 사례에는 SKMS에 근간하여 진행된 SK텔레콤만의 독특한 CSR 진화과정이 담겨 있다.

NGO·복지기관 등 후원·협찬

SK텔레콤은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지속적으로 후원·협찬하며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구세군을 통해 부산 수해지역 급식봉사를 지원하였으며,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노동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지원했다. 이외 SK텔레콤이 2009년 대표적으로 후원·협찬한 곳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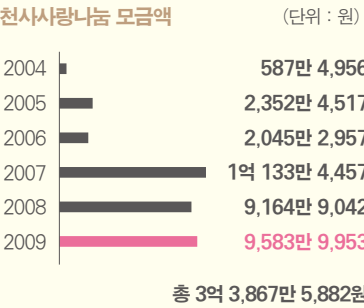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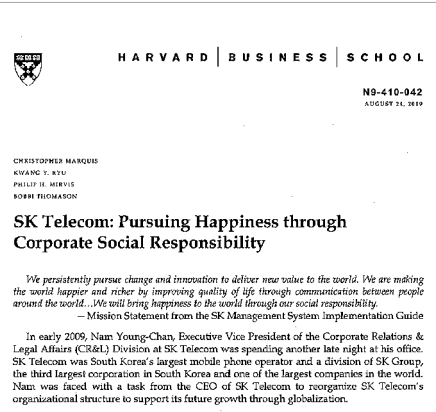
△(사)한국BBB운동본부_한국BBB운동 △위스타트_위아자나눔장터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_기쁨과 희망은행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_사회적기업 대출 프로그램 △무지개청소년센터_새터민청소년의 자립·자활 위한 맞춤형 교육 △남북어린이어깨동무_북한어린이 의료·교육 지원 사업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_1318세대 진로코칭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재)함께일하는재단_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사회공헌 통합 사이트 T-together 오픈 02

SK텔레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객의 참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2009년 10월 29일 사회공헌 통합 사이트 T-together를 오픈했다. T-together는 시즌별·주제별로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비영리단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이나 공정무역상품을 뜻하는 '착한 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해당 NGO에 기부한다. 이외에도 미아찾기, 모바일 헌혈, 모바일 상담, 천사사랑나눔 등 SK텔레콤이 상시 운영하는 모바일 공익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together의 유선인터넷은 http://ttogether.tworld.co.kr로 연결하면 되고, 무선인터넷은 *※1320+NATE 버튼을 눌러 접속할 수 있다.

모바일 기부 프로그램 천사사랑나눔 03

손끝에서 시작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SK텔레콤은 '천사사랑나눔'으로 21세기형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천사사랑나눔은 기부한 레인보우 포인트와 OK캐쉬백 포인트 및 현금을 고객이 선택한 NGO의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지원금으로 전달하는 모바일 종합 기부 프로그램이다. 현재 유니세프·월드비전 등 20개 NGO와 함께 천





03

사사랑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9년 말까지 약 3억 4,000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9년 한 해 동안 천사사랑나눔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9,6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강진이 일어나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다. 2009년 각 NGO가 벌인 캠페인 중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프리카 말리 신생아 살리기, 함께하는 사랑밭의 필리핀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및 국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이다.

모바일 미아·장애인·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04

SK텔레콤의 모바일 미아찾기 캠페인을 통해 2009년 말까지 총 20명의 미아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SK텔레콤은 2004년 5월 미아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를 2005년 5월부터 장애인과 치매노인으로 확대했다. 모바일 미아찾기는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산하기구)의 ITU-D(Development Sector)에 소개되었으며,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 관심과 호평을 받는 등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모바일 헌혈 서비스 05

SK텔레콤은 긴급 수혈환자 발생 시 SK텔레콤에 가입한 등록 헌혈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헌혈 참여를 권유하는 모바일 공익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헌혈의집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원하는 지역 또는 등록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헌혈의집을 지도로 안내해 주고 있으며, 전국 약 120개 헌혈의집에서 대기시간 없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예약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5만여 명의 SK텔레콤 회원들이 모바일 헌혈 서비스에 접속했으며, 이 중 480명이 헌혈예약서비스를 이용했다.

긴급재난문자정보서비스

SK텔레콤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전달하여 위급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정보를 NATE Air 단말기 보유고객에게 송출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 정보서비스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05

모바일 미아찾기		
목적	미아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 도모	
시작연도	2004년 5월	
협력기관	경찰청, 어린이재단	
대상	NATE Air 단말기 보유고객 및 T-together 이용자	
성과	(단위 : 명)	
2004	7	
2005	2	
2006	3	
2007	4	
2008	3	
2009	1	
		총 20명

모바일 헌혈 서비스		
목적	긴급 수혈환자 발생 시 헌혈 요청	
시작연도	2007년 1월	
협력기관	대한적십자사	
대상	SK텔레콤에 가입한 등록 헌혈회원	
● 모바일 헌혈 예약자 수	(단위 : 명)	
2007	238	
2008	362	
2009	480	

긴급재난문자정보		
목적	위급 상황 대처	
시작연도	2005년 4월	
협력기관	소방방재청	
대상	NATE Air 단말기 보유고객	

119 긴급구조서비스		
목적	구조 요청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작연도	2005년 4월	
협력기관	소방방재청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		
목적	재외국민 및 여행자 보호	
시작연도	2005년 5월	
협력기관	외교통상부	
대상	해외로밍서비스 이용 고객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		
목적	심층적이고 신속한 청소년 고민상담(익명성 보장)	
시작연도	2007년 4월	
협력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지원내용	무료 문자메시지(수신번호 #1388) 통한 상담서비스	
상담실적	(단위 : 건)	
2007	1만 4,884	
2008	6만 1,743	
2009	11만 9,242	
		총 19만 5,869건

올바른 휴대폰문화 교육 캠페인		
목적	올바른 휴대폰문화 정착	
협력기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6

119 긴급구조서비스

119 긴급구조서비스는 휴대폰 이용자가 119에 구조 요청을 할 경우 SK텔레콤의 위치확인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방방재청 상황실에 고객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이다. 구조 요청인이 화재나 심각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 구조대가 구조 요청인의 위치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

SK텔레콤은 해외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에게 해외 위급상황 안내 및 긴급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 해외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에는 영국 지하철 테러 발생 시 런던 지역 고객에게 테러 발생상황과 긴급대응방법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교민 안전에 기여했으며, 2008년 4월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재외국민보호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

SK텔레콤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민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변노출 부담 없이 무료 문자메시지를 통해 24시간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용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컴퓨터 채팅 형태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 145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09년에는 약 12만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심층상담 건수는 약 300건이다.

올바른 휴대폰문화 교육 캠페인 06

SK텔레콤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올바른 휴대폰문화를 정착시키고 휴대폰이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휴대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우선 사회복지사가 파견돼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지실과 협력하여, 서울 난곡중·서울 안천중·서울 한서고·경기 조원고·경기 신봉초 등 5개 학교를 휴대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또한 학교 내 휴대폰문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니메이션·동영상·게임 등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이 콘텐츠는 예비 사이트(www.happymobile.org) 오픈테스트 과정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콘텐츠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웹 기반의 휴대폰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SK텔레콤의 기존 모바일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휴대폰의 순기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했다.

공정무역 커피전문점 카페티모르 지원 07

SK텔레콤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정무역 커피전문점인 '카페티모르'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카페티모르 1호점 설립 지원을 시작으로 바리스타 교육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SK텔레콤은 2009년 자립·자활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일반인 141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04



07

며, 이 중 15명이 바리스타로 양성됐다. 또한 바리스타 6명에게 동티모르 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 카페티모르는 동티모르 현지 커피생산농가의 공정무역 커피를 구입해 판매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에게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서울 남대문점 등 3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2개의 사업장을 SK텔레콤이 지원했다.

교육·장학 부문

새터민 휴대폰 활용교육

SK텔레콤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하나원에 8주간 입소교육 중인 새터민을 대상으로 휴대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기 가입, 국제전화 과다요금, 명의 도용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적 사례교육과 에티켓 등 올바른 휴대폰 사용문화를 안내했다. 교재는 실제 활용도와 새터민들의 교육 수준을 반영하여 남한의 대학생들과 새터민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만들었으며, 교재 제작비용 및 워크숍 연수비용은 SK텔레콤이 지원했다.

해피 챌린지 펀드 '도전! English Up!' 프로젝트 08

SK텔레콤은 1318해피존 청소년의 외국어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해피 챌린지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SK텔레콤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조성되는 해피 챌린지 펀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전! English Up!'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다. English Up 프로젝트는 영어 멘토링 개별학습을 통해 학습 수준이 향상된 1318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273명이 도전, 55명이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 우수장학생 10명에게 16일 과정으로 필리핀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되었다. SK텔레콤은 해피 챌린지 펀드 조성 및 English Up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성취감을 고양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English Up 프로젝트는 2007년 시작 당시에는 1318해피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개별장학생과 기관장학생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나, 개별 참가자의 도전 의지가 고취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는 일반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 개별 참가자 위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08



카페티모르	
목적	취업 취약계층에 자립·자활 기회 제공
시작연도	2007년
협력기관	YMCA,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	청소년, 여성가장, 미혼모, 장기실업자 등
활동내용	2개 지점 설립 지원 및 바리스타 교육

해피 챌린지 펀드 English Up 프로젝트	
시작연도	2007년
협력기관	부스러그사랑나눔회
대상	1318해피존 및 일반 지역아동센터의 1318세대
지원과정	도전자 신청 → 1차 심사(예비장학생 선정) → 개별학습 및 멘토링 → 학교시험 → 성적 향상도 평가 → 2차 심사(장학생 최종 선정) → 장학금 지원
활동내용	최종 장학생 선발자 1인당 10만 원 지급, 우수 활동자는 해외 영어연수 기회 제공



09



10

| 해피 챌린지 펀드 English Up 프로젝트 현황 |

연도	도전자	선정자	최고향상 점수
2007	105명(개별 55명 / 단체 10개팀)	66명(개별 31명 / 7개팀)	58점
2008	205명	55명	39.1점
2009	273명	55명	48.1점

| 해외연수 현황 |

연도	일시	장소	참가자
2008	8월 8일~8월 21일	필리핀 일로일로	10명
2009	8월 8일~8월 22일	필리핀 일로일로	10명

장애청소년들의 IT축제, 제11회 IT챌린지 09

SK텔레콤은 2009년 6월 23일 장애청소년들의 IT실력을 겨루는 문화축제인 '제11회 IT챌린지'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SK텔레콤이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IT챌린지는 장애청소년이 IT를 통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IT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1회 IT챌린지에는 참가자 1,200명 중 지역 예선을 거쳐 260명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은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심사하는 'e툴 대회', 온라인게임 실력을 겨루는 'e스포츠대회', 인터넷을 활용해 시사·환경·과학 분야 20개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e라이프' 대회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e라이프대회와 e툴대회 1등 수상자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장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과 함께 장학금, 해외연수의 기회가 제공됐다. 해외연수는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 진행됐다.

장애아동 예술치료를 위한 사랑나눔캠프 10

2009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사랑·나눔·실천'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장애아동 130명과 보호자 130명, 보완의학치료사 130명을 포함해 총 500여 명이 참가한 사랑나눔캠프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됐다. 2009년 사랑나눔캠프에서는 음악·공예·원예·동물치료 등을 통한 치료반이 운영되었으며 또한 공동그림그리기·공동난타합주 등 공동예술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사회성 및 사고의 확장을 도왔다.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합창과 도예활동 등 다양한 예술활동 프로그램과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치료를 제공했다. 특히 2009년 사랑나눔캠프에는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 18명과 보호자들이 참가하여 의미를 더했다.

환경보존 부문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통해 그린IT를 실천하고 있다. 폐휴대폰 수거는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적 이점이 있으며, 중금속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중요한 환경 캠페인



으로 꼽힌다. SK텔레콤은 전국 4,000여 초·중·고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해 2007년 13만 대, 2008년에는 30만 대의 폐휴대폰을 수거했다. 2009년에도 환경부·제조사와 함께 수거 캠페인을 전개해 총 37만 대를 수거했다.

● 문화·예술·체육 부문

2009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이끌어 온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가 2009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 ‘회장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로 시작해 2002년부터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로 대회 명칭을 바꾼 후 8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16개 장애인팀과 9개의 비장애인팀을 포함해 총 25개팀 400여 명이 출전했으며 특히 처음으로 여성부 2팀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모든 팀에게 참가비를 지원했으며 리그별 성적에 따라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했다. 장애인팀과 비장애인팀 부문을 나누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진행된 2009년 대회는 경기력이 비슷한 팀끼리 리그를 구성해 더욱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쳤다. SK텔레콤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는 국내 휠체어농구대회 중 유일한 기업 후원대회로서 회장기배와 더불어 가장 큰 규모의 휠체어농구대회이다.

문화소외계층 아이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 아이4.0 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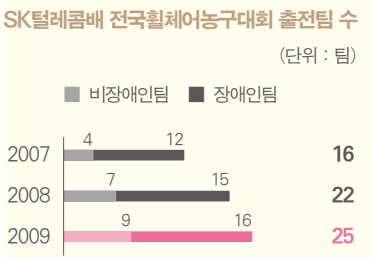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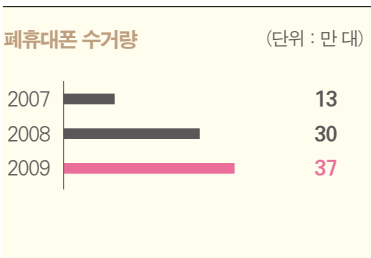
SK텔레콤은 아트센터 나비(nabi)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2월 한 달 동안 프로젝트 아이4.0을 진행했다. 프로젝트 아이는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개념 예술참여 프로그램이다. 2009년에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아이4.0이 기획됐으며, 재한몽골학교와 안산이주민센터, 강원도 정선 예비초등학교 고성분교 4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을 주제로 열린 프로젝트 아이4.0 행사에서 무용·연극·음악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 프로젝트 아이4.0 진행 프로그램 |

종류	프로그램 제목	내용	일시	장소	참가자
전시	‘소리가 있는 아이들의 섬’	악기 만들기	1월 14일 ~2월 27일	아트센터 나비	정선 예비초등학교 고성분교 학생
공연	‘고마워요, 아빠’	전통연극	1월 22일	국민대학교 대극장	재한몽골학교 연극반
퍼포먼스	‘마주보기’	즉흥 퍼포먼스	1월 22일	국민대학교 대극장	안산이주민센터 코시안의집 어린이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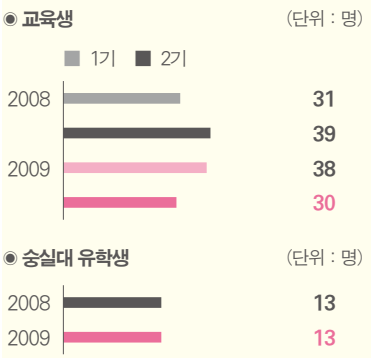


프로젝트 아이

목적	취약계층 아동들의 정서순화 및 문화적 경험 제공
시작연도	2005년
협력기관	아트센터 나비(nabi)
대상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아동
활동내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술 지원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현황			
구분	일시	지역	사술인원
1차	1996. 5	하노이	193명
2차	1997. 5	후에	250명
3차	1998. 6	하노이	155명
4차	1999. 6	호치민	251명
5차	2000. 5	하노이	197명
6차	2001. 5	호치민	159명
7차	2002. 5	타이응웬	240명
8차	2003. 12	미토	157명
9차	2004. 5	박간	153명
10차	2005. 6	박닌	175명
11차	2006. 6	남딘	134명
12차	2007. 5	응예안	202명
13차	2008. 5	까마우	181명
14차	2009. 6	탕화	222명
15차	2009.10	하노이	33명
합			2,702명

베트남 IT교육센터



몽골 축산시범농장

목적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몽골 지역경제 활성화
시작연도	2004년
협력기관	(사)지구촌나눔운동
대상	울란바타르시 자르갈란트 마을 주민 5,300명, 투브도 바안찬드만 군 주민 약 3,300명
지원내용	• 가축은행(저소득층 10가구에 생계 수단인 젖소 10마리 지원) • 사료은행사업(겨울철 사료값 급등으로 가축 사육에 어려움을 겪는 100여 가정에 건초 2,000 묶음과 사료 10톤 지원) • 축산시범농장 운영(농축산 실습 교육을 위한 각종 채소시범재배 및 젖소시범사육)



12

● 글로벌 부문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¹²

SK텔레콤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시작한 얼굴기형어린이 무료수술 사업을 14년째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는 6월 6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탕화(Thanh Hoa) 어린이병원에서 의사 18명, 간호사 6명, 자원봉사자 16명으로 구성된 40명의 한국 의료진이 베트남 108국군병원의 협력을 받아 약 222명의 어린이가 환자를 수술했다. 또한 수술에 사용된 수술장비와 추가 수술장비 및 소모품, 의약품 일체를 탕화 어린이병원에 기증해 현지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탕화 지역 이외에도 하노이 지역의 어린이 33명에게도 무료수술을 지원해, 2009년 총 255명의 베트남 어린이가 건강한 웃음을 되찾았다. 108국군병원의 의사들에게는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한 SK텔레콤은 하노이 108국군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어린이 환자들에게 환자식으로 궁중 음식인 타락죽을 제공해, 한식의 세계화 추진에 동참했다.

베트남 IT교육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 ¹³

SK텔레콤이 호치민시 광종 특구 내에 설립한 IT교육센터가 베트남 IT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업계의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JAVA·UNIX·ORACLE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IT교육센터는 2009년 상반기까지 약 140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에는 이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13명에게 송실대 IT대학원 유학과정을 지원했다.

몽골 축산시범농장 지원 ¹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몽골에서 전개하고 있는 축산시범농장 사업이 2009년에도 계속되었다. 2009년에는 빈곤층 10가구에 젖소 구입비를 각각 60만 투그릭씩 지원하기로 하고, (사)지구촌나눔운동 몽골사업소의 사업진행 7주년을 기념하여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행복한 자르갈란트 주간’ 행사에서 가축은행 수혜식을 진행했다. 또한 사료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건초를 구입하기 위해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6월 건초판매자와 건초구입 계약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사료 부족으로 인한 유량 감소와 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축산시범농장을 방문한 몽골 유목민들에게 축사 짓는 법과 가축 사육법 등을 알려 주는 시간도 가졌다.





15



16

● 자원봉사 부문

SK텔레콤 자원봉사단 활동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행복나눔을 확산하기 위해 2009년 53개 봉사팀, 5,002명의 봉사자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09년 말 현재 자원봉사단 가입률은 94.2%로 2008년에 비해 2.0% 상승했으며, 1인당 봉사시간은 17.3시간이다. SK텔레콤 자원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전국 각 지역 본부별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전개했다.

SK텔레콤 임원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¹⁵

SK텔레콤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협약식을 맺고 2009년 7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함께 하는 행복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총 9회에 걸쳐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는 약 500명의 청소년과 9명의 임원이 참여했다. 또한 SK텔레콤 임원들은 JA Success Skill 워크숍, 고등학생 JA 경제교육, Sunny 하이티쳐 자원봉사자 대상 비전 특강 등 임원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총 25회, 22명의 임원이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SK텔레콤 사회적기업 컨설팅 봉사단의 경영지원 ¹⁶

SK텔레콤은 2009년 3월 10일 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지원 협약식을 맺은 후 5월 14일 ‘사회적기업 컨설팅 봉사단’을 발족했다. 사회적기업 컨설팅 봉사단은 마케팅·상품 기획 등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한 임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사회적기업에 무료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실무자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했다. 사회적기업 컨설팅 봉사단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4개 기관을 대상으로 30명이 참여했다.

| 사회적기업 컨설팅 봉사단 현황 |

지원기업	지원내용	참가자 수
오르그닷	Sales Power 강화방안, 고객 Segment 분석, Survey 진행	10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마케팅, 재무, 상품개발 및 CS교육	8명
우리미래	마케팅, 재무, 상품개발 및 기획교육	6명
바리의꿈	마케팅, 재무,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6명

T-together 고객 자원봉사활동 ¹⁷

SK텔레콤은 T-together를 통해 모집한 고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09년 11월에서 12월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를 펼쳤다.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는 T-together 오픈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고객 자원봉사활동으로,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 적응 및 취약계층 김장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고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총 14회에 걸쳐 담근 김치 1만 4,400포기는 전국의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2,811가구에 전달됐다.



17

고객 자원봉사활동

● 사랑의 김장나눔

일시	2009년 11월 19일~12월 10일
김장규모	1만 4,400포기
대상	저소득·다문화가정 2,811가구
참여인원	914명

● 아이스 페스티벌

일시	2009년 12월 22일
대상	다문화가정·새터민가정 자녀 160명
활동내용	참여아동 인솔·상담·레크리에이션
참여인원	18명

한편 2009년 12월 22일 위커히호텔 아이스링크에서 개최된 ‘아이스 페스티벌’에는 고객 자원봉사자 18명이 참여해, 다문화가정과 새터민가정의 아동 160명에게 스케이트 교육봉사를 실시했다.

SK텔레콤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 ¹⁸

SK텔레콤은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라는 SK의 사회공헌 자산을 계승·발전시켜 2003년부터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운영하고 있다. Sunny는 ‘선한 이’라는 의미이며, SK텔레콤은 패기와 열정을 갖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양교육과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Sunny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10개 지역권별로 대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회원수 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대학생 봉사단으로 성장했다. 2009년에는 약 3,700여 명의 Sunny가 활동했다.

|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활동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하이티쳐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1대1 학습, IT·예체능 교육
행복한 모바일 세상	어르신 대상 1대1 휴대폰 활용교육
해피바이러스	다양하고 전문적인 공연 아이템 개발 및 공연
Global Sunny	해외 자원봉사활동 및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에디터그룹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한 온라인 소통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
I Scream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미디어 및 표현력 교육
주니어 프로보노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전략·마케팅·홍보 지원
지역봉사 프로그램	전국 10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18





19

• 하이티처(Hi-Teacher) 19

전국 80여 개 아동시설에서 연간 1,000명에 달하는 Sunny 하이티처들이 학습·IT·예체능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이티처는 매년 3월과 9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활동 기간은 16주이다. 하이티처로 선발되면 아동과의 활동에 필요한 교재 지원비와 정서 지원비가 지급된다. 하이티처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한 공로로 2009년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행복한 모바일 세상 20

Sunny는 SK텔레콤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휴대폰 활용교육'에 교육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휴대폰 활용교육에는 약 3,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모바일 세대와의 격차를 좁혔다.

•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는 Sunny만의 특색 있는 공연 아이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개월 동안 300명이 활동했으며, 해피바이러스를 통해 미술·악기공연·댄스·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했다.

• Global Sunny의 해외 봉사활동 21

2005년부터 매년 해외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Global Sunny는 2009년에도 베트남·중국 등 해외의 소외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2009년 1월에는 동계 자원봉사활동으로 중국 쓰촨성에서 SK행복소학교 벽화그리기 작업을 전개했으며, 중국 운남성 쿤밍지역을 찾아 농민공학교의 벽과 교실, 책걸상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운남성박물관을 찾은 한국인들을 위해 박물관 내 전시물과 안내방송을 한글화하는 작업도 전개했다. 7월에는 중국 쓰촨성과 베이징에서 아동교육·환경 개보수 등의 활동을, 베트남 님투언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문화교류를 펼쳤으며, 12월에는 중국 쓰촨성과 운남에서 아동교육, 학교 개보수,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총 26회 504명의 Global Sunny들이 중국·베트남·몽골 등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20



21



하이티처 참여인원			(단위 : 명)
연도	봉사자	대상자	
2003	상반기	50	50
	하반기	50	50
2004	상반기	50	50
	하반기	50	50
2005	상반기	90	90
	하반기	130	130
2006	상반기	200	200
	하반기	200	200
2007	상반기	200	200
	하반기	300	300
2008	상반기	300	300
	하반기	500	500
2009	상반기	500	500
	하반기	500	500
합	3,120	3,120	

행복한 모바일 세상

목적 세대간 장벽 없는 모바일 세상 구현
시작연도 2007년
협력기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활동내용 어르신 대상 1대1 휴대폰 활용교육
참여인원 (단위 : 명)

연도	봉사자	대상자
2007	상반기	105
	하반기	252
2008	상반기	210
	하반기	210
2009	상반기	477
	하반기	501
합	1,755	3,040

| Global Sunny 활동 현황 |

연도	장소	활동내용	참여인원
2005	베트남	고엽제 피해 장애인 가족 개보수 등	25명
	방글라데시	카타일 초등학교 환경미화 등	14명
	몽골	축산마을 만들기 등	9명
	홍콩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7명
2006	중국 쿤밍	소수민족마을 지역사회 개발 등	18명
	중국 연길	조선족 지역사회 문화교류 등	20명
	태국	고산족마을 홈스테이 등	19명
	베트남	타이투이 초등학교 화장실 건축 등	34명
	베트남	빈민아동 지원 등	23명
	인도	세계자원봉사대회	9명
2007	베트남	아동교육 및 학교환경 개선 등	20명
	베트남 하노이	극빈 독거노인 집짓기	24명
	베트남 뽀찌	Green Summer Campaign 등	20명
	베트남	문화공연 등	20명
	일본	아태지역 자원봉사자대회	10명
	베트남 뽀찌	교육봉사활동 등	47명
2008	베트남	얼굴기형어린이 수술 보조	4명
	중국 쿤밍	청화대 대학생 문화교류 등	22명
	베트남 뽀찌	교육봉사활동 등	24명
	한국	Welcome to sunny	17명
	중국 쿤밍	운남성박물관 한국어 번역 등	24명
	베트남 뽀찌	교육봉사활동 등	23명
2009	베트남 님투언	교육봉사활동 등	20명
	중국 쓰촨성·베이징	벽화 그리기, 마을홍보 등	20명
	중국 운남	하수도, 차양막 공사 등	16명
	중국 쓰촨성	SK행복소학교 벽화그리기 등	15명
합			504명

• 주니어 프로보노(Junior Probono) 22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와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주니어 프로보노를 신설했다. 주니어 프로보노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는 SK텔레콤 전문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경영 관련 지식 및 재능을 나누었다.

• I Scream 23

I Scream은 미디어(영상, 사진, 디자인,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대학생들이 취약계층 청소년과 멘토를 맺고 작품을 만드는 문화예술봉사활동으로 2009년 신설됐다. 20명의 대학생과 20명의 1318해피존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매개로 자기표현력 및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소통체험을 하고 연말에는 SK텔레콤 T타워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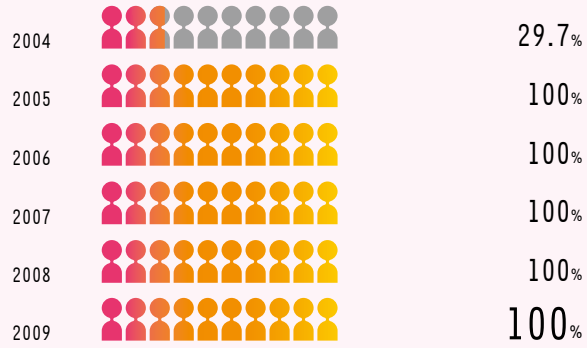
23





SK네트웍스는 기업의 인프라와 구성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는 일시적 봉사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은 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지킴이 활동,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구호활동을 통해 행복한 나눔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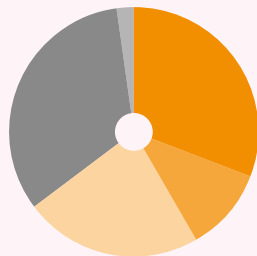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31.54
교육·장학	11.08
문화·예술·체육	23.57
글로벌	33.70
자원봉사	0.11
합	100



(단위 : %)



01

사회복지 부문

1사 1촌 봉사활동 01

SK네트웍스 경영서비스컴퍼니는 도시와 농촌의 유대감 회복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1사 1촌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8년 5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서 2009년에는 모내기, 비료살포, 제조작업, 농산물수확, 벼짚무기 등 일손을 거들었다. 또한 마을 환경미화를 돕고 가평군 농업인 한마당에 참여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농촌사랑을 실천했다.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

SK네트웍스는 2009년 9월 7기 수료생을 끝으로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를 종료했다.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는 사회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아동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청소년(18~25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스피드메이트와 연계한 자동차정비학원 또는 시립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자동차정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에게 스피드메이트 전국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기회 및 취업을 알선해 왔다. 직업교육과 함께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얻었던 스피드메이트 저소득청소년 행복날개는, 200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473명의 전문기술인을 배출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02

SK네트웍스는 SK행복나눔계절을 맞아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영서비스컴퍼니는 서울 창동스포츠문화컴플렉스 만남의 광장에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을 위해, 상사컴퍼니 무역부문은 서울 강동구 고덕2동의 우성원에서 장애우를 위해, 그리고 에너지마케팅컴퍼니 특수제품사업본부 특수제품사업팀은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배달하는데 힘을 모았다. 또 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노인요양시설 안나의집을 방문하여 청소와 김장을 도왔다.

02



연탄나눔 봉사활동 03

SK네트웍스는 SK행복나눔계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춘천지역 저소득가정,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독거노인, 수원 장안구 영화동 및 팔달구, 대전역 인근 저소득가정 등 전국 의 최빈곤 세대에 연탄을 배달했다.

대구·경북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SK네트웍스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영남본부 카라이프 TFT는 대구·경북지역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복지관과 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는, 장애인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까닭에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과 그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환경 부문**지역사회 환경 가꾸는 환경정화활동 04**

SK네트웍스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2009년에도 다양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스피드메이트사업본부는 양재천과 청계산을, 스피드메이트사업본부 수입차마케팅사업부 마케팅 1, 2팀은 분당의 탄천 일대와 경북 봉화의 문수산을, 정보통신컴퍼니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찾아 주변을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활동을 벌였다. 또 통신유통사업본부 부산지사, Customer사업본부 부산영업팀, 통신유통사업본부 물류사업팀은 매일 1회 광안리해수욕장과 금정산을, 에너지마케팅 영남본부·직영팀·부산지사·카라이프 TFT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에너지마케팅컴퍼니 특수제품사업본부 특수제품사업팀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을 정기적으로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충청호남본부 전북지사와 직영팀은 덕유산과 익산 미륵사에서,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Customer사업본부 중부영업팀·통신유통사업본부 물류사업팀은 갑천변과 계족산 및 대전현충원에서,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는 전주천에서,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는 청주 상당산성 한옥마을에서, 에너지마케팅컴퍼니 경기강원본부 영동지사는 경포호수에서 환경보존활동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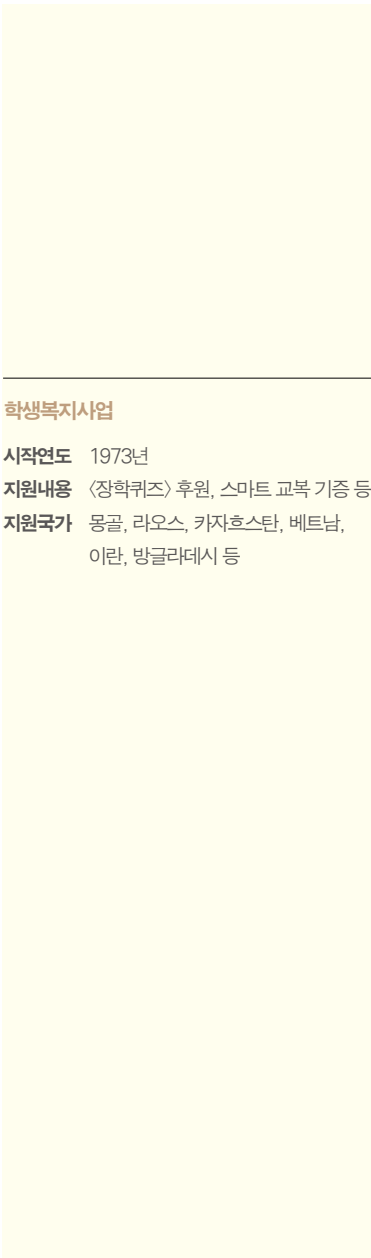
| 환경정화활동 현황|

참여본부·팀	활동지역
스피드메이트사업본부	양재천, 청계천
스피드메이트사업본부 수입차마케팅사업부 마케팅 1,2팀	탄천, 문수산
정보통신컴퍼니	관악산, 청계산
통신유통사업본부 부산지사, Customer사업본부 부산영업팀, 통신유통사업본부 물류사업팀	광안리해수욕장, 금정산
에너지마케팅 영남본부·직영팀·부산지사·카라이프 TFT	광안리해수욕장
에너지마케팅컴퍼니 특수제품사업본부 특수제품사업팀	다대포해수욕장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충청호남본부 전북지사·직영팀	덕유산, 익산 미륵사지
통신유통사업본부 서부지사	전주천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	상당산성 한옥마을
통신유통사업본부 중부지사, Customer사업본부 중부영업팀, 통신유통사업본부 물류사업팀	갑천변, 계족산, 대전현충원
에너지마케팅컴퍼니 경기강원본부 영동지사	경포호수

04



03

**학생복지사업**

시작연도 1973년

지원내용 〈장학퀴즈〉 후원, 스마트 교복 기증 등

지원국가 몽골, 라오스,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란, 방글라데시 등



05

문화·예술·체육 부문**창덕궁 문화재 지킴이 활동 05**

SK네트웍스 상사컴퍼니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창덕궁 인정전 대청소를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인정전 내부의 해묵은 먼지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 건물로 국가의 경사나 결혼, 새해 의식 등 궁궐 내 각종 행사와 외국사신 접견 장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2008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글로벌 부문**중국 국무원부녀아동공작위원회에 스마트 교복 기증**

SK네트웍스는 중국 국무원 산하단체인 국무원부녀아동공작위원회에 원화 30억 4,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스마트 교복을 기증해,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SK네트웍스는 1973년 학생복지사업을 시작한 이래 EBS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등 기증·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2000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해외로까지 확대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몽골, 라오스, 카자흐스탄, 베트남, 이란, 방글라데시 등 생활물자가 부족한 국가에 스마트 교복을 기증하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중국 희망소학교 지원 06

2008년 12월부터 중국 희망소학교를 지원해 온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은 2개월에 한 번씩 희망소학교를 방문하여 도서 기증, 학생들의 생일축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희망소학교에 1,000권의 도서를 기증했으며 도서관 현판식을 진행했다.

중국 심양시 황고구 사회복지원 봉사활동 07

SK네트웍스 중국투자유한공사는 매일 둘째 주 토요일마다 중국 심양에 위치한 황고구 사회복지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 12월 중국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SK네트웍스 중국투자

06



07





08

유한공사는 양로원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4년째 다양한 자원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9년에도 매월 생일축하행사를 비롯하여 신년회, 추계야유회, 교자만두 만들기 등의 행사를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한편, 세탁기와 침대 시트 등도 후원했다.

자원봉사부문

사랑의 찐빵나눔 08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은 매월 1, 3주 토요일 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찐빵을 직접 만들어 함께 나누는 ‘사랑의 찐빵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된 사랑의 찐빵나눔에는 현재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또한 협력업체와도 더불어 사랑의 찐빵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3일 이창규 사장과 임직원 35명은 협력업체 임직원 10명과 함께 어린이양육시설 남산원을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찐빵 만들기, 응벽 보수공사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밥퍼나눔 봉사활동 09

SK네트웍스는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밥퍼나눔’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 6월 5일 이창규 사장과 상사컴퍼니 Prestige사업 부문 임직원 22명은 하나님의집 교회가 주관하는 용산역 밥퍼나눔 현장을 찾아 무료급식 배식활동을 펼쳤다. 상사컴퍼니 Prestige사업 부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84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기부금을 후원했다. 또 SK네트웍스 무역부문은 밥퍼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밥퍼저금통 100개와 겨울 방한복을 밥퍼나눔운동본부에 기증했으며, 에너지마케팅전략본부도 매달 청량리밥퍼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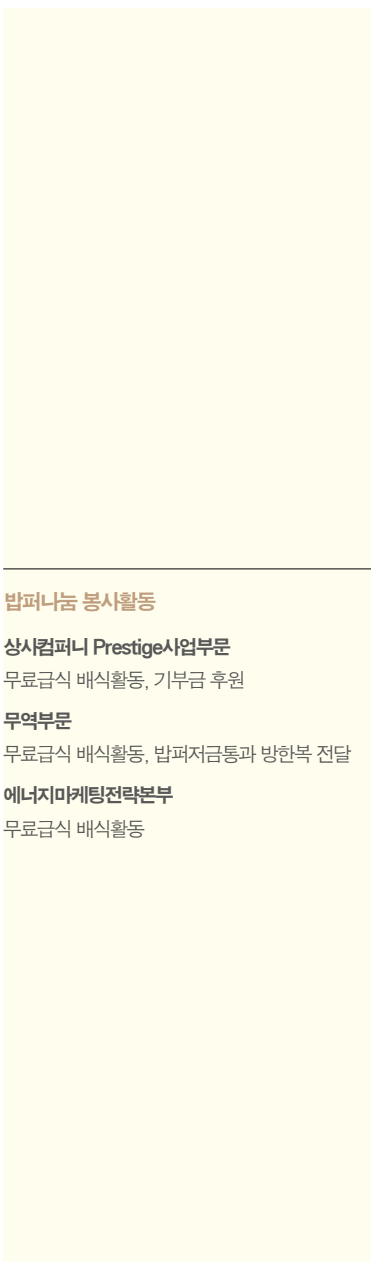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도시락·반찬·세탁물 배달 10

SK네트웍스는 전 사업부문에서 무의탁노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신서비스사업본부는 서울 중구의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주 1회 조별(4인)로

09



098



밥퍼나눔 봉사활동

상사컴퍼니 Prestige사업부문

무료급식 배식활동, 기부금 후원

무역부문

무료급식 배식활동, 밥퍼저금통과 방한복 전달

에너지마케팅전략본부

무료급식 배식활동



10

무의탁노인에게 도시락과 세탁물을 배달하고 있으며, 무역부문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매월 2, 4주 금요일 복지관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무의탁노인에게 배달하고 빈 도시락을 수거하는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서울본부 영업기획팀은 서울 수서종합사회복지관·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매주 1~2회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과 반찬 배달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카라이프(Car-Life)부문 유통사업본부는 매주 목요일 서울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밀반찬을 배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영남본부 경남지사도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마산지역 재가세대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 독거노인에 도시락·반찬·세탁물 배달 |

사업부	연계기관	활동내용
통신서비스사업본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매주 1회 도시락·세탁물 배달
무역부문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매월 2회 도시락 배달 및 수거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서울본부 영업기획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외 2곳	도시락·반찬 배달 및 설거지
카라이프부문 유통사업본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밀반찬 배달
에너지마케팅컴퍼니 영남본부 경남지사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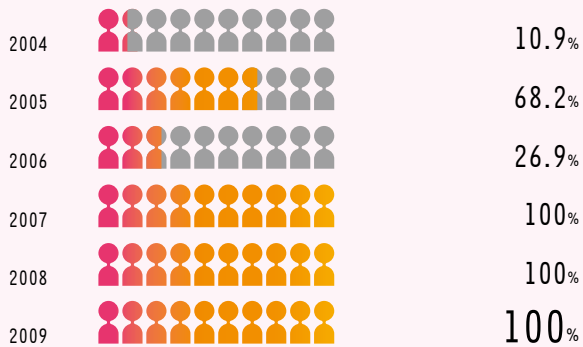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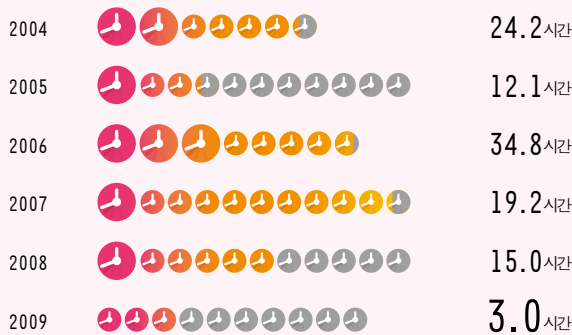


인류 건강과 지구환경중심 경영을 통해 그린케미칼과 라이프사이언스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SK케미칼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명의 수호천사이자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는 SK케미칼 자원봉사단은 장기적 계획과 비전으로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발길을 내딛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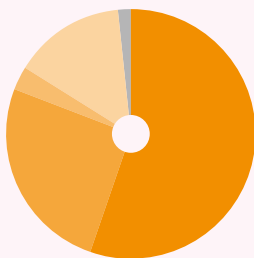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57.02
교육·장학	26.07
환경보존	1.01
문화·예술·체육	14.95
자원봉사	0.95
합	100



(단위 : %)



01

실버극장 개요

개관	2009년 1월 21일
위치	서울시 중구 낙원상가 내 (허리우드극장)
관람료	1인당 2,000원
상영 영화	최신 영화, 추억의 명화 및 방화
특징	극장 최초로 사회적기업 인증

2009년 대북의약품 지원

목적	'남북적십자간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에 의거한 대북의약품 지원
지원내용	4,500만 원 규모의 의약품
비고	2007년과 2008년의 3,000만 원 보다 금액 증대

환경 Core Group

내(川)사랑 동호회	보호대상 하천 발굴 및 선정, 하천 보호
Seed Bomb 동호회	중국의 사막화와 토양유실 방지 위해 Seed Bomb 연구

사회복지 부문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 실버극장 후원 ⁰¹

SK케미칼과 서울시·서울시의회 후원하에 서울 중구 낙원상가의 허리우드극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극장'으로 탈바꿈했다. 2009년 1월 21일 개관한 실버극장은 57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편당 2,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최신 영화, 추억의 명화, 추억의 방화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젊은 세대에 밀려 소외되었던 노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또한 영화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소개하는 등 노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09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실버극장에 SK케미칼은 월 2,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활동으로 SK케미칼은 서울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대북의약품 지원 사업 후원

SK케미칼은, '남북적십자간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에 의거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대북의약품 지원 사업을 후원했다.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이 지원 사업에 SK케미칼은 항생제 '아모라나 625', 몸살감기약 '타디펜연질캡슐' 등 4,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의 지원 규모인 3,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환경보존 부문

환경 Core Group 운영

SK케미칼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을 전담할 환경 Core Group으로 '내(川)사랑 동호회'와 'Seed Bomb 동호회'를 구성하여 2009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내(川)사랑 동호회는 SK케미칼의 중장기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인 '하천살리기'를 전담하는 팀으로, 보호대상 하천을 발굴·선정하고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川)사랑 동호회는 2010년 6월까지 보호대상 하천을 선정할 계획으로 왕숙천과 탄천을 비롯하여 용인·하남·광주·이천·여주 등의 하천을 조사했으며, 양재천 외래식물 제거 및 청계산 옛골 입구 정화활동을 펼쳤다. 한편 Seed Bomb 동호회는 사막화와 토양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팀으로,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Seed Bomb'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Seed Bomb'는 씨앗과 토양을 넣은 캡슐을 공중에서 떨어뜨렸을 때 캡슐 속의 씨앗이 일정 크기로 자라 본래 토양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설계된 일종의 씨앗 폭탄을 가리킨다.

향후 SK케미칼은 내(川)사랑 동호회와 Seed Bomb 동호회 등의 환경 Core Group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전문적인 환경사랑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02

제1회 환경사랑 오산사랑 그림·글짓기대회 후원 02

SK케미칼은 6월 13일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한 '제1회 환경사랑 오산사랑 그림·글짓기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오산시청 앞 운암제2중앙공원에서 열린 대회에는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16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환경·오산·나눔'을 주제로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글과 그림 각 10점씩에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자원봉사 부문

사랑의 김장봉사 03

SK케미칼은 11월 3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가 이를 전달했다. 김창근 부회장을 비롯 김장봉사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미리 준비한 절인 배추에 김칫소를 넣어 김치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SK케미칼 '사랑의 김장봉사'는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 2009년 5회째를 맞았다.

안산 선심노인의집 봉사활동 04

SK케미칼 안산공장 18명의 임직원 봉사자들은 매 분기 마지막 토요일마다 안산 선심노인의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는 어르신들을 위해 임직원들은 방문할 때마다 약 50만 원어치의 부식을 지원하는 한편 목욕보조, 손발톱정리, 청소, 빨래 등으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장애인과 함께 한발 두발 걷기대회 봉사활동 05

SK케미칼 오산공장은 2009년 제29회 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오산시 '장애인과 함께 한발 두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에게 재활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4월 9일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200여 명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 사는 동안 부딪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안산 선심노인의집 봉사활동	
일시	매 분기 마지막 토요일
활동내용	부식 지원(약 50만 원) 목욕·청소·빨래 등
참여인원	18명



05

광명원의 사랑과 행복 나누기 지원 06

SK케미칼 울산공장은 격월로 시각장애인시설 광명원 원생과 함께 야외나들이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광명원 원생 25명을 경주 보문단지로 초청해 '사랑과 행복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울산공장 직원들은 2인 1조로 시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운동경기 및 장기·노래자랑 등을 함께 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시설 '우리집'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사업장별 기타 봉사활동

본사	수원공장
사랑의 헌혈행사 한여름바자회에 아토파인 화장품 지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4회) 사랑의 반찬나르기(14회) 독거노인 지원(매월)
울산공장	LS Biz. 본사
처용근린공원에서 오물수거, 전지작업(매월) 광명원에서 야외나들이 보조, 레크리에이션(격월) 우리집에서 시설 청소, 재활일손 돕기(격월) 결손가정 집수리(연 2회), 생일잔치(매월) 1사 1촌에 온천관광 지원, 마을회관 TV 기증, 배 수확 일손 보조(연 4회)	한국우진학교 현장학습체험 지원(연 3회) 김태영후원회·김지형후원회·잔디회·민들레울· 가브리엘의집 기부(매월 급여일) 오산공장 행복한 봄나들이(연 1회) 고현초등학교에 행복도서 기증(연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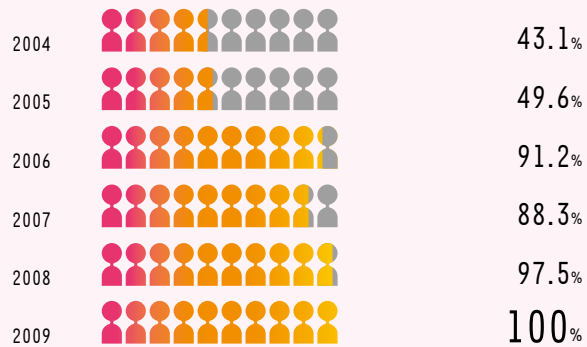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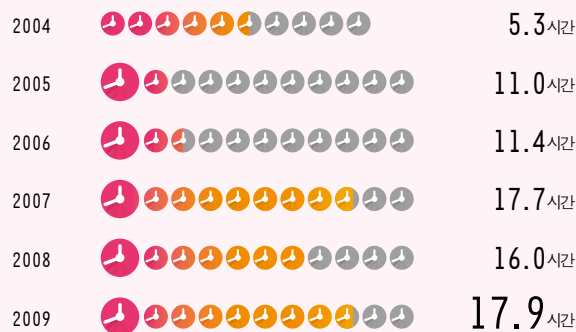


지속적인 기업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SKC는 사회공헌활동에서도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기부와 봉사를 뛰어넘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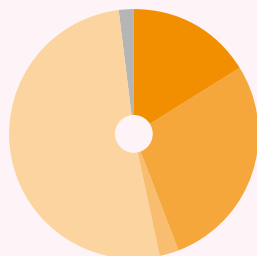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16.34
교육·장학	28.54
환경보존	1.26
문화·예술·체육	52.13
자원봉사	1.73
합	100



(단위 : %)



01

● 사회복지 부문

현충원 환경 조성 01

2008년 10월 1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SKC는 현충원의 19묘역(총 911기)을 SKC 자매결연묘역으로 지정해, 연 2회 조화를 기증하고 있다. 또한 매월 1~2회 방문하여 묘비닦기, 묘비글씨 덧쓰기, 잡초제거, 현화교체 등 현충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에도 총 13회에 걸쳐 86명의 임직원이 결연묘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심장병어린이 돕기 폐휴대폰 수거 02

SKC는 '국내외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 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본사를 비롯한 수원·울산의 전 사업장에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거한 약 200여 개의 폐휴대폰은 6월 23일 구세군에 전달됐다. 폐휴대폰 수거는 구세군이 처음 시행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구세군은 지난 1995년부터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을 위해 매년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보훈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쌀 나눔

SKC 울산공장은 12월 19일 울산보훈지청과 공동으로 울산공장 후생관에서 '보훈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담그기·쌀 나눔' 행사를 전개했다. 이 행사에는 SKC 자원봉사단·사원부인·보훈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직접 담근 김치 1,000포기와 지역 농협에서 구입한 쌀 3,700kg을 보훈가족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담근 김치는 20kg 용기에 담아 쌀 교환권과 함께 울산 저소득 보훈가족 200가구에 배달했다.

정자1동 경로잔치 03

SKC 수원공장은 5월 14일 수원 정자1동 주민자치회·SK케미칼·SK건설과 합동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가 열린 SKC 주차장은 초청가수의 공연,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의 합창, 댄스 스포츠 공연, 정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져 흥겨운 축제의 마당이 되었다. SKC·SK케미칼·SK건설 임직원들은 이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폈다.

02



03





04

● 환경보존 부문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한강 정화활동

SKC는 환경을 보존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1사 1하천 1산 1공원 1문화 가꾸기’ 활동을 2009년에도 활발하게 벌였다. 깨끗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75여 명은 매달 1~2회 한강 잠원지구를 찾아 쓰레기줍기·잡초제거 등의 한강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아동학습 애벌레 마을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호와 보존을 함께 실천했다.

간월산 산불예방활동

SKC 울산공장 임직원은 11월 7일 겨울철 산불예방활동 캠페인을 펼쳤다.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주군 간월산 일대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은 숲사랑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금지 홍보와 더불어 등산로와 계곡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수거활동도 함께 이뤄졌다. 산불예방활동은 울산시 능동산 배내재에서 간월산, 간월재, 간월산장에 이르는 8km구간에서 펼쳐졌으며, 지역주민과 SKC 울산공장 임직원 모두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문화·예술·체육 부문

창립 33주년 기념 세계문화유산 가꾸기 04

SKC는 33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임직원 370명이 모인 가운데 수원시립유산인 무예 24기의 공연을 관람하고, ‘무예 24기 보존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SKC 최신헌 회장과 박장석 사장을 비롯한 본사·수원공장 임직원은 공연 관람 후 조선 정조대왕의 거처로 사용되던 화성행궁(行宮)의 창호지 교체, 마루청소, 누각청소와 함께 인근 팔달산 잡목제거활동을 진행했다.

● 자원봉사 부문

사랑의 도시락배달

SKC 울산공장은 2005년부터 울산 남구 선암동·상개동에 거주하는 15세대의 독거노인에게 매주 목요일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100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도시락배달 자원봉사팀은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목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한편, 독거노인들의 건강 및 일상적인 애로사항을 동자치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강 정화활동

목적	서울 잠원지구 환경보존
일시	매월 1~2회
참여인원	75여 명

세계문화유산 가꾸기

참여인원 총 370명	지원금액 3,000만 원

사랑의 도시락배달

시작연도	2005년
지원대상	울산 선암동·상개동 독거노인 15세대
일시	매주 목요일
참여인원	100명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유지·보수

횟수 6회	참여 연인원 184명



05

협력업체와 사랑의 연탄나르기 05

SKC는 매년 SK에너지와 (사)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이 주관하는 ‘사랑의 연탄나르기’에 참여해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에는 SKC 임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까지 참여해 서울 수색역 인근의 8개 가구에 총 2,4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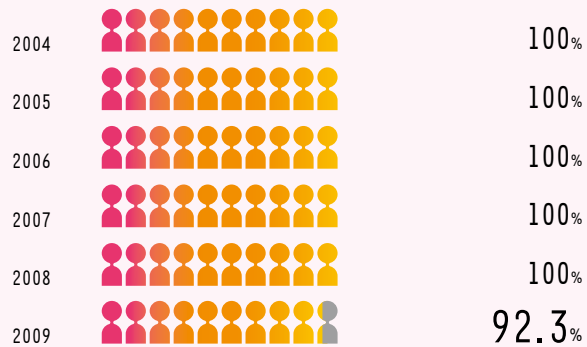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유지·보수

SKC 수원공장은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 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요양원의 냉난방 공조시스템, 주방 특수 환풍기를 점검·정비하는 한편, 휠체어 수리·환경미화활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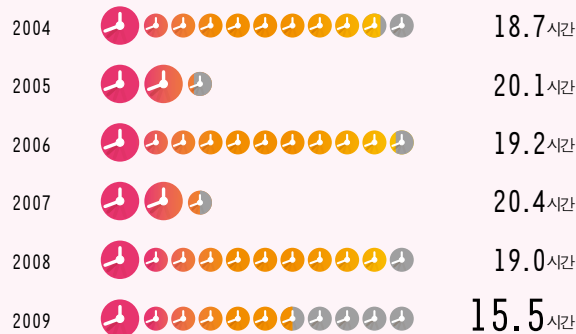


SK C&C는 행복한 상생을 목표로 'IT를 활용한 사회공헌'과 '행복한 참여를 위한 전 구성원의 자원봉사'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CEO를 포함한 구성원 3,200여 명이 참여하는 29개 봉사단은 29개의 복지기관과 결연을 맺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 중이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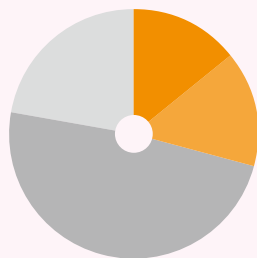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14.23
교육·장학	15.22
자원봉사	48.31
기타	22.24
합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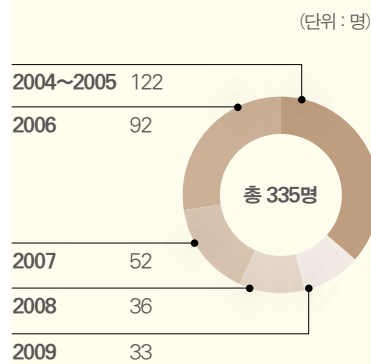


(단위 : %)

희망의 PC 기증

목적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가정 학생, 국내외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6년 동안 PC 총 2,739대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교육생



01

사회복지 부문

희망의 PC 기증 01

IT 역량을 발판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SK C&C는 6월 14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본사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6회 희망의 PC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PC(노트북)를 받은 학생들은 성남지역 저소득가정의 대학 신입생과 초·중·고교생 및 재가 장애인들로, 이 중에는 SK C&C 행복장학금 수혜학생과 봉사활동 수혜 재가 장애인도 포함돼 있다. 이 행사에서 기증한 PC는 총 500대로, 정보소의 계층들이 사회와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하며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되었다. SK C&C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몽골의 울란바타르, 수원시, 한국장애인IT협회, 굿네이버스 등 국내외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총 2,739대의 PC를 전달했다. 한편 SK C&C는 일산과 성남에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장학 부문

장애인 무료 IT교육원 02

SK C&C는 IT서비스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IT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은 2004년 6월 경기도 성남에 교육원을 처음 개원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공한 일산의 교육장소에 두번째 교육원을 열었다. 2009년 장애인 무료 IT교육원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웹·그래픽 디자인, 모바일 콘텐츠, 닷넷 프로그램, 자바 개발자, 오피스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 33명의 교육생 중 27명이 IT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02





03

SK C&C 행복장학금 03

SK C&C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월 23일 성남지역의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50명에게 ‘SK C&C 행복장학금’ 7,600만 원을 전달했다. 5년째 지속되어 온 SK C&C 행복장학금은, 회사 차원의 단순 기금출연이 아니라 매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공제를 통해 조성되고 있다. 장학금을 받은 50명의 학생들은 성남시 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지역의 복지 관련 주요 기관장·시의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SK C&C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213명의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2억 2,390만 원의 행복장학금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IT 특강 04

SK C&C는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IT 기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IT 특강’을 실시했다. ‘미리 가 보는 투모로우 시티’란 주제로 진행된 이 특강은 11월 23일 서울 한영고를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2주간 서울·경기·성남 일대의 35개 학교 1만 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미래의 최첨단 IT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학능력시험 이후부터 성적 통지일까지 되풀이되는 고3 교실의 수업 공백을 해소하고 고3 수험생의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IT 특강은, 가상현실 분야의 u-패션,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는 u-캠퍼스 등 주거·환경·교통·쇼핑·대학 등의 미래생활을 조명하는 한편, SK C&C와 SK가 함께 구축한 송도국제도시의 최첨단 미래도시 ‘투모로우 시티(Tomorrow City)’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2007년 SK C&C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지역의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IT 특강은 매년 그 대상과 지역을 늘려 가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신입사원 봉사활동 05

SK C&C 신입사원 100여 명은 1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 승가원 자비복지타운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행복나눔의 기업정신을 몸으로 익혔다. 신입사원들은 이날 승가원의 강당·식당 등 주요 시설물 청소, 산책로·꽃밭 정리 등의 환경미화활동을 전개했다. 또 추운 날씨로 인해 좀처럼 실외활동을 하지

04



05



행복장학금

시작연도	2005년
모금방식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
지원대상	성남 저소득가정 학생 213명 (5년 누적)
지원금액	2억 2,390만 원(5년 누적)

행복나눔 김장담그기

목적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지원대상	성남지역 독거노인·저소득가정 500여 세대

지원내용 (단위 : 포기)

2006	2,000
2007	1,000
2008	2,500
2009	2,500

총 8,000포기

참여인원

	임원	구성원	
2006	50	150	200
2007			80
2008	49	121	170
2009	30	150	180

총 630명



06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산책 보조, 보물찾기 등 다양한 야외활동도 함께 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은 SK C&C의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SK의 사회공헌 및 기업문화를 배우고 현업 부서에서도 계속되는 봉사활동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임직원 가족 행복나눔의 달 06

SK C&C는 8월 한 달을 ‘임직원 가족 행복나눔의 달’로 선포하고 임직원 가족이 참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46가족 160여 명은 한 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한사랑장애영아원,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삼육재활관, 한빛맹아원 장애아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SK C&C는 물놀이, 야외스파체현, 동물농장체험, 도자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장애아동과 임직원 가족이 보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임직원 가족 행복나눔의 달 행사는 2005년부터 매년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되던 행복나눔 가족캠프를 확대한 것으로, 장애아동에게는 가족의 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임직원 가족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행복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농촌사랑 행복나눔 07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 120여 명의 임직원들은 6월 안산 대부동 저소득 영농가정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철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고추와 포도 수확, 수확물포장·출하지원, 마을 약수터 보수작업 등 일손이 부족하여 미뤄지고 있던 마을 일을 도왔다. 또 이날 직접 수확한 포도 200박스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그동안 봉사활동을 해 온 성남지역 독거노인 200세대에 전달했다.

행복나눔 김장담그기 08

SK C&C는 11월 19일 성남 송림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YMCA와 함께 김장김치 2,500포기를 담가 지역 500여 세대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에 전달했다. 2009년으로 5회째를 맞은 ‘행복나눔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김신배 부회장 및 전 임원 등 경영층과 구성원 총 180명이 참여하여, 직접 양념을 만들고 절인 배추의 물을 짜고 김치속을 넣으면서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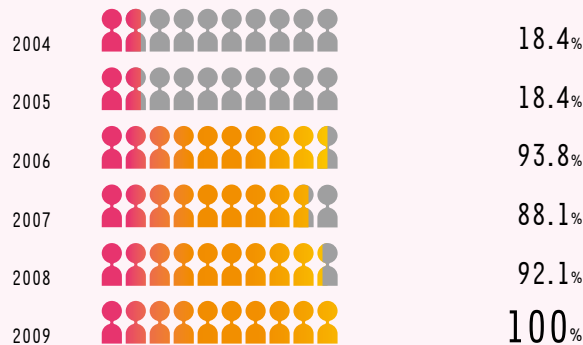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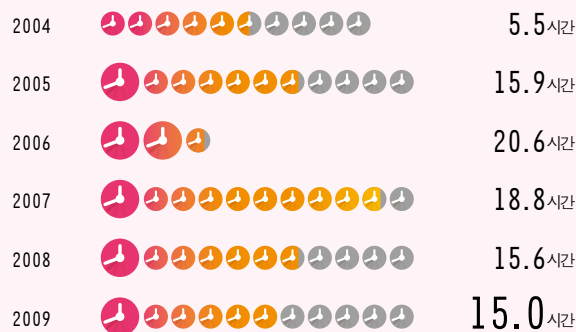


SK건설은 기업의 특성과 역량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중부·영남의 4개 고객센터가 매일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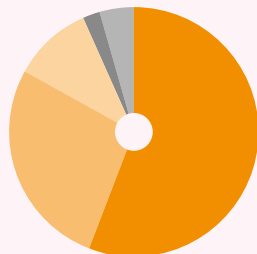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56.10
환경보존	26.99
문화·예술·체육	10.33
글로벌	2.41
자원봉사	4.17
합	100



(단위: %)



01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단위: 가구)

주요활동 생활불편, 미관, 누수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 보수 및 생필품 전달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복기금'

시작연도 2006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참가 계기

기금조성 원주할 경우 4,000원 기본 1구좌로 최대 25구좌, 10만 원까지 기부 가능

활동내용 서울숲 내에 'SK건설 나눔의 숲' 330m² 입양, 주거환경 개선대상 가정 지원, 복지시설 대상 필요용품 지원

참여인원 사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 33명 외 SK건설 직원 다수

사회복지 부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01

SK건설은 2006년 4월 시작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시발점으로 전국 4개 고객센터(서울·수도권·중부·영남)에서 매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일 저소득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장판 교체, 바닥재 재시공, 지붕보수, 싱크대 교체, 도장 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쌀을 비롯한 생필품 등도 전달하고 있다. 2009년 12월까지 총 171가구의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SK건설은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경기도지사·수원시장·의정부시장 표창 등 지자체로부터 다수의 감사패를 받았다.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02

SK건설 마라톤동호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기부로 마련한 행복기금은 연말에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2009년에는 총 2,700여 만 원의 행복기금을 마련하여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우리 동네 숲'을 후원했으며, 2010년 저소득가정에 기증할 예정인 농협 상품권과 쌀을 미리 구입해 각 고객센터에 전달했다.

또한 SK건설은 임직원들이 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겨자씨 사랑의집·라파엘의집·청운양로원·송죽원·어린이 쫓물왕국·몽골학교 등에 세탁기·휠체어·컴퓨터 등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마련해 지원했다.

02





03

● 환경보존 부문

서울숲 가꾸기 03

SK건설은 매주 1회 서울숲을 방문해 공원 내의 '나눔의숲'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데 동참하고 있다. 나눔의숲은 2008년 '행복나누기 자선레이스' 행복지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숲 내 330m² 규모로 조성됐다. 임직원 봉사단은 2009년 한 해 동안 습지생물관리, 열매줍기, 잡초제거, 낙엽쓸기, 월동준비 등 서울숲의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계절별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 봉사활동 04

SK건설 자원봉사단은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3차례에 걸쳐 임직원 가족이 함께 하는 친환경 봉사활동을 가졌다. 3월에는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에서 가족나무심기활동을, 5월에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인근의 탄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에서 위해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인 물억새를 심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10월에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인근의 숲에서 '사랑의 땀감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숲을 가꾸고 인근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활동으로, 숲의 나무를 속아 베는 간벌작업으로 발생한 가지들을 땀감으로 전달했다.

1산 1천 1로 가꾸기 05

SK건설은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동시에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2009년 SK건설 본사 자원봉사팀은 한강 양화지구와 이촌지구·관악산·남산에서 매월 두 차례씩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전국 각 지방 현장에서는 현장 인근의 산·하천·가로 중 1개 장소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관리 및 수목가꾸기 활동을 펼쳤다.



05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 봉사활동

시작연도	2005년
활동내용	• 3월 가족나무심기활동 (북서울 꿈의 숲) • 5월 위해식물 제거, 자생식물 모종 (탄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 10월 사랑의 땀감 나누기

1산 1천 1로 가꾸기

활동지역	현장 인근의 산·하천·가로
활동내용	환경관리, 수목행사, 새집 지어주기 등
참여인원	전국 지방 현장 임직원



06

● 글로벌 부문

태국 송끄란축제 지원 06

태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 진출해 온 SK건설은 국내 현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근로자를 위해 2007년부터 한국 주재 태국대사관에서 개최하는 송끄란축제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송끄란축제는 태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로 태국 고유의 설날 축제이다. SK건설은 1회 때부터 송끄란축제를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고 있다.

● 자원봉사 부문

복지시설 봉사활동 07

SK건설 자원봉사단은 매주 1회 노인·장애인·아동 복지단체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 라파엘의집에서 아이들 간식 먹여 주기, 생활실 청소, 사직공원 산책하기 등의 생활보조 자원봉사활동을 가졌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결손가정아동시설 송죽원에서도 생활실 청소 및 아이들 돌보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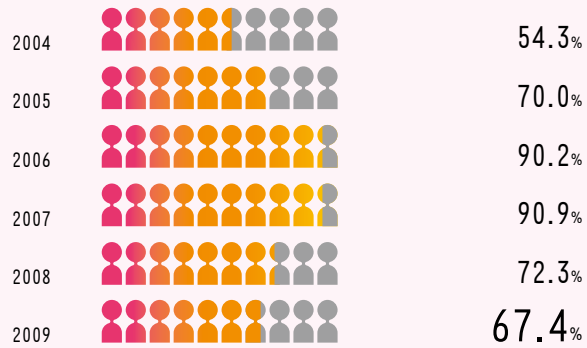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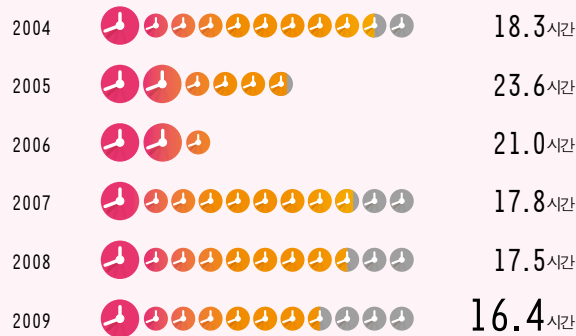


SK해운은 해운회사의 역량과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조직한 수상구조대를 통해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여름해양캠프', '한강시민공원 수상체험활동'은 장애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해양레저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삶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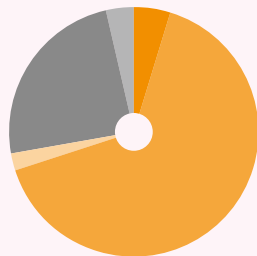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4.54
교육·장학	65.34
문화·예술·체육	2.28
글로벌	24.23
자원봉사	3.61
합	100



(단위: %)

장애우 한강수상체험활동



어린이 사랑방 학습지도



01

사회복지 부문

장애우 한강수상체험활동 01

SK해운 수상구조대는 9월 23일 한강시민공원에서 'SK해운과 함께 하는 장애우 한강수상체험활동'을 가졌다. SK해운 결연단체인 울타리공동체·광진학교·정문학교의 학생들을 초청해 진행된 이 행사는 장애우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초청된 장애우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 1로 도와준 SK해운 수상구조대 덕분에 두려움을 잊고 모터보트·바나나보트·고무보트 등의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었다.

교육·장학 부문

어린이 사랑방 학습지도

SK해운 학습지도팀은 2009년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방과후학교를 총 28차례 방문하여 학습을 도왔다. 봉사자들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위해 연 '어린이 사랑방'을 찾아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지도했다.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가정 자녀들을 위한 이 활동은 지난 2004년 시작한 이래 6년째 지속되고 있다.

해양소년단 총재 찬조금 지원 02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SK해운 황규호 사장은, 해양소년단원들이 바다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찬조금을 지원했다. 한국해양소년단은 해양에 대한 교육과 보존·보호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유산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청소년단체이다. SK해운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리더십 캠프, 무인도 탐사, 여름해양학교, 해양환경정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바다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 및 해양 정신을 고양시키고 있다.

02





03

문화·예술·체육 부문

제6회 청소년 해양캠프 03

SK해운 해양캠프팀은 서울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및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초·중등생 장애우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80명을 초청하여,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주문진읍의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청소년 해양캠프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해양캠프는 참가자와 자원봉사자가 1대1로 한조를 이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패기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2007년부터 참가대상을 장애우로 확대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

도시락나눔 봉사활동 04

SK해운 도시락나눔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어 경로식당까지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1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총 31명이 50차례에 걸쳐 도시락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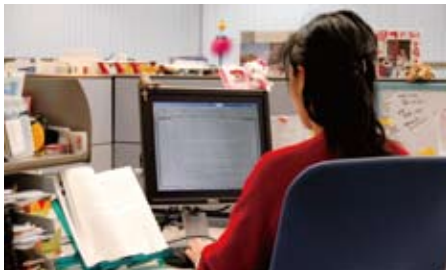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제작 봉사활동 05

SK해운 손가락출판사 봉사단은 활자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도서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자들이 시집과 소설 등을 한글(HWP) 파일로 입력한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은 변환 프로그램만 거치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도서를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SK해운 13명의 직원은 각각 평균 6시간씩, 연간 총 416시간에 걸쳐 인기 서적들을 컴퓨터로 입력했다.

04



05



도시락나눔 봉사활동



봉사횟수
50회



참여 연인원
31명



1회 평균
참여인원
2.4명

음성도서제작 봉사활동



참여 연인원
13명



1회 평균
참여인원
6명



1회 평균
봉사시간
6시간



06

사랑의 연탄나눔

일시 2009년 10월 29일

지원대상 서울 용산구 후암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1,000여 장의 연탄과 쌀



07

별룬아트 봉사활동 06

SK해운은 서울사회복지경기대회 및 SK행복나눔바자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별룬아트 풍선을 만들어 주는 활동을 펼쳤다. 사람·나무·강아지 등 다양한 모양을 표현한 풍선으로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사랑의 연탄나눔 07

SK해운 황규호 사장과 임직원 38명은 10월 29일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에 참여해,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에 1,000여 장의 연탄과 쌀을 전달했다. 연탄의 온기만큼이나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 SK해운은 지난 2006년부터 4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어르신 목욕 보조

SK해운 목욕봉사 봉사단은 매월 1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주지 인근 목욕탕을 찾아 목욕을 도와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활동은 독거노인들의 몸을 씻어 드리는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까지 씻어 드리는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울타리공동체 봉사활동 08

SK해운 농활봉사단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인보호시설 울타리공동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농사일을 돕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쌓아 가고 있다. 2009년에도 모두 4차례 울타리공동체를 찾아 시설 장애인들과 어우러져 농사를 짓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등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었다.

김장담그기 봉사활동 09

SK해운 매칭그랜트 봉사단은 10월 29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여 이웃을 위한 김치를 담그는 데 일손을 보태고 기부금을 전달했다.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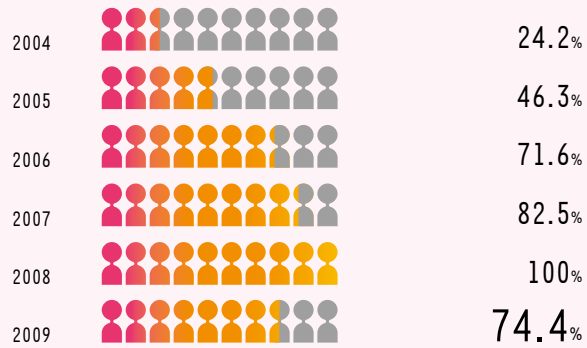
09





SK증권은 2004년 7월 20일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연간 근무 1% 범위 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경제교실'은 전사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소비·저축·신용 등 경제 관련 기초지식을 전달해 청소년 금융지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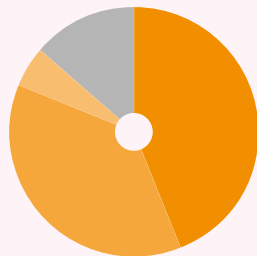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43.69
교육·장학	37.05
환경보존	5.10
자원봉사	14.16
합	100



(단위 : %)

사회공헌적립펀드

기금조성 임직원 급여·우수직원 포상·바자회 등으로 발생한 기부금을 회사와 공동출연(매칭그랜트) 형태로 운영
지원대상 복지시설 및 공익기관

청소년 경제교실

2008 17개 초·중·고교 대상
2009 50여 초·중·고교 대상



01

사회복지 부문

사회공헌적립펀드 01

SK증권은 임직원의 급여, 우수직원 포상, 바자회 등의 제도 및 사내 각종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령액 일부를 적립하는 '사회공헌적립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획된 SK증권의 사회공헌적립펀드는 매칭그랜트 형태로 운영되어 2009년 12월 현재 총 970만 원이 적립되었다. 이 기금은 향후 복지시설 및 공익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교육·장학 부문

청소년 경제교실 02

SK증권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경제관과 올바른 소비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 경제교실'을 전국 각 지점 단위로 연중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7개 초·중·고교 2,800여 학생에게 소비·저축·신용 등 경제 관련 기초지식교육을 펼친 SK증권은 2009년에는 금융교육 집중지원 대상을 전국 50여 개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임직원을 파견하여 살아 있는 경제지식을 전달했다. 특히 이현승 사장은 신정여상·미림여자정보고·해성국제컨벤션고의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교실'을 통해 경제상식 및 직업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SK증권은 2009년 10월 12일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지원금을 비롯해 참가대상 모집 및 일정 수립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02





03

● 환경 부문

여의도공원 환경정화활동 03

SK증권은 2009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본사 중심으로 여의도공원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의도공원 환경정화활동은 그립 환경위원회의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강화 정책과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환경정화 구역을 여의도공원에서 한강공원 여의도지구 일대로 변경해, 더욱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지역 봉사활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자원봉사 부문

독거노인 및 노숙자 무료급식 봉사활동 04

SK증권 기업문화실,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실, 감사위원회 봉사단은 매월 2회 광야교회를 방문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가졌다. 10여 명의 임직원 봉사자들은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마다 무료급식 배식에서부터 설거지까지 부족한 봉사 일손을 돕는 한편, 매월 쌀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165명의 임직원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1회 30만 원씩 연간 570만 원을 지원했다. 광야교회는 22년 전부터 영등포 쪽방촌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남 소망의집 봉사활동 05

SK증권 봉사동호회 나눔회와 리서치센터·자산운용본부 임직원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교남 소망의 집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에는 150명의 임직원이 총 2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쳤다. 나눔회는 주말마다 교남 소망의집을 방문해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한 저녁식사 준비와 배식, 청소를 돕고 있다. 또 리서치센터와 자산운용본부는 2005년부터 평소 외출이 어려운 원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2008년, 서울 강서구청장 표창장과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04



05



무료급식 봉사활동

일시	매월 2회
지원내용	무료급식 및 쌀 지원
지원금액	30만 원 / 1회 570만 원 / 연간
참여 연인원	165명

교남 소망의집 봉사활동

봉사횟수 22회	참여 연인원 150명	지원금액 188만 9,320원

사랑의 도시락배달

일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지원대상	서울 마포구 공덕동 독거노인 50여 명
지원금액	218만 2,200원
참여인원	48명

막달레나의집 지원

봉사횟수 5회	참여 연인원 33명	지원금액 190만 7,730원

청소년 선도활동

봉사횟수 5회	참여 연인원 45명	지원금액 165만 7,210원



06

사랑의 도시락배달 06

SK증권 자산관리지원본부 임직원 48명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50여 명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봉사를 펼치고 있다. 자산관리지원본부 임직원들은 2009년 5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마포사랑봉사회와 연계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직접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고 빈 도시락을 수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일도 함께 하고 있다.

막달레나의집 지원 07

SK증권 광주지점은 시각장애인의 쉼터인 막달레나의집을 방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2009년 33명의 임직원들은 막달레나의집을 총 5차례 방문하여 시설을 청소하는 한편, 외출이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무등산을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광주지점 임직원들은 방문 때마다 막달레나의집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청소년 선도활동 08

SK증권 마산지점은 창원에 위치한 청소년선도보호시설인 범숙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을 펼쳤다. 꿈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뤄 가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활동에, 마산지점 임직원들은 범숙학교의 연말공연을 지원하고 가족공동체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친교활동을 벌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45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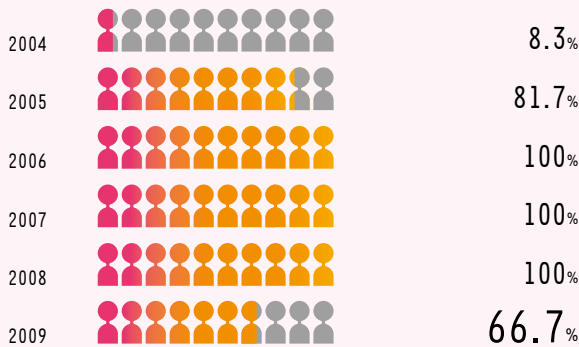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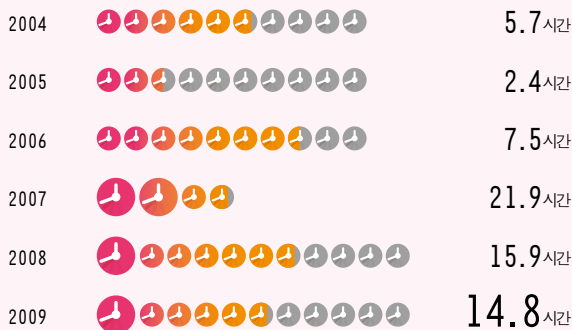
WALKERHILL

엔터테인먼트 리더 워커힐은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지속적으로 아차산 자연보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을 가꾸는 한편, 민속공연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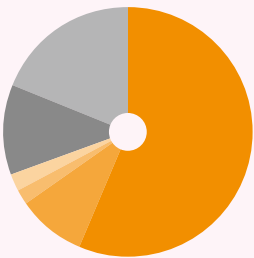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단위 : %)

사회복지	57.24
교육·장학	9.09
환경보존	1.34
문화·예술·체육	1.44
글로벌	11.76
자원봉사	19.13
합	100



01

사회복지 부문

1인 1후원 계좌 가지기 01

CEO와 워커힐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1인 1후원 계좌 가지기'가 2009년에도 진행되었다. 매월 모인 성금은 광진문화원·화성영아원·하늘이네집을 후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함께 하는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으로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제5회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 02

2009년으로 다섯 번째를 맞은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행복추구를 함께 공감하는 워커힐만의 뜻 깊은 행사다. 3월 6일 워커힐 코스모스룸에서 가진 '2009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은 여느 해와 달리 광진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외부 모범 사회공헌 봉사자들과 수혜자를 초청해 함께 그 의미를 다졌다.

내 고장 사랑운동 동참 03

워커힐은 7월 27일 한국일보와 국민은행이 공동 진행하는 '내 고장 사랑운동'에 호텔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동참했다. 이종승 한국일보 사장, 정송학 광진구청장, 원효성 국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내 고장 사랑운동협약식에서 '내 고장 광진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유웅중 사장은 전 임직원이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유했다. 이 카드는 사용액의 0.2% 등이 광진구에 기탁돼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된다. 특히 이 카드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호텔 객실이용료 20% 할인, 호텔 내 12개 식·음료 매장 10% 할인, 워커힐 시어터 공연 20% 할인, 면세점 10% 할인(일부 브랜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환경보호와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온 워커힐은 '내 고장 광진사랑카드'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나누는 삶 워커힐의 행복

목적	사회공헌활동실적 발표 및 전망 모색
시작연도	2005년
지원대상	100명
지원금액	7,400만 원 / 1회
참여인원	150여 명

02



03



다문화가정과 함께 나누는 행복 04

워커힐 전 임직원은 11월 11일 워커힐 그랜드홀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개최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정 부부 40쌍을 비롯하여 워커힐 CEO와 임직원 10여 명뿐만 아니라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16명이 참석하여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한 차원 성숙한, 워커힐의 엔터테인먼트 역량을 심분 활용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 이 행사는 조리팀 직원과 다문화가정 부부가 함께 하는 김치담그기, 예능팀의 민속공연, 풍물놀이 배우기, 율놀이, 단체 줄넘기, 투호, 제기차기, 상모 돌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임직원과 지역민 그리고 다문화가정, 공연팀과 관객 사이에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훈훈한 자리였다.

환경보존 부문

창립 46주년 기념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 05

워커힐은 4월 7일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200여 명의 구성원이 함께 기념식수 및 아차산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임원들의 왕벚꽃 식수를 시작으로, 구성원 모두가 아차산을 등반하며 쓰레기와 낙엽 등을 수거했으며 또한 관내 유치원생들과 함께 아차산 생태공원에서 농작물을 심었다. 한편 11월 26일에는 2009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모인 워커힐의 각 실·본부 사회공헌 코디네이터 10여 명이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을 가졌다. 이들은 팔각정 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아차산공원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 2권 이상씩을 기증했다.

환경의날 맞이 중랑천 정화활동

6월 5일 환경의날을 맞이해 워커힐은 구민·기업·구청이 함께 하는 중랑천 정화활동에 동참했다. 전략기획실·기업문화실·재무지원실 등 약 30명의 워커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중랑천 및 둔치 주변의 외래식물과 쓰레기를 제거했다. 또한 공회전 줄이기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워커힐 민속공연단의 민속공연 06

워커힐 민속공연단은 2009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지역축제에 참가해 수준 높은 민속공연을 선보였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한강호텔에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민속공연을 벌였으며, 5월 9일에는 구리시가 주최한 ‘2009 구리한강유채꽃축제’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무대를 선사했다. 또한 10월 16일에도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에서 열린 ‘2009 아차산고구려축제’에서 화려한 공연으로 큰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 광진구청은 워커힐 민속공연단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글로벌 부문

재한몽골인 학예발표회 및 성탄축하행사 지원

워커힐 조리팀과 총무팀은 매년 개최되는 ‘재한몽골학교 학예발표회 및 성탄축하행사’에 케이크를 지원했다. 12월 24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펼쳐진 이날의 행사에는 재학생 81명과 학부모 및 교사 20여 명이 한데 어우러져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고유한 품미로 정평이 난 워커힐 조리팀의 빵과 케이크는 재한몽골학교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를 달콤하게 장식했다.

05



06



04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

2002년 아사모(아차산을 사랑하는 모임)

창단을 시작으로 매년 3회 이상

아차산 자연보호 캠페인 시행

2006 나무뿌리 복토작업

2007 나비 방생

2008 아차산 생태공원 환경조성 활동

2009 묘목 심기 및 생태공원 도서 기증

하늘이네집 지원

● 일반찬 전달

지원대상 10명

지원금액 15만 원 / 1회

참여인원 매주 1회 3~5명

● 평강회 봉사활동

지원대상 10명

지원금액 약 120만 원 / 연

참여인원 매월 1회 10여 명

● 하늘이네집 나들이

지원대상 10명

지원금액 200만 원

참여인원 연 2회 10여 명

4계4색(四季四色) 활동



지원금액

연간 700만 원



지원대상

연간 400여 명



참여인원

매회 20여 명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긴급구호키트 및 생필품 전달



지원금액

400만 원



지원대상

120명



참여인원

20여 명

07



자원봉사 부문

하늘이네집으로 향한 워커힐의 입체적 지원

워커힐 직원식당 외식업체인 후니드의 지원으로 워커힐과 결연을 맺은 하늘이네집 아이들에게 매주 1회 밀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워커힐 여직원 동우회 평강회는 매월 1회 하늘이네집을 방문하여 청소와 아이들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돌봐 주고 있다. 여름에는 하늘이네집 아이들과 함께 워커힐이 제휴한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고, 겨울에는 워커힐 아이스링크에 초대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쉐라톤 호텔 사업본부의 4계4색(四季四色) 활동 07

쉐라톤 호텔 사업본부는 2009년 각 분기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3월 31일에는 사회복지법인 경생원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어묵탕을 제공하고 케이크를 함께 만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6월 30일에는 향림원 신체·정신지체장애아들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경험했다. 9월 29일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재가 대상자 중 7가구를 방문해, 각각 2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과 쌀 20kg을 전달했다. 재가복지 담당 사회복지사 및 가정안내 도우미들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군자동·능동·화양동 소재의 차상위계층 가정을 방문한 25명의 워커힐 직원들은 이들의 안부를 살피고 각 가정을 청소하는 등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쌀을 기증했다.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08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워커힐 사회봉사의 날’ 프로그램이 2009년에도 훈훈함 속에 치러졌다. 어려운 이웃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워커힐 사업개발본부 및 기업문화실 20여 명이 참여했다. 12월 2일에는 광진구청과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광장동사무소에 긴급구호키트(Kit) 80개를 전달하였다. 이튿날인 12월 3일에는 경기도 파주의 양지무료노인복지원을 방문, 쌀과 성인용 기저귀 등의 생필품과 김치냉장고, 긴급구호키트를 기증했다. 행사를 마치고 봉사활동을 되짚는 시간을 가진 참가자들은 “매년 마주하는 어르신들이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새롭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누며 보다 알찬 봉사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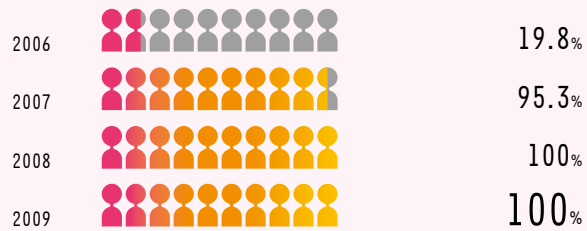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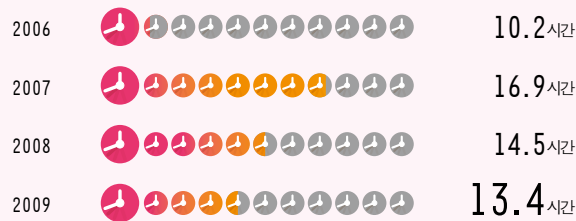


SK E&S는 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시가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시설 무료 설치, 연탄나르기, 김장김치 담그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객과 이웃의 행복을 스스로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SK E&S는 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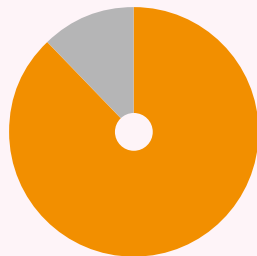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91.44
자원봉사	8.56
합	100



(단위: %)



01

SK행복나눔계절 봉사활동



● 2009년 지역별 김장김치 및 연탄나눔

부산도시가스	김치 2,500포기 연탄 1,500장
충남도시가스	김치 2,500포기 연탄 1,500장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김치 2,000포기 연탄 4,800장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연탄 1,500장
충청에너지서비스	연탄 3,000장
전남도시가스	김치 1,000포기 연탄 1,500장
강원도시가스	연탄 3,600장
전북에너지서비스	김치 1,600포기 연탄 4,000장

● 사회복지 부문

SK행복나눔계절 봉사활동 01

SK E&S 및 자회사는 SK의 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SK E&S 2010년 신입예정자를 포함한 직원 30명은 12월 8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의 취약계층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했다. SK행복나눔계절에 SK E&S는 전국적으로 총 472가구에 9,600포기의 김치와 2만 2,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부산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포항), 충청에너지서비스,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 활동에는 김치와 연탄 외에 쌀과 이불 등도 함께 전달되어 이웃들의 행복체감 온도를 높였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상 점검 및 교체 02

SK E&S의 자회사인 도시가스사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도시가스 판매라는 회사의 특성을 심분 활용, 취약계층의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있다. 시범안전점검을 통한 정기 자율안전점검과 연소기기의 올바른 사용 요령 안내,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대비한 보일러시설 집중 점검으로 구성된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상 점검 및 교체' 활동은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SK E&S의 의지가 담긴 사회공헌활동이다.

생명나눔 헌혈운동 및 생활복지서비스 활동

SK E&S 자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는 급격히 감소한 헌혈자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2월 17일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역시 노조창립기념일인 4월 15일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시가스 또한 9월 17일 전 구성원이 헌혈을 하고 소외계층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자회사인 전남도시가스는 순천시 송광면 덕산리를 방문해 '행복 24시 생활복지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는 의료나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오·벽지 주민들을 찾아가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다.

02





03



04

환경보존 부문

충남도시가스와 전북에너지서비스의 환경 가꾸기 03

충남도시가스는 3월 18일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푸른 대전 가꾸기’에 동참해 지적장애인들과 나무를 심으며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4월 13일 전북지역 SK자원봉사단, 익산정신보건센터,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익산시 관문인 하나로길에 코스모스 화단을 조성했다. 또한 8월 22일에는 익산 합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영보은혜의 집을 찾아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복날개동산’을 가졌다. 행복날개동산은 전북에너지서비스가 2005년부터 조성한 숲이다.

전북에너지서비스, 송학CNG충전소 행복 텃밭 운영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송학CNG충전소의 텃밭이 고객들과 행복을 나누는 터전이 되고 있다. 텃밭은 인근 유흥지를 활용하자는 직원들의 제안으로 2005년에 만들어졌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해마다 고추·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해 충전소 이용 고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성스럽게 재배한 작물을 고객들과 나누며 위험시설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킨 송학CNG충전소는 녹색 마케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다지고 있다.

문화·예술·체육 부문

행복한 세상 만들기 후원 04

전북에너지서비스는 4월 3일 익산시 숨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라면음악회’를 후원하고 함께 참여했다. 입장료 대신 라면을 들고 입장하는 이 음악회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폭 넓은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다. 또한 5월 16일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단독 후원했다. 이날 음악회는 500여 명의 가족들이 참석해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시청한 후 전북청소년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즐겼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2005년부터 지역민과의 문화교류를 비롯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아이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따뜻한 사랑나눔

영남에너지서비스는 6월 20일 ‘따뜻한 사랑나눔’ 행사를 통해 칠곡군 왜관읍 소재 상록모자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2005년부터 실시된 이 행사는 평소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복지시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영남에너지서비스 직원들은 20여 명의 시설 어린이들에게 1일 아빠 역할을 하며 영화를 관람하는 등 따뜻한 문화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후원금 전달 05

충청에너지서비스는 5월 4일 정우택 충북도지사를 방문해, 소외아동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해 달라는 취



06

지로 ‘미래와 희망’ 후원금을 전달했다. 충북도지사에게 전달된 후원금은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를 통해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재능을 키우고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또한 전북에너지서비스는 6월 12일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 70명에게 3,000만 원의 장학금과 급식비를 지원했다.

자원봉사 부문

우리자녀지킴이 캠페인 06

SK E&S와 자회사인 도시가스사는 매월 사업장의 패트롤카를 이용해 초등학교들의 하굣길을 보살피고 있다. 아동 관련 범죄율이 증가하던 2008년 4월 시작된 ‘우리자녀지킴이 캠페인’은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담당팀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기획되었다. 전국의 도시가스사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매주 한 번 또는 격주 한 번씩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거나 위험한 길을 동행해 주고 있다. SK E&S는 지역의 도시가스사와 아동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아름다운 사회공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음식 나누기

SK E&S 임직원들은 소외아동 저녁도시락 만들기, 지역 노인을 위한 점심배식, 장애아동의 저녁식사 보조 등 음식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부산 도시가스 임직원은 수영구 남천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5세대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고 있으며, 남구 감만동 저소득층을 위해 매주 2회 밀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은 5월 23일 포항YWCA와 함께 사랑의 뽕나누기를, 충청에너지서비스는 6월 17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과 라면 등을 전달하며 저소득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도서 정리 07

SK E&S의 자회사인 전남도시가스는 2월 11일, 전국 제1호로 설립된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도서정리·비품정리·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향후 전남도시가스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활동과 아동 관련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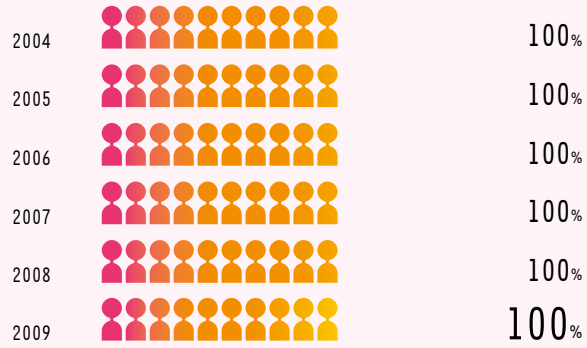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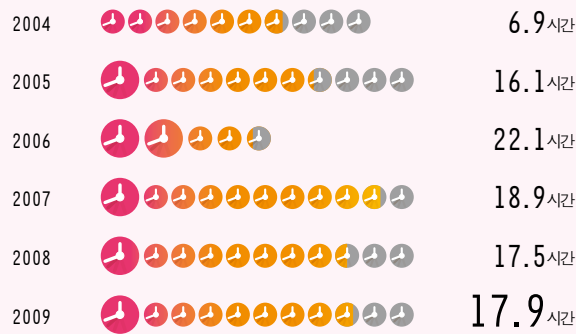


에너지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환경기업으로서 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SK가스는 희망기부금과 회사 기금을 조성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울산과 평택의 소년소녀가장·결식아동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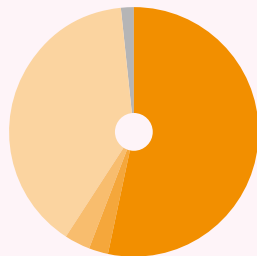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사회복지	56.56
교육·장학	0.71
환경보존	1.04
문화·예술·체육	41.57
자원봉사	0.12
합	100



(단위: %)



01

사회복지 부문

따뜻한 겨울을 위한 정기자원봉사기관 특별 후원 01

추석 명절과 연말을 맞아 SK가스 임직원들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약 1,950만 원의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본사 임직원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하는 은평재활원·청운요양원·해심원 등 3곳에는 불박이장과 싱크대·성인용 기저귀 등을 각 기관의 필요에 맞게 후원했다. 울산지역의 나눔터·애리원·디딤돌복지센터와 평택지역의 인수원 및 기지 인근 독거노인들에게는 연말 후원금을 전달했다.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은 수혜 당사자는 물론 SK가스의 겨울도 훈훈하게 덤쥔다.

1사 1촌 방문 교류 활동 02

SK가스 CEO를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9월 28일 1사 1촌 마을인 경기도 포천 지동산촌마을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정수기와 안마기 등을 전달하고 고구마·더덕 등을 수확하는 등 주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산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직구매하는 등 농촌 경제에 작은 활력을 선사하기도 했다. 농촌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회사 구성원에게는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1사 1촌 자매결연은 해를 거듭하면서 두터운 신뢰로 단단해지고 있다. SK가스는 앞으로도 신입사원 연수·구성원 단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 및 교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02





03

● 교육·장학 부문

울산·평택지역 소년소녀가장 후원

SK가스는 2004년부터 울산과 평택의 소년소녀가장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청소년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후원활동은 SK가스와 지역사회를 한층 더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는 임직원 희망기부금으로 모인 약 3,300만 원의 후원금을 30명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다.

자매결연초등학교 발전기금 지원 03

SK가스는 울산 선암초등학교와 평택 원정초등학교에 각 200만 원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2004년 LPG 저장시설이 위치한 기지 인근의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SK가스는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해, 학습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SK가스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기지 인근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 환경보존 부문

울산·평택 기지 인근 정화활동 04

SK가스 울산기지는 2009년 10월에 걸쳐 울주군 덕하리에 위치한 회야강 회야댐 주변 및 기지 인근 정화활동을 시행했다. 주말을 이용해 펼쳐진 행사에는 임직원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1사 1연안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SK가스 평택기지는 평택항과 당진항 인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13회에 걸친 자연정화활동을 벌였다. 또한 인근의 남양호 보호를 위해 남양호 주변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에도 참여했다.

04



울산·평택지역 소년소녀가장 후원

시작연도	2004년
기금조성	임직원 희망기부금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장 30명
지원내용	매월 1인당 10만 원
지원금액	연 3,300만 원

자매결연초등학교 발전기금 지원

시작연도	2004년
지원대상	울산 선암초등학교, 평택 원정초등학교
지원금액	연 400만 원

1사 1연안 가꾸기

● 울산기지	
활동지역	회야강 회야댐 인근
활동횟수	연 10회
참여 연인원	324명
● 평택기지	
활동지역	평택항 및 당진항, 남양호 인근
활동횟수	연 13회
참여 연인원	209명

정기 자원봉사활동 기관

본사	은평재활원 · 청운요양원 · 해심원 등
울산기지	애리원 · 나눔터 · 메리학교 등
평택기지	열린재활원 · 안식의집 · 일누리보호작업장 · 인수원 등

06



05

● 자원봉사 부문

본사 정기 자원봉사활동 05

SK가스 본사 임직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사회복지기관 3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벌여 왔다. 서울 은평구 소재 장애인생활시설인 은평재활원과 종로구 구기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청운요양원, 그리고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해심원 등을 방문한 임직원들은 점심 배식 보조, 목욕 봉사, 청소, 놀이치료 보조, 휠체어 산책을 도왔다.

울산기지 정기 자원봉사활동 06

SK가스 울산기지 임직원과 가족들은 지체장애인시설 애리원과 복지시설 나눔터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목욕봉사, 시설 보수 및 청소, 잡초 제거, 페인트칠, 생필품 전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왔다. 또한 청각장애인 학생들의 메리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1일 체육선생님으로 활동했으며, 기지 주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수시로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생필품 및 학용품 등을 전달하고 집안청소, 시설 정비, 빨래 등을 돕는 SK가스 울산기지의 자원봉사는 인근 지역민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울산기지는 매년 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헌혈 행사도 전개하고 있다.

평택기지 정기 자원봉사활동 07

SK가스 평택기지 임직원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인 열린재활원과 안식의집, 동명복지재단 일누리보호작업장을 찾아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 봉사자들은 축구경기·배드민턴 등의 스포츠를 원생들과 함께 즐기는 한편, 시설 청소 및 정비 등의 실질적인 봉사활동도 펼쳤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인근 양로원인 인수원을 방문하여 벽지 도배를 돕는 등 꾸준한 자원봉사로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화리의 장애우 가정, 서평택 방정환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기지 인근 불우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

07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을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도 SK브로드밴드는 기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과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자원봉사단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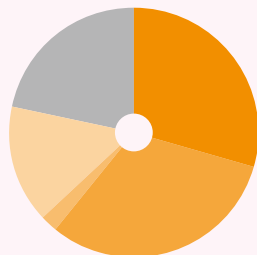
1인당 봉사시간



2009 사회공헌 부문별 예산

(단위 : %)

■ 사회복지	30.13
■ 교육·장학	32.02
■ 환경보존	0.63
■ 문화·예술·체육	15.25
■ 자원봉사	21.97
합	100



01

02

03

● 사회복지 부문

서울 중구 저소득가정 연간 후원 01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2월, 노사가 함께 저소득가정을 위한 후원금 4,000만 원을 마련해 서울 중구청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SK브로드밴드와 결연을 맺은 중구청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66가구의 생활비 보조(매월 5만 원씩 1년)에 사용됐다.

전국 저소득가정 초고속인터넷 지원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저소득가정 초고속인터넷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초·중·고생 및 특수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전국 저소득가정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11년까지 전국의 저소득가정에 초고속인터넷 100Mbps급 광랜 서비스를 현행 요금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며, 관할 교육청은 저소득가정을 대신해 이용요금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 해당 청소년은 각 학교에 배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교육·장학 부문

해피인터넷 캠페인으로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조성 02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해피인터넷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해피인터넷 캠페인은 건전한 정보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기업 역량을 활용해 보다 특성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SK브로드밴드의 의지를 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해피인터넷 캠페인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임직원 36명을 '해피인터넷 멘토'로 양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10개 인터넷행복학교를 지정해 인터넷중독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간관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피인터넷 캠페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지구촌행복한홈스쿨 후원 03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장학 사업을 펼쳐 온 SK 사회공헌활동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지구촌행복한홈스쿨'과 결연을 맺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과 특별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1월 노사 공동 후원금 3,000만 원을 기아대책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2008년 노사 합의를 통한 노사공동 기부금 2,000만 원, 전 구성원이 '희망 동전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400만 원, 회사 사회공헌 기부금 600만 원 등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구촌행복한홈스쿨에 42인치 TV와 브로드밴드TV를 기증하고 '대교방송' 등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했다. 2009년 한 해 동안 SK브로드밴드 임직원들은 총 7차례 지구촌행복한홈스쿨을 방문해 IPTV를 활용한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월 도에 체험, 5월 민속촌 방문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했다.

● 환경보존 부문

전국 주요 지역 환경정화활동 04

SK브로드밴드는 서울·대전·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부영업본부와 네트워크본부는 대전지역의 계족산(3월)과 계룡산(11월)에서, 서부영업본부와 네트워크본부는 광주전(4월)과 무등산(11월)에서 그리고 강북영업본부는 북한산(5월)에서 주변지역을 청소하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또 6월에는 강남영업본부가 안양 수리산에서, 컨버전스영업본부가 남산 일대에서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했다.

1사 1거리 가꾸기 캠페인

SK브로드밴드는 지역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사 1거리 가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컨버전스영업본부 임직원 135명은 2009년 총 12차에 걸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터넷데이터센터 주변을 가꾸고 청소했다.

● 문화·예술·체육 부문

장애인·지역주민을 위한 시네마데이·스포츠타데이

SK브로드밴드는 취약계층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시네마데이와 스포츠타데이를 개최했다. 2009년 5월 동부영업본부와 수성고객센터는 대구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 주민 300여 명을 초대해 영화 <7급 공무원>을 상영하고, 추첨을 통해 영화초대권·선봉기·휴대용 상품 등 경품을 제공했다. 또 6월 강북영업본부는 인천지역 시설 아동 및 고객 500여 명을 초청해 SK와이브스 대 두산베어스의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찾아가는 가족콘서트 후일 05

SK브로드밴드는 작은 시골학교를 살리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찾아가는 가족콘서트'를 후원했다.

9월 7일 제주 애월초등학교 더덕분교를 시작으로 8일 제주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9일 제주 가파도 가파초등학교, 10일 제주 마라도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 14일 경남 하동 양보초등학교, 16일 전남 나주 요안나의집(옛 유곡분교) 등 농촌과 섬마을 학교에서 진행됐다. 이 콘서트에는 가수 강산에, 동요 부르는 어른모임 '철부지', 꼬마 동요합창단 '예동어린이중창단', 마임이스트 고재경, 비누방울 공연을 펼치는 오쿠다 마사시, 클래식중창단 '암모암모콘서트앙상블' 등이 출연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선사했다.

드림스타트 가족 어울림 한마당 06

SK브로드밴드는 5월 23일 안양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초대해 체육대회를 열고, 건강한 웃음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원봉사 부문

사랑의 연탄나눔

SK브로드밴드는 SK행복나눔계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연탄을 전했다. 11월 10일 강북영업본부 강북네트워크본부 임직원 130여 명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5,000장을 배달했다. 또 11월 18일 강남영업본부 강남네트워크본부 구성원 50여 명과 기업영업단 구성원 100여 명은 서울

05



06



04

환경정화활동

강남영업본부

안양 수리산 생태보호(6월, 50명)

강북영업본부

북한산 자연보호(5월, 70명)

서부영업본부 네트워크본부

광주전 환경정화(4월, 14명)

무등산 도립공원 환경정화(11월, 60명)

서부영업본부 네트워크본부

계족산 환경정화(3월, 50명)

계룡산 환경정화(11월, 50명)

컨버전스영업본부

남산 환경정화(6월, 20명)

서울 서초동 거리 가꾸기(연 12회, 135명)

시네마데이·스포츠타데이

● 시네마데이

일시 2009년 5월

주최 동부영업본부·수성고객센터

대상 대구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 300여 명

지원내용 영화 상영, 경품 이벤트

● 스포츠타데이

일시 2009년 6월

주최 강북영업본부

대상 인천지역 시설 아동과 고객 500여 명

지원내용 야구경기 관람



07



08

사랑의 김치나눔

사업본부

일시

경영지원부문 12월 2일

동부네트워크본부 11월 25일(대구)

동부영업본부 11월 26일(부산)

서부영업본부 12월 4일

서부네트워크본부 12월 9일

09



10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서 1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부네트워크본부 구성원 10여 명은 11월 17일 SK텔레콤과 함께 광주지역에서 사랑의 연탄과 난방유를 배달했다.

사랑의 김치나눔 07

SK브로드밴드는 전국에서 '사랑의 김치나눔' 활동을 펼쳤다. 경영지원부문 임직원 50여 명은 12월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아대책과 함께 김치 500포기를 담가 지역 독거노인가정에 전달했다. 동부네트워크본부 동부영업본부 대구지역 임직원 17명은 11월 25일 김장김치를 담가 북구지역의 취약계층 120세대에 직접 배달하는 한편 말벗봉사를 펼쳤다. 또 동부네트워크본부 동부영업본부 부산지역 임직원 33명은 11월 2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조손가정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100세대를 위해 김치 300포기를 직접 담가 전달했다. 서부영업본부는 12월 4일 SK텔레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및 쌀 전달 봉사활동을, 서부네트워크본부는 12월 9일 대전 웅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에 참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및 밥퍼 봉사활동 08

SK브로드밴드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어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12월 3일 마케팅부문 영업기획본부는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와 부랑자 1,000여 명에게 저녁식사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15일 뉴미디어사업단, 22일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사업단 등 총 3차례에 걸쳐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강북네트워크본부는 2009년 90명의 임직원이 총 12차례 서울 청량리와 인천에서 밥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신입사원 자원봉사활동 09

SK브로드밴드 신입사원 36명은 1월 28일 기아대책 산하의 성남 서로사랑복지센터와 함께 성남지역 50여 명의 독거노인을 방문해 설 인사와 과일 선물을 전달하고, 이동 목욕과 도시락 배달, 말벗 봉사 등을 펼쳤다. 이 활동은 신입사원들이 SK브로드밴드의 사회공헌 이념을 이해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 중 CSR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대상 전국 자원봉사활동 10

SK브로드밴드는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행복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대시키고 있다. 동부영업본부 동부네트워크본부 임직원 63명은 2009년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대구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건강검진·수지침·청력검사·안마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대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르신 700여 명을 초청하여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효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2월 말에는 부산 공공복지관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조손가정을 위한 잔치국수 300인분을 만들어 직접 배달했다. 서부영업본부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대전시 소재 놀이공원 '꿈돌이랜드'에서 미아방지용 이름표 달아 주기·풍선 선물하기·네일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동부영업본부 동부네트워크본부는 7월 대구지역 장애아동 50명의 물놀이행사를 지원했다. SK브로드밴드 정보기술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63명의 구성원이 참여해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함께 축구 등 체육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장애인보호작업장 '함께 사는 세상' 자원봉사(7~10월, 12월/총 5회, 30명), 장애인센터 서울한사랑공동체 장애영아원 일손돕기(3월, 34명), 광주 애일의집 방문목욕봉사(7~11월/총 5회, 15명), 광주 사랑의집 일손돕기(5월, 13명) 등 전국적으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제4부

부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의 또 다른 날’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행복지수가 올라갈수록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지 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가 아닌,
번영과 상생의 길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첫걸음’입니다.
SK는 언제나 첫걸음을 내딛듯
부푼 열정과 도전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한 행복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009 SK 사회공헌활동 대외 수상 현황

	수상자	수여기관	포상명	수상사유
SK에너지	SK에너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감사패	양한의학 연구 지원
	인천CLX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상 (우수자원봉사단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인천물류 천사봉사단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장상 (자원봉사단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이동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노인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달구벌천사단	사회복지법인 신안복지재단	감사패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실천
	최종안	대구YMCA	감사패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서울물류센터	과천시노인복지관	감사패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마산물류 천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봉사상	자원봉사활동으로 행복나눔
	전주천사단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지사상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네트릭사업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양기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
	제주천사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09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례	소외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 만들기
	하원철	대구 동구청	대구 동구자원봉사센터 사진공모대전 대상	이웃사랑의 현장을 담은 사진
	SK텔레콤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표창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의 하이티쳐 활동
	중부마케팅본부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표창	10여 년간 지역사회에 기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SK텔레콤	동부네트웍본부	부암초등학교	감사패	가정환경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동부네트웍본부	부산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	표창장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 증진
	동부네트웍본부	대한노인회 및 부산광역시	표창장	노인 공경과 노인복지 증진
	동부네트웍본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감사패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서부마케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표창장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서부마케팅본부	광주시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패	교육복지 발전에 기여
	서부마케팅본부	순천린제이종합복지관장	감사장	식사배달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마케팅본부	울산광역시장	표창장	지역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
	부산마케팅본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표창장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 및 진정성
	부산마케팅본부	어린이재단	감사패	어린이복지 증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수도권네트웍본부	서울 관악구청	감사장	쌀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수도권네트웍본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감사패	복지관이용 어르신 위문공연, 자원봉사활동
	서부네트웍본부	제주보육원	감사패	아동복지향상 및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
	서부네트웍본부	웅진원	감사패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학습도움 및 자립적금 후원에 기여
	중부마케팅본부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중부마케팅본부	강원도 정선군청	감사패	사랑의 생수 보내기 활동으로 지역 가뭄해소에 기여

	수상자	수여기관	포상명	수상사유
 SK 네트웍스	기술연구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감사패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SK 케미칼	서울시장	표창	실버극장으로 노인문화 및 복지 향상에 기여, 우수 의약품 개발로 가속화되는 노령화 사회에 기여
	 SK C&C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감사패	5년간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행복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
 SK 건설	WALKERHILL	서울그린트러스트	표창장	서울숲공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환경보호에 기여
		서울YM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장	저소득 노년층에게 도시락·반찬 배달로 지역복지에 기여
		인천동춘초등학교	감사패	교통안전봉사활동으로 안전문화에 기여
		경기도	표창장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활동으로 지역복지에 기여
		인천광역시	표창장	1사 1도로 클린 관리제, 친환경사업장 조성을 통해 환경문화에 기여
 SK E&S	WALKERHIL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효자상 양양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업계 최초 수상)
		서울 광진구청	감사패	한국민속공연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발전에 기여
 SK 가스	WALKERHIL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7년 동안의 지속적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은평천사원	감사장	정기 자원봉사 및 후원으로 취약계층 복지에 기여
		선암초등학교	감사패	자매결연 및 발전기금 후원으로 학교발전에 기여



시대정신 충실한 산업모델 창조해 온 SK주식회사

SK주식회사는 기간산업에서부터 차세대 핵심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SK의 지주회사이자 독립법인이다. 섬유수출에서 시작해 석유에너지, 종합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시대정신'에 충실한 산업 모델을 선도적으로 창조해 왔다. 아울러 SK주식회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투명경영 실천으로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16개국 34개 광구에서 꿈을 캐내는 SK에너지

SK에너지는 한국 최초의 정유사로 출발해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간의 사업적 성과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메이저 플레이어에서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하고 있는 SK에너지는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수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SK에너지는 정유사업을 비롯해 첨단 소재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화학사업 등을 펼치면서 지속성장을 거듭해 왔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온 SK에너지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되기 위해 석유화학 등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 중에 있다. 전 세계 16개국 34개 광구에서 5억 2,000만 배럴의 원유지분을 보유하고 하루 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SK에너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글로벌 ICT 리더를 추구하는 SK텔레콤

1984년 1세대 아날로그 이동전화시대를 개막한 SK텔레콤은 이후 세계 최초로 CDMA 기술 상용화 성공, 2.5세대 CDMA 2000 1X 서비스, 3세대 동기식 상용화, HSDPA와 HSUPA의 상용화 등의 신화를 창조하며 이동통신사업을 이끌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를 주도하는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를 통해 다각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앞선 품질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성·문자 서비스 및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세계인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이용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글로벌 ICT 리더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고객의 친구 SK네트웍스

1953년 창립한 선경직물을 전신으로 하는 SK네트웍스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수많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내 최대의 마케팅 회사'로 성장해 왔다. 정보통신 및 에너지 판매 사업을 통합하고 패전, 자동차 판매 등 Customer사업을 운영하여 50여 개의 상품군과 6,000여 개의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2,500만 고객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 기업인 SK네트웍스는 산업의 융·복합화로 정보통신, 유통물류, 문화레저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SK네트웍스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외로 시장을 확장해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린케미칼과 라이프사이언스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SK케미칼

SK케미칼은 1969년부터 40년 동안 국내 화학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화학소재 전문기업이다. 정밀화학·석유화학소재·생명과학 분야에서 앞선 기술과 우수한 제품 역량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해 온 SK케미칼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린케미칼과 라이프사이언스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그린케미칼 사업에서는 한국·중국·폴란드에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고 폴리에스터수지·고기능성 PETG 수지·환경소재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고기능성 플라스틱수지·폴리실리콘·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소재와 신소재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 사업에서도 국내 최초의 신약인 항암제 '산플라', 천연물신약 1호 '조인스', 발기부전치료 신약 '엘빅스' 등 3개의 신약을 비롯하여 혈액순환개신제 '기넥신', 관절염치료제 '트라스트' 등 합성 의약과 천연물 의약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SK케미칼은 제약·의료기기·의료솔루션을 포함하는 토탈헬스케어기업을 목표로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투자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그린케미칼과 라이프사이언스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21세기 아시아 PU 사업의 리더 SKC

SKC는 1976년 창사 이래 필름 가공 및 코팅 분야에서 축적해 온 필름 관련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저장 미디어 중심의 사업구조를 정보통신·첨단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해 왔으며, PI 필름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차세대 소재 경쟁에서도 선두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화학사업의 첨단소재인 PU(Polyurethane) 사업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21세기 아시아 PU 사업의 리더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 R&D 투자 확대 및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편 SKC는 미국·중국 등지로의 성공적 해외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글로벌 현지 경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SKC는 첨단 산업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ICT 컨버전스 변화를 선도해 가는 글로벌 IT 리더 SK C&C

SK C&C는 1991년 창립 이래 공공, 금융, 통신·미디어, 에너지·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IT서비스 회사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7년 중국·인도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08년 몽골 및 중앙아시아·중동 지역, 2009년 미국 지사 설립을 통한 미주 지역 IT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SK C&C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2009년 성공적인 상장을 계기로 'Create Value for Customers, Challenge the Future'라는 비전을 새로이 수립한 SK C&C는 컨설팅, IT 아웃소싱, SI(System Integration) 등 기존 사업은 물론 ICT 컨버전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규사업 분야에서 변화를 선도해 가고 있다.



신개념 브랜드와 앞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SK건설

SK건설은 1977년 창립 이후 앞선 기술력과 우수한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지속성장의 모델을 제시해 왔다. 주택사업은 조형미학과 공간미학을 도입한 신개념 브랜드 'SK VIEW'로 각광받고 있으며, 건축사업 분야 역시 기능과 미학이 어우러진 독창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토목사업은 사회 간접자본을 비롯한 토목 전 분야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저장기지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플랜트사업은 석유화학·정유·가스 등 화공플랜트 분야에서 주주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산업플랜트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밖에도 통신 분야의 노후유를 이용한 u-사업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SK건설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선사로 발돋움하는 SK해운

7,300만 톤의 수송물량을 자랑하는 SK해운은 원유선과 석유제품선, 가스선(LNG, LPG) 벌크선, 벙커링, 선박기술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해운사로 '단순히 고객의 화물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가치를 수송한다'는 신념으로 서비스를 해 오고 있다. 특히 국내 도입 원유 수송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해운은 국가전략자원인 원유 수송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송 파트너라는 기업 이미지를 확고히 해 오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선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에서 국동을 잇는 항로에서는 높은 지배력을 갖춘 선도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매우 정교한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해운업 분야 중 하나인 LNG 수송 분야에서도 SK해운은 모든 종류의 LNG 수송선을 소유·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선사이다.



브랜드에 걸맞은 금융투자회사를 지향하는 SK증권

증권사의 핵심역량인 기업유리를 위해 실적보다는 컴플라이언스(준법의무)를 중시하고 있는 SK증권은 기업의 경쟁력은 자본금 규모나 외형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고객의 신뢰'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객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기업인 SK증권은 모바일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그룹 내 금융솔루션 제공도 함께 하고 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SK증권은 아시아 지역 PF 분야와 상품 판매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IB시장 공략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자본 확충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문가 양성과 전문성 제고, 신상품 개발능력 배양 등을 통해 SK브랜드에 걸맞은 금융투자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WALKERHILL

고객의 상상보다 앞서가는 세계적 호텔기업 (주)워커힐

(주)워커힐은 웨라톤 그랜드 워커힐, W서울 워커힐, 워커힐 면세점, 그리고 인천공항 환승호텔로 대표되는 외부사업 영역까지 각기 다른 사업 분야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웨라톤과 W라는 2개의 세계적 호텔 브랜드가 제공하는 830여 객실과 15개의 레스토랑 외에도 세계적 공연 전문극장에서 공연되는 '워커힐 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리고 특화된 MD로 VIP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면세점 등이 (주)워커힐의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과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주)워커힐은 향후에도 고객들의 상상을 실현하는 신산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호텔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다.



세계 무대를 꿈꾸는 종합에너지서비스기업 SK E&S

국내 최초의 순수 지주회사로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전력, LNG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종합에너지서비스기업 SK E&S는 전국 주요 지역 8개 도시가스사업 자회사를 통해 가장 광범위한 공급체제를 구축, 국내 도시가스 총 수요의 약 25%를 공급하고 있다. 발전사업에서는 자회사를 통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과 스팀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을 목표로 수도권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LNG 사업과 함께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개발사업 등 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옵션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스와 전력의 멀티 유틸리티 글로벌 플레이어의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Global Clean Energy, 환경기업으로 거듭나는 SK가스

SK가스는 198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LPG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 에너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평택과 울산에 위치한 총 47만 톤 규모의 LPG 저장시설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가정용·산업용·차량용·산업용 LPG를 공급하며, 국내 LPG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석유 화학용 LPG 공급, 스몰 볼크를 이용한 LPG 배송시스템, 열조용 LPG 공급 사업, LPG 차량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취항 전 LPG 운반선의 설비점검과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가스 트라이얼(Gas Trial), 가스프리(Gas Free) 사업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999년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하여 산둥성, 헤이룽장성에서 LPG 충전소와 복합주유소 운영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유제품터미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 지역에서 석유, 석탄, 광물 등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컨버전스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는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1999년 4월, 초고속인터넷 ADSL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이끌었다. 2004년 사명을 하나로통신에서 하나로텔레콤으로 변경하고 수익경영을 펼치는 동시에 2006년 두루넷과 통합법인 출범,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인수 등 규모를 키워 왔다. 2006년 종합멀티미디어기업으로 전환한 뒤, 같은 해 7월 주문형비디오(VOD) 기반의 IPTV인 하나TV(현 브로드앤TV)를 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SK의 새로운 일원이 된 뒤 고객가치(CV)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아울러 SK텔레콤과 결합상품, 070 인터넷전화를 내놓는 등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CAPEX 투자 확대를 통해 네트워크 품질을 제고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IPTV 사업자로 선정돼 2009년 실시간방송 IPTV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SK브로드밴드는 유·무선, 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버전스 리딩 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SK 사회공헌 관련 웹사이트

SK(주)	http://www.sk.co.kr
SK에너지	http://www.skenergy.com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SK네트웍스	http://www.sknetworks.com
SK케미칼	http://www.skchemicals.com
SKC	http://www.skcc.co.kr
SK C&C	http://www.skcc.com
SK건설	http://www.skec.co.kr
SK해운	http://www.skshipping.co.kr
SK증권	http://www.sks.co.kr
워커힐	http://www.walkerhill.com
SK E&S	http://www.skens.com
SK가스	http://www.skgas.co.kr
SK브로드밴드	http://www.skbroadband.com
●	
한국고등교육재단	http://www.kfas.or.kr
행복나눔재단	http://www.happynanum.org
SK미소금융재단	http://www.skmiso.or.kr
아트센터 나비	http://www.nabi.or.kr
장학퀴즈	http://www.janghakquiz.com
사회적 기업 웹사이트 '세상'	http://www.se-sang.com

2009 SK 사회공헌활동 백서

발행처	SK자원봉사단
연락처	100-99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1
발행일	2010년 3월 25일
발행인	김신배 SK자원봉사단 단장
편집 및 진행	SK텔레콤 CR전략실 CSR 그룹

